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5월 24일(음력 4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 579 호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체 보수중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1과와 사리장엄.

"낙산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오셨네"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체 보수중 발견

양양 낙산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점선안)와 사리함 등 사리장엄이 발견됐다고 5월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부처님 진신 사리는 폭 0.8㎝, 높이 0.6㎝ 크기로 유백색이며 광채를 내고 있고 있어 불자들을 감복시키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화마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중창불사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현해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부처님 진신사리는 친견 법회 이후 다시 사리탑에 봉안할 예정이며 사리장엄은 문화재로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글 · 사진/양양=김두식 기자

절할 때 왜 손바닥 들죠?

삼배 · 손동작 등 통일된 '정의' 없어 제각각
조계종 교육원 '절 수행 지침서' 내달 발간

서울에 사는 불자 이모(33)씨. 이 씨는 주말 지인과 함께 산사를 찾았다. 그는 지인을 따라 스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다 당황했다. 자신은 스님에게 한배를 올린 반면 지인은 삼배를 올린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스님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다.

부산에 사는 중학생 박모(15)군. 어머니를 따라 법당에 들어간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절을 할 때 양 손바닥을 펴서 들어올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대는 것이었다.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지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늘 하는 삼배(三拜). 그러나 삼배의 기원과 의미,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조계종이 펴낸 신도교재 <불교입문>에 따르면 "절은 삼보(三寶 : 佛法僧)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하심(下心)의 수행 방법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삼보에 예경을 올릴 때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큰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체는 몸의 다섯 부분인 두 팔꿈치와 두 무릎, 이마를 말한다.

또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 서서 합장 반배하고, 실내에서는 삼배의 예를 올려야 한다(때에 따라서는 1배를 하기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삼배는 삼보에 대한 예경과 더불어 삼독(三毒 : 貪 · 瞋 · 痴)을 끊고 삼학(三學 : 戒 · 定 · 慧)을 기른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삼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삼귀의계(三歸依戒)에서, 심만춘 동방불교대학 부학장은 <대범천왕문불결의경>에서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3번 하는 것에서 삼배의 기원을 유추하기도 하지만 문헌상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부처님께만 삼배를 할 뿐 스님에게는 한배만 하면 된다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삼배를 할 때 양 손바닥을 하늘로 펴고 귀 높이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불교입문>에서는 이를 접족례(接足禮)라고 일컬으며 엎드려 절하면서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고종에서는 절을 할 때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한다. 이와 관련 종단을 막론하고 불교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절을 할 때 손을 하늘로 펴고 귀 높이로 올리는 것은 일제때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배나 절을 하는 방법 등을 비롯해 불교계 각종 의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통일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교육원이 오는 6월 <절 수행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알려져, 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질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


시방세계 9면
조계사 '道로 가는 버스'


도반의 향기 17면
'119 선생님' 안시장 소방관

수목장 불교계 현황 · 과제 4면
부처님제자 사리展 회향 7면

공원입장료 폐지 법안 국회로

장복심 의원 18일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5월 18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단순 등산객에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해 그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며 "입장료 폐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여가선용 활성화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의 징수'로 한정, 입장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 또 제42조에서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징수목적에 맞도록 자연공원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해 국립공원관리 이외에 문화재 관리 · 보수비용 사용을 허용한 조항도 수정 · 삭제했다. 법 개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총 70명. 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16명) 소속의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 통과는 낙관적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아들아, 네 불심은 아직 뜨겁구나!

5 · 18 민주항쟁 26주년을 맞은 광주 국립 5 · 18 묘역에서 故 김동수 열사의 부모는 아들의 비와 묘를 쓰다듬으며 아들을 그리워했다. 5 · 18 민주항쟁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이었던 김동수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했다. (관련기사 7면) 사진=이준엽 기자

단청장 만봉 스님 입적

21일 태고종단葬… 선암사서 다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만봉 스님(사진)이 5월 17일 오전 서울 신촌 봉원사 운수각에서 입적했다. 세수 97세, 법랍 81세. 한국 전통 불화(佛畵)의 맥을 계승한 불교미술의 거장 만봉 스님은 열반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영결식은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태고종 종단장으로 열렸으며, 다비는 이날 오후 5시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만봉 스님의 발자취는 천만세에 빛날 것이오니 부디 다시 오시어 중생을 보살피소서"라며 열반을 애도했다. 관련기사 8면

김주일 기자

달라이 라마 한국정부에 비자 신청

달라이 라마가 5월 16일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행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신청이다.

달라이 라마가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티베트 망명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 방문을 여러 차례 검토한 적은 있지만, 비자신청은 하지 않았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KY Life is Entertainment Kumyoung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2004-8207, 8210 (현대불교 영업2팀)

1989년 ~2005년 남북종교교류 381건

문광부 '문화정책 백서' 펴내…불교 종단 105개

정부가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후 지난해 12월 까지 종교계의 방북과 북한 주민접촉은 총 613건(4938명)이 승인됐으며, 이 가운데 381건(3965명)이 성사됐다.

문화관광부가 5월 17일 발간한 <2005 문화정책 백서>에 따르면 1989~1997년 평균 1명 수준이던 남북 종교 교류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22.4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남북 종교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북한 주민접촉도 같은 기간 67.9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크게 늘어 남북간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종교계가 직접나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지원외에 남북간의 종교 교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불교계가 신계사와 영통사 복원 불사를 성사시켰지만 개신교의 교회재건이나 가톨릭의 사제상주 추진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백서는 △자율적 종교교류협력 지원 △북한체제의 종교현실 인정 △종교계 대북지원 확대 △종교간 역할 및 정보교류 △교류인사 및 지역 확대를 향후 종교계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백서와 관련, 진각종 지현 정사는 "진정한 통일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한다"며 "정부는 체제 · 이념의 한계가 분명한 경제협력이나 당국자간협력보다 민간 종교교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서는 우리나라 불교의 교세 현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등 105개 종단이 등록되어 있다. 사찰수는 2만2070곳으로 승려수는 4만1360여명이었다. 불교인구는 1995년 인구선세스 기준으로 1032만여 명으로 인구의 23.2%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25%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수도권사찰 포교현황 조사

포교원 · 중앙종회, 14개 사찰 대상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위원장 지현)는 5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사찰의 포교현황 조사' 사업시행을 논의했다. 수도권사찰의 포교현황 조사는 포교분과위와 포교원 공동으로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수도권 14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본말사 주지 인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포교원 실무자들이 직접 방문, 주지 스님과 면담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사찰은 도심 대형사찰과 사설사암 제외한 공찰을 중심으로 조계사 도선사 옥천암 영화사 사자암 무진법장사(사) 개운사 경국사 동명사(사) 수국사 삼보사(사) 봉은사 약수사 약사사 등 14곳이다.

조용수기자

'서울사암대표자협의회' 출범

22일 조계사서 '현판식'

조계종 서울사암 대표자협의회(공동대표 혜자 · 원혜 · 원담)가 5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 19일 열린 직할교구종회에서 교구분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을 추진해온 서울사암 대표자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조계종 사찰의 유대 강화 △대(對)서울시 현안 사업 및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사업의 종책마련과 공동 포교 전략수립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 15일에는 도선사 혜자, 삼성암 현종, 석불사 경륜, 수국사 토진, 약사사 태연, 옥천암 정범, 적조암 자제, 정수암 상덕, 조계사 원담, 진관사 계호, 청룡암 혜조, 호압사 원욱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갖고 직할교구 내 서울 사암련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017)352-7121

조용수 기자

'영축총림 방장추대' 촉구

조계종 총무원이 방장 추대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통도사(주지 직무대행 현문)에 방장추대 촉구공문을 5월 16일자로 발송했다. 총무원은 "우리종단 종헌 106조 2항과 총림법 4조 2호에 의해 방장이 궐위된 지 1년 이내에 추대하지 못하면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 총림지정을 해제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축총림 통도사 비상대책위(대표 목산)는 5월 1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승랍 45년 이상 스님들과 전현직 주지 종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26일 '산중회의'를 열기로 한데 이어, 통도사 종무소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천미희 ·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죽는 날까지 포교"…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량 배가

첫 '군승 하계 수련회', 수불 스님 10억 약정
군법사 20명 골수기증 · 30명은 장기기증





육해공군 군법사 119명은 불기 2550년 하계수련회를 갖고 군포교 활성화에 전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조계종 군종교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군법사가 한자리에 모여 군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5월 16일~18일 속초 영랑호콘도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군불교 불기 2550년 군승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계 수련대회에는 육해공군 군법사 136명 가운데 해외파견 및 교육자를 제외한 119명이 동참해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의 선봉장으로서 죽는 날까지 포교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군승 수련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 법문, 안국선원 수불 스님 특강, 군승회의, 조계종 군종교구의 역할, 생명나눔 홍보,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입제식에는 신흥사 회주 오현,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부주지 계성, 건봉사 회주 영도, 낙산사 주지 정념, 천태종 사회국장 무원스님과 강원도청 환경문화관광국 홍기업 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수련회 자리를 빛냈다.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고 당신들도 나를 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이라며 "군법사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군포교의 전법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오늘날 한국불교가 있다"며 군법사의 활동을 치하했다. 법문에 이어 스님은 즉석에서 군법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당부를 하며 군포교 발전기금 1590만원을 보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도 특강을 통해 "군 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군법사님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수행자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군포교 발전을 위해 10년동안 매년 1억씩 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특강 이후 조계종 군종교구에 올해분 1억원을 직접 기탁하고 약정서에 서명했다. 둘째날 열린 특강에서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군인드라닷컴(gunindra.com)을 개설해 군포교의 현실과 필요성을 불자들에게 알리고 군법사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조계종 승려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과 군법사의 청규를 제정해 발표하는 등 군법사의 자질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계 수련회에서는 군법사들이 생명나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골수 이식과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해 화제를 모았다. 17일 오전 장기기증의 의미와 현황을 생명나눔실천회로부터 설명받은 군법사들은 현장에서 20명이 골수 기증을, 30명이 사후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지난해 교구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군법사님이 마음놓고 군포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못 마련해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로 힘을 모아 꼭 해야할 군포교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글 · 사진/속초=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보시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노래방기기 전달 · 즉석 댄스 파티!

심우회, 12사단 신교대법당서 위문법회



군포교를 전문으로 하는 심우회(회장 김정곤)는 5월 14일 12사단 훈련소 신교대법당에서 부산 해운대 목련암 성덕 스님을 초청해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위문법회에는 김정곤 심우회장을 비롯해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빵과 음료는 물론 합장주, 노래방 반주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법회에 동참한 150여명의 장병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사진).

성덕 스님은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의 훌륭한 전통이 있다"며 "장병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군생활을 마칠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법문했다.

김두식 기자

2006학년도 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13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불교문화재학전공자는 졸업후 학예사(3급)자격증취득 가능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 서 교 부 : 2006. 6. 5(월) ~ 9(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 서 접 수 : 2006. 6. 5(월) ~ 9(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6. 6. 15(목) 14 : 00 부터
4) 합격자 발표 : 2006. 6. 19(월)
5) 등 록 기 간 : 2006. 6. 21(수) ~ 6. 30(금)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대학원 세미나실(2006. 6. 15. 13:30까지 입실)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2) 시간 : 2006. 6. 15.(목) 14 : 00 면접 및 서류 전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승적증명서 (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계일 기입 요)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6. 8. 28(월)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4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내선 : 7864) / FAX : 031) 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 수지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대 학 원

홍승스님의
사찰음식강좌 회원모집 안내

초급반 개강 5월30일 (화) 오후 2시, 6월 1일 (목) 오전10시

1. 강좌 안내 및 장소
가. 강좌기간 : 초급반 - 3개월간
중급반 - 3개월간
고급반 - 6개월간
나. 강좌장소 :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연구회 강습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13 학빌딩 2층)

2. 모집인원
초급반 강좌 : 선착순 20명 모집

3. 강좌 및 실습내용
가. 매회 2~3 가지의 사찰음식 실습
나. 사찰음식에 담긴 뜻과 의미에 관한 교육
다. 천연조미료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대한 교육
라. 올바른 식사예절에 관한 교육
마. 사찰음식의 발굴과 보급 연구
바. 조리에 관련된 각종 특강

4. 특전 : 수료증 수여, 연구회원 자격 부여
사찰음식점 개업 시 지원, 출장 요리사 자격부여

5. 준비물
가. 강좌수강료 : 3개월 40만원 (재료비 포함)
(입금계좌 : 하나은행 755-910044-02507 황순희)
나. 입회원서 (소정양식)

6. 문의 및 접수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연구회
대표전화 : 02)2058-0818, 017-392-3452
E - mail : sansaro7@hanmail.net

※앞치마는 연구회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홍승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13 학빌딩 2층 문의 02)2058-0818, 017-392-3452

스포츠 포교 적극 나서자

조계종 포교원 포교활성화 종책연찬회 개최

'월드컵 활용' '종목별 지도자 배출' 등 제안

2006 독일 월드컵이 시작되기 며칠 전. 골굴사 선무도 수행자들로 구성된 월드컵 응원단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결단식을 하고 응원가에 맞춰 신나게 꼭짓점 댄스를 춘다. 이어 선무도를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가 새겨진 퓨전 승복을 맞춰 입고 독일로 가 주요 지역을 순례하면서 선무도를 응용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주요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다.

가상이다. 그러나 가상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5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스포츠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2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 김학신씨(세종대 강사)는 '월드컵과 스포츠 그리고 불교'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월드컵의 이미지를 활용한 불교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포츠 스타마케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이번 월드컵에 불자인 박지성 선수가 가슴에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를 그린 옷을 입고 골을 넣는다면 전 세계 60억 명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학신씨는 '스포츠 시설 및 팀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일교의 일화축구단과 같은 프로팀을 불교계에서도 운영하면서 유명 스포츠스타를 육성해 대중 프로모션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면 수백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노출을 통해 불교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신씨는 경주마라톤대회나 골굴사 선무도 등 '스포츠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필요하며, 종단에서 테마파크나 리조트, 골프, 스키장, 연수 및 교육시설 등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신씨는 이러한 사업의 바탕으로 종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목했다.

이에 비해 김창섭씨(경희대 강사)는 '스포츠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했다.

김창섭씨는 먼저 조계종 산하에 스포츠 포교부(법인화) 운영을 제안했다. 가칭 '붓다 여가스포츠 연구원'을 설립해 불교계 스포츠 포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 ·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섭씨는 불교계 기관 및 사찰, 불교대학에서 종목별 스포츠 지도자를 배출해 스포츠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스포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섭씨는 또 △붓다스포츠 문화센터 건립 및 스포츠 동호인 클럽 육성 △연예인들로 구성된 불자스포츠부 결성 △일반학교 운동부와 자매결연을 통한 선수행 프로그램 운영도 스포츠 포교 방편으로 내놓았다.

김창섭씨는 특히 "태릉선수촌 선수 및 프로 스포츠 스타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불자 스포츠 스타를 위한 온 · 오프라인 모임 '붓다 서포터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연찬회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서울 법련사 주지 보경스님은 전문 스포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시스템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종단적인 대책으로 제언했다.

이 외에도 박경민 선무도 울산지원 지도법사, 매년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호산스님, 한명로 경주남산산길마라톤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은 선무도, 스노보드, 마라톤 대회 등을 통한 스포츠 포교 사례와 효과에 대해 설명한 뒤 스포츠 포교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 관통로 보상비로

환경연구소 설립한다

지난해 사용처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산관통도로 보상비가 수행환경과 사찰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연구소 설립기금으로 활용된다.

조계종 사회부와 남양주 봉선사, 의정부 회룡사, 불교환경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관계자들은 5월 15일 북한산관통도로 보상비로 불교사상과 이념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환경사회연구소(가칭)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설립기금으로는 보상비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억원은 북한산관통도로 반대운동 당시 회룡사가 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됐다.

이들은 환경사회연구소 설립을 위해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세영스님과 봉선사 종책실장 송묵 스님을 공동대표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이 위촉됐다. 회룡사측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회룡사는 제외됐다.

추진위원회는 환경사회연구소를 설립할 때까지 세부계획안과 정관 · 조직구성안 마련, 법인 설립 및 연구소 개소를 위한 제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한다.

올 8월께 사단법인으로 개소될 환경사회연구소는 불교환경사상을 현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해, 수행환경의 이론적 기준 마련, 사찰생태조사 등의 연구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5월 16일 관계자들의 안내로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중공업

법전 스님 거제 조선소 산업시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산업현장 시찰과 거제 포로수용소 방문 등 공식행사가 아닌 잇단 바깥나들이로 불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전 스님은 5월 16일에는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종정 스님이 민간기업의 산업현장을 시찰 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전 스님은 김징완 사장의 안내로 조선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선박 역사박물관과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본 후 "작업에 안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며 조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17일에도 법전 스님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등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수용됐던 거제 포로수용소를 방문, 위령탑을 참배했다. 법전 스님은 위령탑 앞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포로로 수용된 중에도 이념적 갈등에 휩싸여 희생됐던 수많은 영령들을 위로했다.

천미희 기자

관자재불교병원 부지서 후원자 위한 작은 음악회

관자재불교병원 건립을 앞두고 있는 청원 정토마을(원장 능행)이 그간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후원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다.

정토마을이 개최하는 '작은 음악회'는 6월 3일 오후 3시 관자재불교병원이 들어설 울산시 언양마을 부지에서 조촐하게 열릴 예정이다. 음악회와 사물놀이, 국악,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며 참가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 부지를 매입한 정토마을은 불교호스피스 요양시설인 관자재불교병원 건립공사를 올해 7월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043)298-2258

이은비 기자

"이찬수 교수 해직 시대착오적 발상"

"강남대 이찬수교수 해직 사태는 20세기초 선교사들이 학교 설립목적인 개화인과 기독교인 만들기라는 이중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식을 답습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5월 17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사립대학내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찬수교수 해직 문제가 구태의연한 '개화기 시대' 기독교계 사립학교 운영관행을 지속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교과과목을 강의한 이찬수 교수에게 기독교만을 강의하거나 기독교의 우월성만을 선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부정직하고 방법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다원성을 인정하지않는 종교적 자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설립한 대학이 기독교이념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장돼야 할 종교자유이지만,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만의 종교자유는 독선과 독단을 넘어서 타종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원주의는 단순히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천명제"라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평화 월드컵 기원 4대 종교 축구대회

이웃종교인과 함께 어우러져 2006 독일 월드컵 성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축구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은 5월 25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2006 월드컵 성공기원과 평화를 기원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부, 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원불교 중앙총부 사회부가 각 종교 대표로 참가하며, 문화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한다.

이날 대회는 25명으로 구성된 4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

"사찰 재산권 무시" 항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5월 18일 용화사가 "케이블카 공사가 수행권과 토지소유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통영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각사유에 대해 "케이블카 선로 일부가 지나가는 사찰소유 임야 일부가 사찰의 불교의식과 승려의 수행, 생활에 필요한 경내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케이블카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사찰 미관상 큰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통영시가 별다른 절차 없이 사찰 소유 임야를 점유해 공사를 하는 점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부는 판결 직후 "전통사찰보전법에 명시된 사찰 재산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마련 학술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이용권 국장 연구소장)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불교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불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고강호 부장이 발제한다.(02)723-5101~2

이은비 기자

"황우석 지지 변함 없다" 범불교연대

검찰이 5월 12일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를 지지해온 단체들은 명예회복과 연구재개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우석팀 연구재개를 위한 범불교연대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며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해 6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석지킴이불자모임도 5월 15일 국민홍보단 결성하고 진실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연대와 아이러브황우석 등도 집회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검찰 수사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10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존자의 열반 10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50(2006)년 6월 4일 (음 5.9)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본산 의령 봉황산 일붕사 (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서울총무원 : 전화 02)998-8161, 2 전송 02)998-8384
  2)의령일붕사 : 전화 055)572-7777
  3)문도회 : 전화 054)633-1138
  4)각교구종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홈페이지: http://ilbung.org

◎ 일붕 존자 열반 10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 증 명 : 붕해 대종사, 조혜륭대종사
■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정금봉(장로원장) 김명종(장로부의장), 유청송, 염원각, 송원경, 이송은, 박수암등 장로위원, 김동암(국제승가회장), 한화란(금강선원총재), 나황정, 황원광,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붕삼장대학원장), 홍학암
■ **지 도 위 원 장 : 김혜운(일붕사 주지)**
■ 지 도 위 원 : 이무성,김진궐, 김덕수, 송월성, 박혜강, 장삼준,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이무응
■ **봉 행 위 원 장 : 엄지공(총무원장)**
■ 봉행부위원장 : 김원각(교육원장),최혜천(총무원부원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 추진위원장 : 김화엄(중앙종회의장)
■ 추진부위원장 : 이정수(포교원장),박도안(종회사무처장) 최혜숙(수도사회장),권기태(일붕사 반야회장), 배맹자(일붕사 약사회장), 정금조(일붕사 지장회장)
■ 기획위원장 : 최용암(호계원장)
■ 집행위원장 : 정법성(감사원장)
■ 동원위원장 : 최해동(선거관리위원장)
■ 각교구동원위원장 : 대우(부산교구), 석담(대구교구), 유정(인천교구), 도안(대전교구), 도현(울산교구), 법해(경기남부), 도혜(경기북부), 보해(강원동부), 동청(강원서부), 정수(경남교구), 해동(경북교구), 혜성(전남교구), 영명(충남교구), 경운(제주교구) 서울교구, 충북교구(총무원직할)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영명(총무부장), 재무분과-유정(재무부장), 의전분과-지언(교무부장), 섭외분과-혜공(포교부장), 봉사분과-원덕(사회부장), 홍보분과-대호(홍보부장)/ 경호분과-지성(규정부장)

■ 주최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세계평화불교연맹호국법사단, 대한불교 일붕문도회 합장

새 장묘문화 선도 … 관련 법규 · 입지조건 잘 살펴야

수목장-불교계 준비 현황과 과제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수목장(樹木葬:화장 후 뼛가루를 나무 아래에 묻는 장묘법)'이 뜨고 있다. 영천 은해사는 작년 2월부터 5만 여평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이미 150여 그루의 추모수를 안치해 수목장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월정사, 백양사, 수덕사 등 전국 20여 사찰에서도 수목장림 조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 산림정책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남녀 59%는 수목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와 산림청도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수목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처럼 수목장이 웰빙형 장묘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매년 약 13만여기의 분묘 신설로 인한 국토면적 잠식방지는 물론 납골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수목장 준비현황과 과제를 살펴봤다.



한그루 나무가 되어 자연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에코-다잉(eco-dying) '수목장'. 최근 수목장은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로 각광받으며 분묘와 납골당 등의 설치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영천 은해사

종교계 수목장 설립 쉬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연장에는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고, 비석이나 상석 등 묘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인 · 가족단위 자연장의 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하고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만 하면 되나 100㎡ 이상의 자연장 구역을 설치 · 운영하려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1000㎡ 이상 대규모 자연장 구역을 설치 · 운영하려면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했으나 문중이나 종교법인, 공공특수법인에 대해선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연장 가운데 수목장림의 경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국 · 공유림을 활용, 30만㎡ 이상 대규모로 조성, 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이용료를 비싸게 받도록 해 지자체들이 화장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영업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이 유골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설립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장사 등에 관한 입법예고안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6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수목장시설 중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 발효 뒤 6개월 이내에 시정하면 된다.

20여 사찰 수목장 운영 검토

현재 수목장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대표적이다. 또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산 흥국사, 공주 갑사, 장성 백양사, 예산 수덕사, 화성 용주사, 밀양 표충사, 평창 월정사, 남양주 봉선사, 단양 정암사 등 20여 사찰에서 수목장 개장 ·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해사는 작년 2월부터 사찰 일대 부지 5만평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현재 150여 그루의 추모수를 안치해 수목장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은해사는 또 인근 부지에 10만평 규모의 수목장림 2곳을 추가로 건립해 내년 초에 개장할 예정이다.

은해사 수목장림의 장점은 인공림이 아닌 자연림을 그대로 추모수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할 만한 것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도들의 은해사 수목장림 이용 빈도가 30%대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목장의 활용은 종교 간 벽을 허물고 나아가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도 간단하다. 사전에 유골을 안치할 추모수를 미리 정해 놓고 장례 당일에 유골을 추모수에 안치하면 된다. 단 장례일에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사망증명서)은 필히 관계 수목장 운영소에 제출해야 한다.

유골이 안치될 추모수는 개인형(2백만원 상당), 부부형(300만원 상당), 가족형(4백만원 상당)으로 분류돼 있다. 추모수 관리비는 당해 수목장림 관리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은해사의 경우 1년에 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호화 납골당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을 대상으로 7년 전부터 수목장림을 개장해 온 단양 정암사(주지 우엽)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은해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정암사는 사찰 일대 300여평 규모의 수목장림에 현재 10여 그루의 추모수를 조성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 "수목장 개장 허용돼야"
자연재해 대비 산림보호장치 마련 필수
추모수 200만~1000만원, 상업화 우려도

우엽 스님은 "수목장 운동은 불교계가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찰 소유림을 적극 활용해 불교계가 묘지와 환경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해사 원주 윤광 스님도 "우리나라는 유골 존중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산골(散骨)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아직까지 매장문화가 익숙한게 현실이다"며 "앞으로 불교계가 제행무상, 제법무아에 뿌리를 둔 수목장에 대해 올바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수목장은 2004년 9월 고려대 김장수 명예교수의 수목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어 황인성 前 국무총리 등 2백여명의 각계인사들은 지난해 5월 모임을 갖고 '수목장은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묘지'라고 선언하고 자신들도 사망한 뒤 나무 밑에 묻히겠다는 '수목장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경기도, 경북도, 인천시, 광주시, 용인시 같은 지방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수목장림을 지정해 적극 권장중이다. 민간에서는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같은 단체가 생겨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산지보전협회,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수목장포럼 등은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수목장을 알리고 있다. 명지대 가정의례학과, 서울보건대 장례지도학과 등도 한국현실에 맞는 수목장법을 개발하고 있다. 자연장 운영사례로는 △온누리교회의 '온누리 가족나무동산' △인덕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 추모의 숲(산골공원)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살레시오의 집 등이 대표적이다.

과제는?

그렇다면 불교계가 '수목장'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수목장을 개장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자연재해(산불, 병충해 등)로부터 수목장림 보호 장치 마련 △장례상업주의 배격 △수목장과 맞물린 포교시스템 체계 개발 등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이 수목장을 조성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18조 1항과 제23조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관리팀 남태한 계장은 "사방이 바다로 싸여진 도서지역 외 자연환경지구에는 장사 등을 허용치 않고 국립공원 내 벌목이나 야생식물 등의 채취 나 훼손 시 공원관리 측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제18조 1항과 제23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국립공원내 사찰의 수목장 조성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계장은 장사 등에 관한 이번 입법예고가 특별법으로 제정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도 수목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불이나 홍수, 병충해 등으로 인한 추모수의 유실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수목장 전문업체 '수림장(사장 조효성)'의 권상우 실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목장 보험이나 유골 주변에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하는 방법 등도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자연장의 현장은 유족이나 지인들이 언제고 생각날 때 찾아가 추모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같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

특별한 날에만 찾아가는 묘지나 납골시설 개념이 되면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인근 사찰이나 공원 같은 곳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잔디밭이나 꽃밭을 선호하는 사람들, 강이나 바다에 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상업주의가 끼어들 소지를 차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벌써 수목장 나무 한 그루에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소식도 호화 납골당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수목장 주변에는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짓지 않고, 자연림 속에서 조용히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전용되어야 한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현재 일부 사찰과 단체에서 실험적으로 수목장을 도입하고 있으나 기준이 없어 상업성을 띨 우려도 있다"며 "기존의 장례법을 면밀히 검토해 과다한 장례비용도 줄이고 국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육임풍수(六壬風水) 전문가반 속강(速講) 안내

육임풍수를 강의합니다.
육임학(六壬學)은 인사신시(人事神示)로 일컬어지는 오행술의 제왕(帝王)입니다.
이미 이기풍수(理氣風水)나 현공풍수(玄空風水)를 이수한 지사(地師)와, 육임 · 사주 등 역학(易學)에 일가(一家)를 이룬 분들이면 음양현묘(陰陽玄妙)의 완성을 도와드릴 수 있겠고, 군더더기가 없는 기둥공부를 원하는 소신학도(所信學徒)라면 고등한 육임풍수의 진수를 **프로의 세계**로까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육임풍수는 감여가의 직행항로임을 뒤늦게나마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모든 판단내용은 묘지를 답사하지 않고도 사람이 와서 묻는 시간, 전화로 **묻는 그 시간으로 미리 알아** 말해주는 육임학 음택(陰宅)의 **정확한 법칙 항목**들입니다. 단기간에 통쾌한 풍수의 백미를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해 드릴 풍수항목 · 강의일정 · 수강료 ·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묘지 용맥 귀 · 천 여하　　2. 묘지 좌향 여하
3. 묘지 속 상태(수렴, 목렴, 화렴, 풍렴, 공묘, 뱀굴, 벌레서식 등) **여하**
4. 묘지 외형 미추(관리, 풍광, 고저) **· 견경**(묘지 앞에 있는 특정 광경) **여하**
5. 묘지 물형좌(장군좌, 봉황좌 등) **여하**
6. 매장혈 투시물(암석, 기와장, 잡석, 부토, 목근 등) **여하**
7. 묘지 망인 육친(누구) **여하**
8. 묘지 망인 사인(어떻게 죽었는가?) **여하**
9. 묘지 망인 남녀 여하
10. 후손 종사업(무슨 직업으로 진출해 있는가?)**과 1, 2, 3 대 흥망성쇠 여하**
11. 묘지 직계 후손 가정사 및 이 · 개장 필요 여부
12. 명당 찾는 방법
13. 매장 심천 · 상하 · 좌우 잘못알기
14. 산소탈 침범 여부
15. 산소탈 해소 비보효과 유 · 무 여부
16. 산소탈 비보 치리 방위
17. 산소탈 비보 치리 숫자
18. 산소탈 비보 치리 일자
19. 산소탈 비보 치리 재료

● 위 항목에 대한 답은 육임풍수에 해당 국수별로 적시되어 있어 누구나 즉시 활용할 수 있으나 완전한 요해를 위해 강의를 여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 강　　사 : 고복자 효사
- 강의일정 : 5월 2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9시까지 4시간씩 **4주 완성함**
- 강의장소 :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0-49 (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강북구청 옆 건물 4층 육임나라
- 수 강 료 : 100만원 (강의료 50만원 +육임풍수 정가 50만원 포함) 교재 육임풍수는 즉시적 활용서임(2006년 4월 간행) 육임풍수 기 구입자는 강의료 40만원만 입금받음.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예금주: 육임나라)
- 특　　전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정회원 자격 · 수료증 수여**
- 등록마감 : 5월 26일까지 입금하신 분에 한하여 수강 허용함.
- 문의전화 : **02)993-8680**

부산지역
- 강　　사 : 고복자 효사
- 강의일정 : 5월 28일(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5시~9시까지 4시간씩 **4주 완성**
- 강의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00-9 해운대 종합복지관 1층 연수실
- 수 강 료 : 100만원 (강의료 50만원 +육임풍수 정가 50만원 포함) 교재 육임풍수는 즉시적 활용서임(2006년 4월 간행) 육임풍수 기 구입자는 강의료 40만원만 입금 받음.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예금주: 육임나라)
- 특　　전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정회원 자격 · 수료증 수여**
- 등록마감 : 5월 26일까지 입금하신 분에 한하여 수강 허용함
- 문의전화 : **02)993-8680**



고복자 효사

강사소개
현 한국육임학회 총재
현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현 월간 역학춘추 발행인
현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육임학 초빙 교수
저서 : 〈육임래정비법〉 등 曉史集 제1~19집 145권책 간행, 각 권책 사계 주요 활인서로 활용되고 있음

www.taotemple.net



풍수 활용서(4×6배판 · 1910쪽 · 미색모조70p · 양장제본)
• 가격 : 500,000원

사랑 담긴 음식 드시고 쾌차하세요!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 국립마산병원서 음식 공양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 회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마산법원 결핵환자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있다.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음식이니 많이 드시고 어서 나아서 집에 가셔요!"

5월 14일 국립마산병원 별관이 시끌벅적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결핵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모여 치료를 받고 있는 별관 앞마당에서 잔치를 연 사람들은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회장 장일선) 봉사자들이다.

벌써 15년째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이곳을 찾고 있는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곳에서 생활하는 250명의 환자 모두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장일선 회장을 비롯한 추영자, 김화숙, 오수봉, 양수환씨 등 회원들은 늦은 밤까지 준비한 김밥, 돼지고기, 토마토, 음료수 등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며 쾌유를 비는 덕담을 잊지 않고 건넨다.

결핵 중증 환자들 250명에 음식 · 덕담 나누며 '동고동락' 15년째 무연고환자 가족 역할

특히 이날은 음식 외에도 국립마산병원 별관에서 생활하는 여자 환자들을 위해 일일이 개별 포장한 여성용 양말100켤레와 250개의 빵을 준비했다. 환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으로 소문이 자자한 빵은 빵집을 운영하는 윤성우 사장의 특별 후원품이다.

매년 빵을 보시하는 윤 사장은 병이 위중한 사람들이 어쩌면 생애 마지막으로 먹는 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당일 새벽에 구워내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크기는 점점 커지고 맛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날도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의 음식은 금방 동이 났다. 환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을 즐기며 음식을 나눠먹었다. 병을 잊은 채 환한 웃음을 되찾는 순간이 마냥 행복하다.

국립마산병원 천혜자 간호사와 국립마산병원 불자회 회장 이민자 회장은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연고가 없으신 분들의 가족이 돼 주시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도 주니 너무 고맙고 이분들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5년 세월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자매결연을 맺어왔던 환자들 중엔 끝내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결핵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때는 봉사를 하면서도 힘든 마음이 컸다.

그러나 아침부터 목욕 하고 기다리는 환자의 웃음을 대할 때, 목공예품을 만들어 선물로 건넬 때, 또 완쾌돼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볼 때는 그간의 고통을 말끔히 잊어버린다.

인도 결핵환자 살리기 운동과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도 함께 펼치고 있는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108명의 인도 결핵환자를 살려냈다. 인도 결핵환자 살리기 운동은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자매결연한 환자들에게 용돈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병실을 나오던 장일선 회장은 "별관 환자들에게만 음식 대접했더니 마음에 걸려서 다음달에는 본관으로 출동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월드컵 등 주제로 경연 동련, 연꽃문화제 개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동련이 주최하는 제22회 연꽃문화제가 14일 범어사 탑전에서 봉행됐다.

이번 연꽃 문화제에는 범어사, 여여선원, 금화사 어린이회를 비롯해 10여개 어린이회에서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월드컵, 스승, 미소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두 부분으로 나눠 경연대회를 치렀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기, 글짓기를 끝내고 탑전에 마련된 놀이마당에서 윷놀이, 줄넘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장기자랑에 참가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은아 기자

대불청 전진대회 개최

6월 10일 전국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전국 임원들이 부산에서 미리 뭉쳤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주최로 5월 13~14일 부산 기장에서 열린 전국임원전진대회에는 전국 14개 지구 중 12개 지구의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전국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전진대회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총재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추대했으며 지도법사로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 범어사 연수국장 혜수 스님,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 8명을 추대됐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봉사하며 배우니 더욱 실감 나"

부산 환희불교대학 제1기 카운슬링 과정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 간단한 듯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5월 17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 원통보전은 그 '이해와 소통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동안 호스피스 전문 교육으로 한층 전문화된 봉사자를 양성해온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제1기 카운슬링 과정을 개설하면서 호스피스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50여명이 이 과정에 등록했다.

5월 24일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수강열기는 3개월전 첫수업일과 똑같이 뜨겁다.



카운슬링 교육을 받고 있는 불자 봉사자들.

호스피스 전문교육 이수 봉사자 대상 수업 현장 경험 풍부, 고민 해결 창구 역할 톡톡

사찰에서 이렇게 전문 카운슬링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호스피스 전문 교육까지 이수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더욱 그렇다. 호스피스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카운슬링 과정에서는 박경일 동국대 교수, 권경희 상담심리전문가, 이영순 춘해대학 복지상담학과 학과장 등 전문 강사진에 의해 호스피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카운슬링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이해 및 상담교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 모두가 동인병원, 부산의료원 등에서 환자들과 부대끼며 봉사활동을 해온 봉사자들이다 보니 카운슬링 과정은 봉사자들의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초보 봉사자들은 낯선 환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서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봉사에 익숙해진 이들은 환자들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그냥 카운슬링 강의가 듣는 것 보다 봉사를 하면서 배우니까 실감이 더 나죠.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카운슬링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게 되니까 더 효과적이예요." (신미라 · 49)

"내 성향대로 환자를 대해온 것을 반성하게 돼요. 카운슬링을 배운 후로는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윤미섭 · 52)

환희불교복지대학 학장 지현 스님은 "누구나 바라는 행복, 부처님 법안에 다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는 방법론이 때론 필요하기에 행복을 가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상담교육을 확대해 호스피스 봉사자뿐 아니라 직장인, 결혼을 앞둔 이들, 학부모와 자녀 등이 함께 듣는 상담 과정 개설도 준비 중이다. 특히 봉사와 복지에 대한 개괄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희불교복지대학은 6월 7~8일 양일간 불교상담개발원 주최로 관음사 자인당에서 특강을 연다. 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실시되는 이 특강은 부산시내 불자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203-9436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선 · 교 함께 배우며 신심 다져요"

여여선원 선불교대학원 개설



선(禪)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신심과 수행의 체계를 갖춘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선불교대학원이 개강됐다.

부산 여여선원(주지 정여)은 간화선 대중화와 대승불교의 이해 및 체계적인 신도 교육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선교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5월 17일(사진) 제1기 선불교대학원 입학식을 가졌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운영되는 선불교대학원은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7층 선방에서 주간반은 매주 수요일에 야간반은 매주 화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

1년 과정으로 정여 스님의 육조단경 · 선실참 · 선문촬요, 원순 스님의 대승기신론, 상현 스님의 돈오입도요문론, 정암 스님의 유마경 · 선종사 등과 용맹정진 등을 통해 선사상의 정립과 선 수행 실참을 겸비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051)853-5486 천미희 기자

"나누는 세상이 곧 부처님 뜻 잇는 것"

부산경남 포교전진대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고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주관하는 부산 · 경남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전진 법회가 5월 14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사진).

이날 법회에서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라며 "독거락자, 자기안식자가 돼야 진정한 자비실천이 가능하고 부처님 법이 법답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나만 알고 나만 수행하는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자기수행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잇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포교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은아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봉축화보 | 불기 2550(2006)년 부처님 오신 날
성전 스님의 산사의 풍경소리 |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다
고산 스님의 지상법문 |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법회 "행복의 종자를 심어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2006 청정운동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보현 보살 10대 행원 해설 – "보현행원 실천하여 우리가 부처임을 깨닫자"
특집 | 마음 치료, 이제는 문화로 한다 – 문화예술과 대안치료
마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치료하는 이른바, 대안치료의 세계를 알아보았다. 문화 치유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마음 치료란 무엇인가
◦ 미술치료 – 미술은 마음의 표현이다
◦ 음악치료 – 한방음악치료의 활용
◦ 무용치료 – 춤과 명상을 응용한 몸 깨어나기
◦ 서구에서 심리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불교수행법
종범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선(禪)의 실질적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2)
자상중계 | 미얀마 파욱 사야도가 지도하는 부처님의 호흡관 수행법 (2)
열린불교, 열린경영 | 신개념의 도심 총림(叢林), 불교타운 건립하는 영남불교대학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지리산 칠백고지 고운동 이창석 씨 가족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Waking The Cobra」
문화기획 | 소설가 김종록이 쓰는 바이칼을 시원으로 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고판화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미국 백인불교의 양면성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사찰요리법으로 만드는 소풍 도시락
건강에세이 | 당신의 허리는 튼튼합니까?
2006년 여름(6월~8월) 주요 사찰 템플 스테이 일정표
억불시대 수행열전 | 금강산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린 서산 대사의 후예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혼침의 노예, 봄날 오후가 나른해지는 진짜 이유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 서울의 석비(石碑)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말 안 통해도 봉사는 즐거워”

대구 대성사 무료급식소에 미군 30여 명 ‘배식조’ 나서



주한 미군들이 대성사가 마련한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5월 12일, 대구 천태종 대성사(주지직무대행 보광)가 지역 어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여는 무료 급식소에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미8군 소속 미군 30여 명이 ‘배식조’로 등장한 것.

한국음식을 만들 줄 모르니 주방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고, 저마다 은색 쟁반 하나씩을 손에 들고 배식을 담당했다. 메뉴는 비빔밥과 콩나물국이다.

오전 11시, 어르신들이 몰려들자 미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급식소에 들어서자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짓과 발짓 눈치와 코치로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식탁에 부지런히 수저를 놓았다. 배식 창구 앞에선 고추장이 튀는 줄도 모르고 비빔밥 위에 고추장을 한 스푼씩 떠 놓기 바쁘다. 큰 키에 파란 눈 노란 머리의 미군들이 둥그런 쟁반에 비빔밥과 콩나물국을 잔뜩 얹어 나르는 모습이 어설프고 어색하지만 한국인에게 다가서려는 미소만큼은 밝고 정겹다.

이들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 다소 의아한 모습으로 들어선 어르신들이 이내 웃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희한한 일은 역시 희한한 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양을 하면서도 두리번두리번 코 큰 미군들 구경에 바빴다.

월 1회 봉사 통해 ‘어른공경’ 배워

사찰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추가 계획

하유복(84) 할아버지는 “미군들의 활동이 고맙고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수고한다. 다음주에도 오길 바란다”며 미군들에게 말을 걸어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유복 할아버지는 영어교사 출신.

미8군 19지원사령부 참모장 리차드 헤치(Richard. Hatch)의 부인 빅토리아 헤치(Victoria Hatch)는 “우리는 나이 드신 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어른들을 위한 봉사는 꼭 필요한 일이며, 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번에는 취재를 했지만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했다는 미8군 기자는 “이런 훌륭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불자들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곳에서 많은 보통의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어린 딸과 함께 나온 가족도 있다. 한국인 부인 김은실씨와 11세 딸 은비양과 함께 온 트래비스 스미스(Travis smith)다. 부모님과 함께 온 은비양도 제몫을 다하느라 분주했고, 13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는 김은실씨는 공양간에서 콩나물국을 퍼 담으며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재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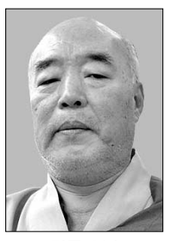
대성사 주지권한대행 보광 스님은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라도 절에 온다면 자연스럽게 불법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군들의 동참을 권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들이 불교를 더 알고갈 수 있도록 발우공양체험 등 불교문화체험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8군 19지원사령부 노원현 민사처장은 “미군들의 대성사 무료급식봉사활동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금요일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미군들의 호응이 좋아 이젠 참여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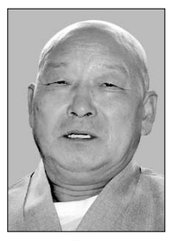
배지선 기자

대구 경북 종무원 ‘분구’

경묵 · 법운 스님, 각각 종무원장에 선출



경묵 스님



법운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이 최근 대구와 경북종무원장을 각각 선출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종무원의 분구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분구작업은 대구경북지역이 넓고 회원사찰이 190여개가 넘어 원활한 종무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몇 해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안으로 제13대 대구경북종무원장의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각 지역 대표스님 10명으로 구성된 대구와 경북종무원분구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 대구와 경북종무원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종무원은 5월 16일 대구교구주지교임연석회의에서 대구 견불사 주지 경묵 스님을 신임 대구종무원장으로, 산격동 범성사 정해 스님을 부원장으로 선출했고, 경북종무원은 4월 20일 前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을 종무원장으로 안동 유일사 민덕 스님을 부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배지선 기자

보육시설 어린이들 신라불교문화 체험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뜻있는 행사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에서 펼쳐졌다.

서울, 여수, 김천, 경주의 보육시설 어린이 및 교사 70여명과 신한은행 자원봉사 동아리회원들은 경주남산 · 불국사 등에서 신라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 ‘친구야! 만나자! 서라벌에서…’를 함께 했다

배지선 기자

문경 봉암사 선방 낙성식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경북 문경 봉암사는 연면적 170여 평 규모의 선방을 새롭게 건립하고 5월 12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봉암사 선원장 정광, 주지 함현 스님과 이철우 경북 정무부지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암사 선방은 2층 팔작지붕 형태로 건립됐다.

배지선 기자

발우보시가 불법선거운동?

문경불교계 경찰 수사에 반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문경지역 경찰이 사찰에 대한 수사를 벌인데 대해 문경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경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탄공 스님과 회원사찰의 주지스님, 문경불교대학생 등은 5월 18일 문경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발우 등 신성한 공양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탄공 스님은 “오래 전부터 와(瓦)발우보시를 했는데 누군가 발우보시를 ‘부정행위 ’로 고발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김현조

대구경북포교사단 직장직능팀장

대구경북포교사단의 포교사 250여 명 중 경북 북부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는 20여명 남짓이다. 모두 직장직능 팀에 소속돼 있는데, 대부분의 포교사가 대구에서 활동하다보니 포교사의 배출도 드물고 조직적인 활동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대구경북포교사단 직장직능팀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경북 북부지역 포교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기 포교사 고시에서는 무려 10명의 구미지역 불자가 합격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또 지난 3월에는 최우수 포교팀으로 선정되어 포교원장상까지 수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주범’은 4년 전 팀을 맡아 변화를 이끈 직장직능팀장 김현조(48 · 해인심)포교사다.

공부방 운영 등 효과…최우수 포교팀 선정

“바르게 살고 법 전하는 것 포교사가 할 일”

“4년 전만 해도 포교사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포교사들의 활동도 전무했지요.”

막막했던 시절 팀장을 맡은 김현조 포교사는 ‘어떤 포교활동보다 시급한 것이 불법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불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교의 대안을 ‘불교공부방’에서 찾았다. 구미지역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몰라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김 포교사가 구미불교대학에 불교공부방을 열고 스님을 초빙해 기초 경전강의 3개월 과정을 시작하자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김 포교사는 “포교사가 되어 함께 배우고 활동하고 싶다는 불자가 늘고, 후배포교사를 만들기 위한 선배포교사들의 3개월 특별과외의 노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빙긋 웃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생글생글 미소가 돋보이는 김현조 포교사는 어린시절 할머니를 따라 해운사에 다니곤 했지만 미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면서 정신적 주체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를 떠올리며 불교의 가치를 찾아 나섰고, 조계사에서 처음 실시하는 포교사교육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포교사에겐 포교사교육에 앞서 참가했던 해인사수련회가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 합판을 깔고 자야만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열린 수련회였지만 오히려 삶에 대한 더 강한 물음을 던질 수 있었고, 절제와 인내 속에 성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인사수련회에서 계정혜 삼학을 닦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는 김 포교사는 이후 2년간 서울 조계사에서 매주토요일마다 이어진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바르게 보고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웠다.

해인사수련동문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포교사단 직장직능팀장을 맡으며 구미지역 포교활동에 눈을 돌리게 된 김 포교사는 “그냥 배운 대로 살아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김 포교사는 “불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은 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포교사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나가 전하라고 전법을 선언했듯이 법을 전하는 것, 그것이 포교사의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제 구미지역 포교사는 30명에 달한다. 4년 전 불교공부방에는 30여명의 불자가 모였지만 이젠 100명이 넘는 불자가 찾고 있다.

김현조 포교사는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한다. 지금까지 경전공부만 계속해왔으니 마음을 살피자는 뜻에서 명상요가를 시작했고, 경북포교사단 창립이라는 새로운 꿈도 꿔본다. 대구 경북이 다른데 대구경북포교사단으로 묶여 있다보니 경북지역 포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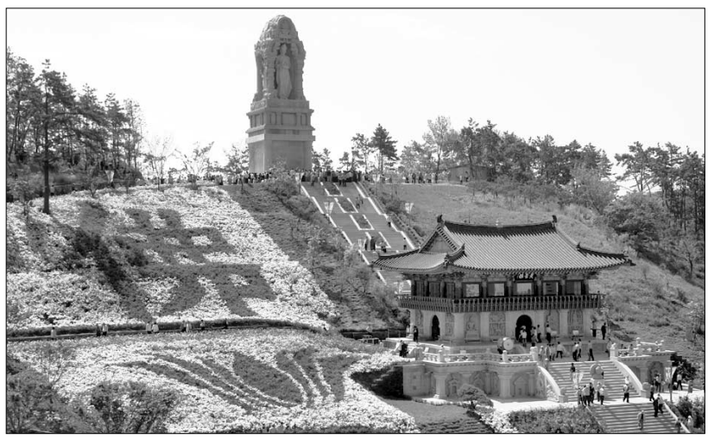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법성포 성역화 마무리

80척 높이 사면불 · 부용루 · 탑원 등 조성
1600년 전 마라난타 존자 불교전래 모습 재현



불갑사와 영광군이 7년에 걸쳐 총 197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성지'에는 사면불, 부용루, 간다라유물관 등이 조성돼 있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 영광 법성포가 새로운 불교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불갑사와 영광군은 지난 13일 법성포 좌우두 일원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준공 및 불교전래 재현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대흥사 조실 천운, 법주사 회주 혜정, 백양사 주지 두백,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등 원로대덕과 박준영 전남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김봉열 영광군수, 아사프가프어 파키스탄 상무관 등 정관계인사, 불자, 관광객 등 1만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서해바다는 법음을 토해내는데, 빛나는 땅 영광 법성포에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정토가를 구가한다"며 "부처님의 혜안과 마라난타 성사의 천추(千秋)를 꿰뚫은 철안(鐵眼)이 지금도 밝게 빛나고 있으니 여기 모인 대중들이여 보고있는가. 밝고 또 밝도다"고 설했다.

이에앞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사업회장 천운 스님은 기념사에서 "이곳은 성인이 불법을 들여온 성스러운 포구라는 뜻에서 법성포이다"며 "불연의 땅 법성포 성역화 사업으로 불법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조계종정 법전 스님은 김봉열 영광군수에게 감사장과 기념패를 수여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조성 사업을 치하했다. 또한 영천 충효사 주지 해공 스님도 영광군에 청소년 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준공식에 이어 열린 불교전래 재현식은 1600여년전 마라난타존자가 이땅에 최초로 불교를 전래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김봉열 영광군수와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백제인으로 분해 마라난타존자 일행이 탄 배를 맞이하고 불상과 경전을 모셔 사면불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재현했다.

법성면 좌우두에 조성된 백제불교최초도래성지는 불갑사와 영광군이 2000년부터 총 1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면불, 부용루, 간다라유물관, 탑원,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7년만에 준공됐다.

특히 좌우두 정상에 조성된 사면불은 80척 높이에 아미타불, 관음, 세지보살과 마라난타존자를 배치한 간다라 양식의 사면대불이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는 정신적, 문화적 귀의처로 불국정토를 실현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것이다"며 "만불전, 원불봉안 불사 등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61)352-8097

글 · 사진/법성포=이준엽 기자

"염불하며 5·18 시신 염하더니…"

前 대불련 전남 지부장 김동수 열사 추모 26주년

"부처님 따라서 했나봅니다. 죽는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려운 일만 도맡았다네요."

5 · 18민주항쟁 26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8일 광주국립 5 · 18묘역을 찾은 고 김동수 열사의 부친 김영석(74)씨는 "불자들이 아들의 뜻을 잊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5 · 18민주항쟁당시 한국대학생불교학생회 전남지부장이었던 지광 김동수 열사는 그해 5월 27일 새벽 4시30분경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했다.

평소 "보살의 삶은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할 줄 알아야한다"며 궂은일을 마다않고 앞장섰던 김 열사는 시민군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남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시신 안치, 보관 등의 일을 하면서 손수 입관하고 염을 했다. 김 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은 염주, 대불련 뱃지와 동전 몇 개뿐이었다.

몇 년 지나자 김 열사의 뜻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절에 모셔졌던 위패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훗날 지선 스님 주선으로 김 열사의 위패는 광주 문빈정사에 모셔졌고 남은 가족들도 김 열사가 생각날때면 절을 찾곤한다.

해마다 5 · 18이면 김 열사 묘역을 찾는 친구 이 남(전 조선대 대불련회장)씨는 "김 열사가 보여준 행은 불교계가 되살려야할 보살도이다"며 "불교계에서 김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작업이 펼쳐져 뜻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열사추모사업회(회장 이순규)와 조선대는 오는 5월 27일 조선대 김동수열사 추모비앞에서 추모재를 갖는다.

이준엽 기자



5 · 18 영가 극락왕생 기원 천도재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 · 18 묘역에서 '5 · 18 민주항쟁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거행했다.

5 · 18 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천도재에는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금명, 광산구 불교협의회장 성오, 동구 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 등 지역사암 스님 50여명과 5 · 18희생자 가족, 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천도재에서 전통불교영산보존회(회장 혜령) 스님 30여명은 신중작법-거불-천수바라-다게작법-기성가지-축원-영반 등 불교전통의식으로 5 · 18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영 · 호남 공무원 70명 화엄사 초청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5 · 31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11~12일 양일간 영호남 공무원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산사체험을 통해 지역화합과 공명선거를 다짐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 공무원 45명과 부산시 수영구 공무원 25명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주지 종삼 스님은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영호남 공무원들이 한마음되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운불련 도움으로 장애인 나들이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향 스님)은 5월 17일 관내 3급이상 장애인과 가족 40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장애인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광주 운전불자회 소속 개인택시 20여대의 자원봉사로 진행된 이날 나들이는 보성 녹차밭-서재필 기념관 탐방으로 진행됐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세계순례 한국전' 결산

사리신앙 참뜻 일깨워

1만여명 참배 · 성철 스님 법골 기증
'장엄하다' 입소문 타고 관객 늘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린 '미륵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 순례전시회'에는 1만여 명의 참배객들이 다녀갔다. 대원사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교통 불편과 홍보 부족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부처님을 비롯한 불교 성인들의 사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불자들의 기대감 때문이다.

불자 참배객들의 대부분은 사리를 친견하면서 불심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는 '사리 전시회 마니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리전시회는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우선 이번 사리 전시회가 갖는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리전시회의 책임자인 티베트의 게쉬 세랍 스님을 포함한 전시회 관계자들도 5월 16일 가진 자체 평가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정작 전시회가 세계불교의 중심지를 건립한다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참배객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리가 갖는 '보이지 않는 상징적 의미'가 제대로 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즉, 사리 자체가 아닌 사리에 담긴 성인들의 정신과 가르침을 배우는 사리신앙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회 주최 측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본부는 2008년에 다시 한국전을 개최하고, 이때에는 사리신앙이 갖는 의미를 다양한 강연과 전시설명회 등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처님과 가섭 · 사리불 · 목련 · 아난다 등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 예세 쵸겔 등 티베트 불교 성인들의 사리 1000여과가 전시됐다.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불교성인들의 사리가 한꺼번에 전시된 적은 없었다.

둘째로는 성철 스님의 법골(法骨)이 이번 전시회에 기증됐다는 점이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승인 성철 스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참배객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이번 전시회에 일반 참배객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리신앙이 여전히 불자들의 신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많은 참배객들을 끌어들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interview 전시회 책임자 게쉬 세랍 스님

"'마이트레야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한국 사리전시회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 한국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국 전시회의 총책임자인 티베트 게쉬 세랍(사진) 스님은 한국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쉐랍 스님은 또 "전시회에 기증된 성철 스님의 법골은 세계불교도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2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5월 31일 10:00~18:00 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수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연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붓으로 불보살 세계 시현한 전통불화 '중흥조'



단청장 만봉 스님 입적

6세 때 입문…18세에 '금어' 돼

▲행장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님은 6세 때부터 김예운 스님 아래서 불화를 배운 뒤 26년 봉원사로 출가해 금어(金魚) 자격을 따냈다. 금어란 불화 그리기의 최고 경지에 이른 스님에게 주는 칭호다.

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스님은 같은해 태고종 서울 종교원장에 이어 75년에는 태고종 봉원사 주지를 역임하기도 했다.

만봉 스님의 첫 전시는 1978년 제12회 세계불교도 우의회 동경총회장에서 기념전 형태로 열렸다.

또한 같은해 명동유네스코 회관에서는 일본 전시 귀국작품전을 개최했다. 이후 81년 전통공예관(경복궁) 특별기획전에 이어 91년 일본 순회전, 97년 대구지역 순회전, 99년 부산지역 순회전, 2000년 분당전, 2002년 서울 관훈동 백악예원전, 2005년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기회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만봉 스님은 국내외에서 한국 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그 공로로 1988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만봉 이치호 단청전 작품집>이 있다.



1999년 성북동 태고사 명부전 시왕상에 점안을 하고 있는 만봉 스님. 사진제공=석선암 스님



▲빈소 모습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 마련된 만봉 스님의 빈소에 첫 조문객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조문하고 있다.

운산 총무원장 첫 조문

5월 17일 새벽 0시10분 입적한 만봉 스님의 빈소가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 마련됐다. 첫 조문객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인공 스님,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 등 종단 부장급 이상 스님들을 시작으로 조문객이 이어졌다.

운산 총무원장 스님은 "만봉 큰 스님은 종단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단청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어른"이라며 "만봉 스님이 태고종단내 끼치신 영향력을 고려해 삼원장급 이상을 지낸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종단장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유 청장은 "만봉 스님을 생전에 뵌적은 없었지만 인간문화재로서 한국불교미술 발전에 크나큰 공적을 남기신 분이라는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을 비롯해 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의 수장들과 정 · 재계, 학자 도올 김용옥씨 등이 잇달아 빈소를 찾았다.

▲단청장과 불화장 분리

만봉 스님은 1972년에 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이었다. 단청장은 목조건물에 채색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장인을 말한다. 현재 단청장으로는 만봉 스님의 입적에 따라 홍점석씨가 있다.

원래는 불화가 석정 스님도 단청장 이었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4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로 별도로 지정함에 따라 단청장과 불화장이 분리됐다.

그동안 단청장(丹靑匠, 1972년 지정)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온 불화제작 기능을 단일종목으로 분리, 불화장(佛畵匠)으로 지정한 것이다. 김주일기자

생동감 넘치는 섬세한 묘사 압권

▲삶과 작품세계

내리 두시간 쉼없이 몰입
최근까지도 손떨림없이 작업
남북한 수많은 사찰에 단청

만봉 스님은 6세 때 불가에 들어가 김예운 스님에게서 불교 미술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입적에 드는 순간까지 90여년 동안 한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영원한 '현역'이었다. 특히 지난 4월말에는 서울 신촌 봉원사 대웅전과 삼천불전의 단청과 개금불사를 완성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만봉 스님의 평생의 화두였던 불화 그리기는 9,000여장의 혹독한 그림 수업을 거쳐 18세 때 일궈낸 '금어' 칭호를 받으면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만봉 스님은 금어가 된 이후 화구를 꾸려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등 명산대찰을 누비면서 단청불사에 매진했다. 수많은 만봉 스님의 단청과 불화에 섬세함과 생동감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은 스님의 작업 과정에 있었다고 불교미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스님은 단청 가칠, 골채, 바름질 등 10여개 이상의 단청 과정 하나 하나를 거칠때마다 강한 집중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스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단청과 불화는 여러 과정을 이론과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씩 손끝으로 익혀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만봉 스님은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온종일 탱화작업에 몰두한 이 시대 불교미술의 장인이요 거장이었다. 최근까지도 탱화 작업을 할때면 손 떨림 하나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숨을 고르면서 보여주는 스님의 붓놀림이 섬세하면서도 예사롭지 않았다고 제자들은 회고한다.

스님은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내리 두 시간은 '초인적'으로 몰두 했다. 간혹 제자들의 질문이 날아들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몸소 시연까지 보여주며 직접 지도 해줬다. 꼼꼼하게 제자들의 미진한 점들을 지적하는 스님은 자못 엄했다.

입적에 들때까지 스님을 곁에서 시봉한 인섭 스님은 "만봉 스님은, 부처님 그리는 일은 여러 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천 장씩 그려야 된다"며 "수행이라 생각하고 매진할 것을 항상 강조했다"고 회고한다.

이런 수행 원력과 열정으로 가득한 스님의 붓끝을 거쳐 이 시방세계에 탄생된 불보살은 수없이 많다. 70여년동안 남북한 사찰에 두루 걸쳐 '전설'처럼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북한 금강산의 표훈사와 유점사, 장안사, 마연사의 단청을 도맡았고, 서울 도선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등 주요 사찰과 경복궁 경회루를 비롯해 종로 보신각 · 숭례문(남대문) · 남한산성 등 문화재 단청도 그렸다.

임영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은 "평생을 전통불화와 탱화제작에 온 힘을 기울이신 만봉 스님의 작품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화려함과 섬세함, 역동감 등의 기교적 차원을 뛰어넘어 붓끝에서 솟아난 강한 필력이 느껴져 전율을 느낀다"며 "그래서 스님의 불화속에 팔만사천법문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극찬했다.



만봉 스님이 4월 21일 자신이 시주해 개금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감상하고 있다. 왼쪽은 영산재기능보유자 구해 스님.



만봉 스님(사진 왼쪽)이 31세때인 1941년 금강산 유점사 단청 작업을 마친 뒤 금강산 계곡에서 도반스님과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자상하고 공심 많았던 어른"

작업 들어가면 눈빛 달라지고
작은 실수도 엄격히 꾸짖어

▲주변에서 본 스님은…

만봉 스님을 오래전부터 시봉해온 태고종단의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봉 스님은 자상했고, 무슨일이든 공심으로 임했다고 입을 모은다.

40년 이상을 곁에서 모셔온 前 봉원사 주지 인공 스님(태고종 종회의장)은 "만봉 스님은 자신이 사사한 단청 기법을 언제나 대중과 불사를 위해 쓰신 공심이 많은 분이셨다"며 "봉원사 재정상태가 안좋아 대웅전과 삼천불전을 짓고도 단청 불사를 하지 못해 전전긍긍할때 만봉 스님께서는 당신의 개인돈 1억원을 들여 불사를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만봉 스님을 입적하기전 마지막으로 친견한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은 "지난달에 만봉 스님의 후원으로 삼천불전 개금불사를 마쳐 5월 16일 오후 만봉 스님께 결산 보고를 드리러 갔었다"며 "스님께서는 알아서 잘했을텐데 번거롭게 뭐하러 왔느냐며 불화를 그리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자인 김미혜 단청장 이수자는 "만봉 스님은 평소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자상하고 따듯한 할아버지 같지만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지고 작은 실수에도 엄하게 꾸짖곤 하셨다"며 "작업할 때에는 항상 곰처럼 우직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제자들 누가 있나?

예운 스님으로부터 단청을 사사한 만봉 스님이 그동안 배출한 제자는 수백 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1986년 전승공예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87년 단청장 보유자 후보(1995년 이후 전수교육조교로 통일)로 지정된 박정자씨를 비롯해 전수교육조교 인섭 스님 · 양선희씨, 전수교육조교이면서 제자들의 모임 벽연회를 끌고 있는 홍창원(벽연회 이사장)씨 등이 있다.

그 밑으로 이수자는 12명이 있는데 김창순, 이정아, 이세환, 김영범, 배정숙, 김정순, 원미희, 최문정, 박애숙, 권선아, 나혜안, 김미혜 씨 등이다. 이수자 아래에는 전수장학생 이형기, 박귀영, 양정민씨 등 3명이 있다.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5. 26 (금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사 새벽예불 동참자 위한

'도(道)로 가는 버스' 동승기

새벽 외출? 이유가 있지~



30년이 넘게 조계사를 다니고 있는 김기일거사는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00일간의 새벽기도를 통해 스스로 변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다.

출퇴근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수도권에서 새벽예불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지 않다. 새벽 4시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찰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마음 편하게 새벽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道)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주지 원담)는 올해 하안거를 맞아 5월 12일부터 100일간 진행하는 '원담 스님과 함께 하는 새벽기도' 동참자들을 위한 버스를 배치 운행하고 있다. '원담 스님과… 기도'는 제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구도 열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버스노선은 의정부 · 상계, 구리 · 중랑, 분당 · 잠실, 송파 · 강남(2), 관악 · 남대문, 철산 · 마포, 부천 · 강서, 양천 · 신촌, 일산 · 구파발, 서대문, 평촌 · 안양 등 12곳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한 신도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새벽예불, 마음만 굴뚝같았는데…"

5월 18일 새벽 3시. 부천과 서울 강서 지역 신도들을 태우러 온 버스가 부천시 소사역에 도착했다. 잠시 후 김기일(80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거사가 첫 번째 승객으로 버스에 오른다. 30여년 전부터 조계사에 다니고 있는 '묵은' 신도지만 올 봄 조계사 불교대학에 등록한 늦깎이 '학생'이다. 김거사는 "사찰이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100일 동안 새벽예불을 올리면 나에게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 믿는다"며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신정네거리에서 버스에 탄 박복경(36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씨는 새벽예불이 처음이다. 평소 기도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4시 30분까지 조계사에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망설여왔다. 박씨는 "지하철로 가더라도 조계사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도로 가는 버스' 덕분에 마음만 굴뚝같았던 사람들이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화곡역에서 두 딸 최현주 · 수경씨를 데리고 버스에 오른 박천대자(64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씨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불을 올리면 둘째와 셋째 딸이 조만간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신도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새 버스 안에는 20여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도 자연스럽다.

새벽 3시 25분 부천을 출발한 버스는 어느새 역곡역, 신정네거리역, 화곡역, 강서구청, 마포고등학교, 마포구청 등을 거쳐 4시 20분에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했다.

"100일 기도 후에도 계속 운행해 주세요"

일주문 앞에서는 조계사 교무국장 석연 스님과 재무국장 원경 스님이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다. 석연 스님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이 이런 신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많이 인색했다"며 "신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안양 · 부천 등 12곳 100일간 운행
새벽 4시 30분 법당도착, 예불 · 기도 후 6시 귀가
"매일 버스 타며 밝은 삶 · 행복한 가정 발원"

4시 30분부터는 대웅전에서 본격적인 새벽예불이 계속됐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150여명은 경건한 모습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절을 한다.

예불에 이어 <천수경>을 봉독하고 축원기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경, 석가모니불 정근을 계속하니 시간은 어느 덧 6시가 다 됐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조계사가 이번 100일 기도를 위해 한글로 풀어 독경집으로 엮은 것이어서 신도들은 어렵지 않게 독경에 동참한다.

100일 기도 중의 7일째였던 이날 기도는 이렇게 끝났다. 예불에 참석한 불자들의 일부는 자리를 계속 지키며 경전을 보거나 절을 했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정리한 진정희(51 · 서울시 양천구 목2동)씨는 "남편 출근과 아이들 등교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100일 기도 이후에도 신도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예불 후 신도들을 배웅하던 원담 스님은 "신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조계사의 이번 버스 운행이 다른 도심사찰들에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하루를 참불자의 마음으로 열어 주는 새벽예불. 불자들은 이렇게 하루하루의 새벽예불을 통해 신심 향상의 빛을 보고 있었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도권에서 온 신도들이 대웅전에서 스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새벽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사찰도 생존성시대

상 자립경제 실천하는 선두주자들
하 사찰 자립경제 이렇게

'우리절표 아이템' 만이 살 길

사찰도 자립경제를 실현해야 살아남는다는 말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줏돈만으로 사찰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고, 상당수 사찰이 신도와 불전수입 감소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조계종 초대 종정 만암 스님은 "받아먹기만 하는 불교는 망하고, 나누어 줄줄 아는 불교라야 산다."면서, 평소 '시주로 사는 불교'에서 '생산하는 불교'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폈다. 몸소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반농반선을 실천해 사찰수입을 20배 이상 늘리기까지 했다.

이제 사찰의 자립경제 실현은 시대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분위기가 한층 성숙했다. '생산불교'로의 과감한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 이미지 고려 점진적 추진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투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찰이 사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찰의 사업 진출은 단순히 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곧 불교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 신도들에게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보다 깊이 인지시킴으로써 불교계내 정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종교단체가 이윤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신도들은 사찰의 자립경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소비자이면서 홍보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공주 영평사의 경우, 주변에서 사찰이 사업을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때 고전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이바지, 원칙에 입각한 운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나아가 이윤으로 지역내 복지활동에 적극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 미개척 시장을 개척하라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템 선정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광범위한 유통망과 시장성을 갖춘 기업들과의 경쟁은 오히려 투자위험을 높일 뿐이다.

따라서 사찰의 투자 역시 '블루오션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아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개척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방대한 토지와 임야 등 사찰의 풍부한 자원과 특성을 살린 '우리절만의 아이템'을 개발한 후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만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불교의 상징인 연(蓮)을 이용한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정한 강화 선원사의 사례는 좋은 예다. 선원사는 시중에 많이 보급돼 있는 연차 대신 연칼국수, 연냉면, 연근가루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고, 선원사가 보유하고 있던 논에 연지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 과도한 투자는 금물 '능력껏'

아이템을 선정했다면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해도 생략해서는 안될 과정이다. 섣부르게 자립경제를 시도한다면 실패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좋은 아이템과 좋은 상품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갖춰야할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삽화=이동수

양질의 상품 저렴한 가격 등 전략 수립 필요
풍부한 자원과 사찰 특성 잘 결합해야 성공

과도한 투자는 금물이다. 투자는 능력껏 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견디기 힘들 정도의 빚을 내어 투자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할 선결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투자는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사업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을 곧바로 회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찰의 자립경제를 위해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역민 결합, 초심 지켜라

사찰이 자립경제를 꾀할 때에는 지역민과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생산불교'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초심'과 '원칙'은 자립경제를 꾀할 때 가장 유의해야할 키워드다. '초심'과 '원칙'이 사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으면 사업가에 불과하고,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부도덕한 사업으로 전락한다"며 "사찰의 스님들과 신자들이 함께 '초심'과 '원칙'을 세우며 자립경제를 시도한다면 '생산불교'의 길은 한걸음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백련정차



가격: 중량100g 35,000원
50g 18,000원

20여년간 여러 가지 식물 표면의 구조를 연구한 독일 본(born)대학의 식물학자 빌헬름 바스로트 박사는 식물 가운데 백련잎이 가장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 가운데 가장 향이 좋은 백련은 자체에 정화기능을 갖추어 차로 만들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제조특허 제0419503호로 등록된 백련정차는 백련잎과 뿌리, 열매, 과방으로 만들어 차이기 이전에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다의 경제학 (8)

욕망을 먹고 사는 '아귀'

매년 선거철이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야기. 모두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신기하게도 이 슬로건에는 그 누구도 시비 걸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자는 말은 누구에게나 절박하고 구미가 당기는 말이기 때문이리라.

어김없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이 말은 대다수 후보자들의 슬로건이다.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경제가 지금은 죽어있나 보다. 그러니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돌이켜보건대 우리 근현대사에 경제가 살아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더 넓게는 인류 역사상 경제가 살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가. 만약에 그런 호시절이 있었다면 경제가 살아 있었을 때 우리는 행복했었던가.

욕망은 무한하기에 경제 관점과 맞지 않아
집착하지 않는 소유로 중도의 삶 살아야
현 사회 다른 사람보다 잘 살면 행복 느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와 행복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뚜렷한 답을 얻기보다는 수많은 의문부호가 따라 붙을 것이다.

혹시 경제라는 말에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 그것은 신기루, 또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어서 멀리서 바라볼 수 있기만 할 뿐 다가서서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그런 것,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혹시 그것은 돌아보았을 때만 비로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고향집의 아련한 추억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 옛날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으로도 하루 종일 뛰놀았던 그 어린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듯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버는 돈이 더 많아져 보다 윤택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닐까. 번 돈으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좀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좀 더 비싼 옷을 입고…. 그런 것 아닐까. 여기서 '좀 더'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일 때 이제는 충분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 때, 더 비싼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더 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행복해진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때 행복을 느낀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무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어쩌다 느낀 행복감은 잠시 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완전무결한 행복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는 없다.

그런데도 세속의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을지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다. 욕망을 먹고 사는 아귀의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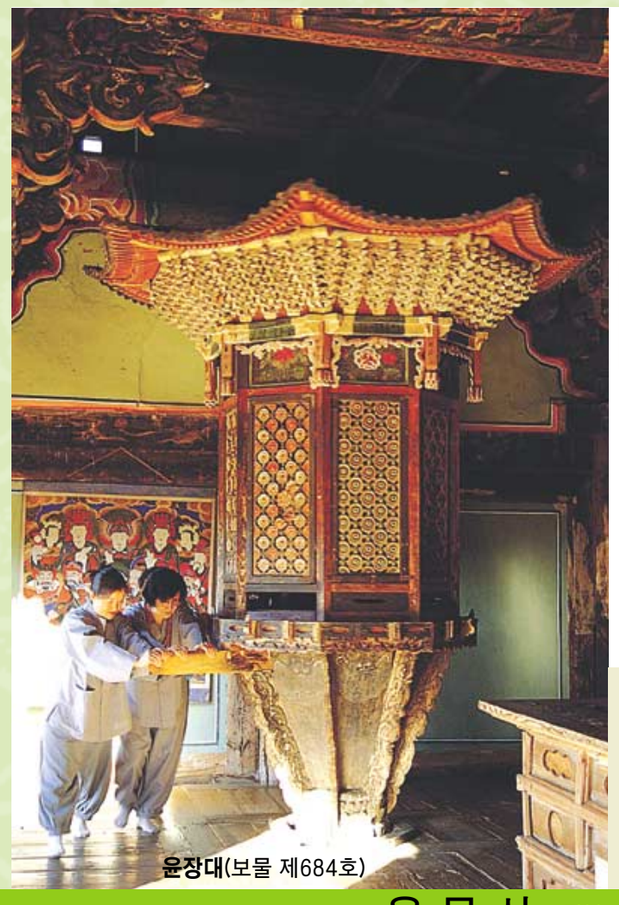
그러나 세속의 경제학은 붓다의 경제학을 만나면 초라해지고 만다. 부처님은 무한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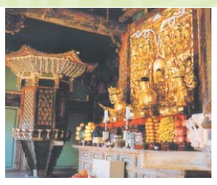
붓다의 경제학은 집착하지 않는 소유와 최소한의 소비를 가르친다. 중도의 생활로 행복해짐을 깨닫게 한다. 나와 우리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밝힌다.

우리의 정치가들이 배운 경제학은 세속의 경제학일까, 붓다의 경제학일까. 그들이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일까.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구병진(경영학 박사)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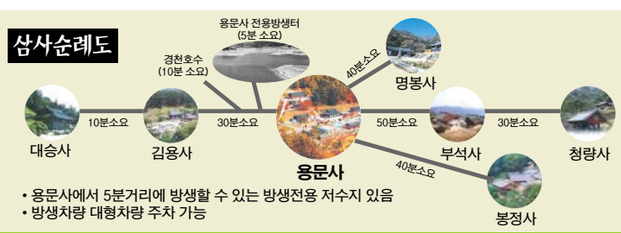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실전구성학
단기 속성 완성
● 운명 운세 방위학(개운 비법)
● 특별한 암기법
● 알기쉽게 풀이한 명강의
● 3인 아상이면 지방 출장 가능
백도현 구성학
011-9735-1742(서울)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 허리, 목, 어깨, 짝다리, 탈골(원인불명통증), 체형교정
사주, 작명, 풍수지리 출장가능
빙의(신들림), 활법, 기공최면, 전생, 급방 천도 전문 상담사
02)835-2399
011-817-3387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49재	수륙재	각시식	사물	바라나비	경전
안식					춤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신기한 - 약침요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지압 뼈 교정, 정력부족, 위장병, 변비통, 상기병, 두통, 간질환, 당뇨병등 특히 만성별으로 고생하시는 분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뻐뻐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중고차 상담
스님, 불자님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상/담
최고가 매입!!!
연인권011-216-2603

철야기도 ◆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
각종 경전독송 효과적인 방법지도
대불정능엄신주·우리말 천수경·지장경을 드립니다
김종길·임명선·김광미·김경록·김선희·김민경 필요하신분 011-801-4355 전화환영
상담환영
대학입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노후에 회향을 잘 하실 분
조상영가천도 상담하십시오
6월6일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동참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포교활동하실 분
스님등참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맨발등산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문원은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스님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의 각종의식교육)
055)381-1199
055)383-6676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문원은 종단을 불문하고 무보시 범음범패 제3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 천도재, 바리작버, 사물 등)
055)381-1199
055)383-6676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립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창건사찰에서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처사님, 행자님 모십니다
011-259-5989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기도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숨겨온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도반찾음
법진스님(속명: 최승규)
속명: 구권수(하동)
※찾음: 법광스님(김성화)
010-9310-7089

평생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전세도 드릴 수 있습니다
(55세-65세)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교당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8-427-2256

법력 20년이상된 부전스님과 총무스님으로 20년이상 근무하신 스님 모십니다
종무원 및 사무원(女)구합니다 (각1명) (절에서 3년이상 근무하신분, 숙소제공 가능)
사찰 백련사
031)559-0892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18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전후)
▷구파발동 시연사
02)352-0572

부전스님 모십니다
051)508-5033

가난한 절이나 보살님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절 주지 원합니다
무보시로 운영해 드리며 역학 및 49재 천도재 불공의식에 능통한 법납 31년 50세된 조계종 비구입니다
011-854-8107

남,녀 재가 불자님께 공부하실 처소를 무료로 마련해드립니다
▷효은사
055)342-0379
011-856-4578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 기도하며 살아가실 비구니 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동참금 : 2천만원
018-406-3073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숙식제공)
40대~60대
031)333-5014
용인 수정사

소승은 비구니입니다
부전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진해 창원 마산지역 원합니다
010-6479-8691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2505-7492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산 도심사찰 연화사)
010-7191-0086

법당보살님 처사님 구합니다
▷경북 영주
011-9848-2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063)583-7284
011-9610-8177

출가자 모십니다
운전하실 수 있는 처사님 모십니다
(40~50대)
017-265-6300
013-0272-2007
02)578-5508

운명사주 봄
기도 예불 등 책임있게 사찰 운영 가능
(비구승) 사찰 맡길 분 연락바랍니다
016-9455-8985

비구,비구니스님이 되고싶은분,
스님증이 필요하신분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017-571-5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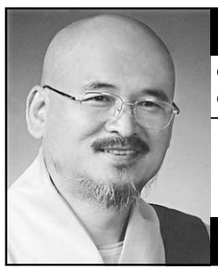
노전스님(제 의식 능통 하신분)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55세 이하) 모십니다
▷전북 고창
063)564-2861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경기도 연천 사찰에서 메주 된장을 담그며 스님과 같이 평생 여생을 보내실분과 좋은인연을 기다립니다
60세이상 70세 미만이며 큰노동력은 없으며 농사에 관심 있으신분
011-9390-3879

金山仙道
침, 뜸 보다 효과 만점!
경혈 지압구 우주회로 비법 단기완성
氣은영, 치병기공, 발공 우주기공 수련생및 전국 지부모집
● 남,여(경락, 스포츠마사지, 호흡, 기공) 경험자, 제자구함
35세미만 여직원 급구 일하시며 배울분, PC가능한자(각종기공, 경혈, 道)
※ 특히, 만성피로(간) 위장병, 아토피 전만 氣치료
02)562-7151/ 010-2362-1138 위치 : 강남역근처 金山仙道

28숙 특별지도
● 명리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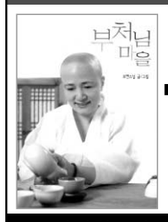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 지방분 환영 ● 포교활동 하실분 ● 스님동참환영 ●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 전국만행 ● 팬발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각 사암 등록신청 및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스님
-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 (남, 녀)
- 동자모집 (가정이 어려운 환경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의 010-7746-5544

판매기금은 부처님마을 장애우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부처님마을을 책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휴대용 달마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
⇦ 부처님마을 선화집 12,000원
선오스님 CD 12,000원 ⇨
선오스님테이프 7,000원
부처님마을 부설 달마선원



◆ 문의전화 : 달마선원 국민은행 710801-01-047368 (예금주:달마선원)
041)523-0026, 010-9335-84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혀도 혀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6. 7 (수·목요일 주·야간반)
토·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 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매년 6월 6일 현충일
올해도 서울 동작구 국립묘지 참배객들에게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동참하셔서 직접 한권씩 보시하면 무량공덕이 됩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 야 기 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팬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치매예방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김해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터 -

● 위치: 충남아산 ● 법당: 33평 ● 요사: 90평 ● 부지: 2,000평 ● 가액: 21억

● 위치: 경기 (서울경계) ● 법당: 18평 ● 요사: 30평 ● 부지: 26,000평 ● 가액: 15억

● 위치:경기 화성 ● 총평수: 370평 ● 가옥: 30평 ● 가액: 3억 7천

● 위치: 경북 포항 ● 총평수: 700평 ● 가액: 3000만

● 위치: 경남 사천 ● 총평수: 16,300평 ● 가액: 4억 3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경기사찰 960평-5억5천
2.충성사찰 2500평-10억
3.봉천동포교당 40평-월85
4.강남포교당 40평-월176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대전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자지갑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 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전세는 1억에 가능)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상가주택 밀집지역, 지하철 역세권)
● 건물 45평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소임관계로 급 안내
● 전세 1천만원,월55만원
※ 오전 중으로 연락바람

017-586-5699

절 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근천 I.C에서 10분거리
● 평수: 대지 1161평 중 168평이 전용 건축허가(주택 25평, 창고 15평) 전용부분 토목완료. 건물바닥 기초공사 완료
● 특징: 주위 산세 경관 수려. 배산임수의 명당
● 가액: 6800만원

017-585-4980

위치	부지	가액
• 서울	90평	4억 5천
• 안양	약 210평	11억
• 천안	약 1000평	10억
• 양평	약 2000평	13억
• 충남	1100평	전세2억
• 방배포교당	약 40평	3500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경북 구미시 소재
● 부지: 120평 (3층건물중3층 분할등기 34평)
● 법당: 100평(방3)
● 가액 : 1억9천만원
● 특징 : 법당 시설비만 1억원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 600평(종교부지)
● 법당 : 30평(임법당)
● 산신각 : 3평
● 가액 : 4500만원
● 특징 : 인근에 문화재 (고려시대석불)가 있는 조용한 토굴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임대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건물: 4층건물에 2층, 법당 25평, 요사채 13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6-9599-0108 소원사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화성군
● 특징: 산세수려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며 큰 호수 있음
● 평수: 1200평
● 임법당, 요사채, 차고, 창고 있음
● 주지스님 건강 상태로 매우급함
● 가액: 1억2천만원(가격절충)

010-4604-92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1억2천5백만원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1구 48번지
● 총 700평 중 대지 172평 법당 ,산신각
● 가액: 1억 (가격 협의가능)

041)642-0642
010-6700-45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 500평, 건물 :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포교당선원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1-9393-4965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5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디밭

016-367-2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2층건물에 2층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300만원
● 법회즉시가능 대형주차장 有

011-450-557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소재 (서울 30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30평 요사채 현대식 (2층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 편리한 참 좋은 곳입니다.

016-510-34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지리산 줄기
● 평수: 총 756평
● 건물: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 네개 큰창고
● 가액: 2억3천만원

010-3138-489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 부근
● 50평 방3, 주방
● 가액: 선세 2천2백만원 시설비 800만원

017-420-52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동구 강동대로
● 평수 약 100평
● 전세 4천 월 15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10-3874-7871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 건물 3동
● 가액: 4천만원

010-5631-8439
017-401-4939

사찰부지(별장겸용)

● 위치: 천안역 10분거리
● 부지 면적: 2100평
● 산세: 산으로 둘러싸인 삼태기형
● 교통: 2차선 포장도 근접
● 가액: 25만원/평당

041)621-4411
010-3121-3900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9천만원

010-4510-0108
011-9126-89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부근
● 대지 : 150평, 답146평, 방3칸, 법당18평
● 모든 시설물 및 집기등 일체
● 가액 : 7천만원

055)882-7473
017-560-56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15분거리
● 슬라브 2층 24평 법당, 요사채1, 산신각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구합니다

사찰 및 암자
임대로 구합니다
지역관계 없음
010-8828-30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에서 10분거리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5억4천만원

019-692-2222

암 자 안 내

● 위치: 강릉시에서 20분거리
● 총평수: 150평 삼존불, 허공산신, 법당10평 방3칸 즉시법회가능
● 가액: 2천5백만원

011-9878-339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불교대학 하시고 싶은 분도 아주 적합한 위치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상주군
● 대지: 105평
● 임법당, 요사채, 주차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3천만원

054)931-3397
010-4601-125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금천구 독산동 20m도로
● 6층건물중 3층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6414-11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50평, 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201-5827

포교당안내

● 위치: 전남 해남
● 대지: 150평 건평 30평
● 가액: 5천3백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61)533-9046
011-631-295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단독주택 형태
● 대지 45평
● 가액: 2억1천만원

011-554-0018

사 찰 안 내

● 위치: 가평 설악면 사룡리
● 대지: 2000평, 법당: 40평 요사채: 60평, 건물3동 주차장: 300평, 산신각: 5평
● 가액: 11억3천만원
● 최고의 휴식처 청평호가 한눈에 보임

017-313-216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38평.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도심포교원 최적지

019-291-5558
(문의전화:오전9시이전, 오후9시이후)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부도(내)
● 약: 50평 법당 약 30평 삼존불 후원 방5개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스님사정상 급

010-8751-6989

조용한촌집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111평
● 건평: 17평(방3칸)
● 가액: 3천800만원
● 부전노스님 모십니다

054)974-0456
018-543-0108

포교당안내

● 위치: 강북구 우이동 4.19 네거리 최고위치
● 평수: 30평, 방2개, 법당
● 오존불, 음향, 냉난방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2)902-40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옆
● 대지: 200평
● 법당: 60평, 시설비 무 (방5칸 임법당 공양간등)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9-634-30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목조건물 18평(임법당) 슬라브집 요사채 15평
● 가액: 1억6천5백만원
※꼭 사실분 연락바람

011-792-8969

절최고시설(급)안내

● 위치: 포항시에서 20분거리
● 대지4100평,연못200평, 주차장1500평, 법당45평 불탑15m, 요사채50평 별채50평, 식당, 사무실 60평
● 고가의 시설비 73억 들었음 가액 : 17억

051)516-5223
010-8562-7385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포교당 안내

● 45평. 경기도 양주시 대로변 (06년12월전철개통예정)
● 큰법당1. 주지실1.지대방1. (차방) 주방1. 화장실1. 대형다용도실1
● 보증금:일천만원. 월세:오십만원. 시설비.삼천오백만원
● 아미타삼존불.지장보살.산신. 후불탱화.지장.산신.신중탱화 모셔져 있으며 아직 개원전입니다

연락처: 010-8614-8410
031)841-8410
※월세가능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390(약천사)
● 건물: 2층건물 (1층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콘테이너 1동(거주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100만원 답사후 가액절충可

010-4528-6039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 대지: 50평
● 건물 3동 임법당, 방2개, 입식부엌
● 배산임수로 촌낙의 끝자락 조용한곳
● 도지세 1년 8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4879-022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증평)
● 법당 30평 요사 35평, 20평 가건물 15평,텃밭 300평 대지 약 400평
● 특징: 심야보일러, 지방문화제 천년석조 약사여래불 깔끔한 사찰
● 가액: 상담후 결정

043)836-914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신도시
● 건물: 3층건물중 2층 (실평수 41평)
● 법당, 방2, 공양간, 종무소 도시가스 및 시설완비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A급)
※꼭 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55)366-2662
018-891-808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 : 1억4천만원 (가격절충가)

010-9405-9228

사 찰 안 내

● 교통 관광 경남일대 최고의 위치
● 위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천공항에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주차장 100여평 沓500여평 田280여평 매실나무 70여 그루
● 특징: 도로 1.5km 사찰소유 100% 포장 버스운행가능
● 건물: 65평 임법당, 방7개, 부엌2개, 원 황토방, 사찰뒤 8부 능선200평 토굴집, 창고2, 비닐하우스
● 가액: 1억8천만원 헐값 매매 (주지 교통사고로 운영 불가능)

055)884-0208/011-866-7372

낙산사서 부처님 진신사리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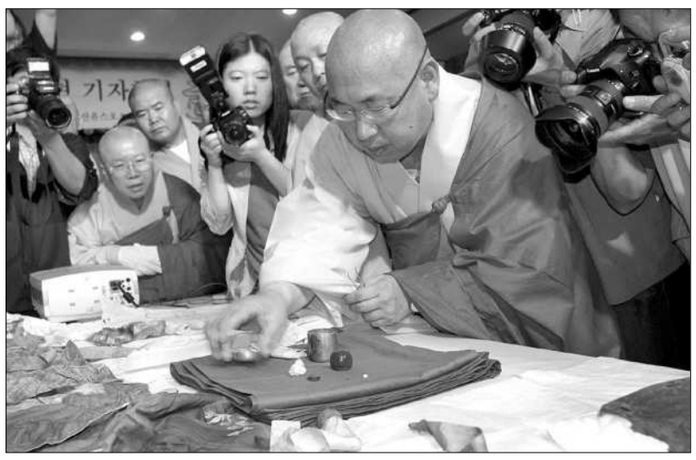
화재 피해 공중사리탑 해체보수 과정서
진신사리 1과 · 사리호 등 9건 19점 공개
함께 발견된 복장물 문화재적 가치 높아

지난해 4월 천년 고찰이 화마로 전소돼 전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양양 낙산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낙산사(주지 정념)는 5월 18일 낙산유스호스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1과와 사리호, 불탑 봉안문, 비단보자기 등 9건 19점을 공개했다.

단국대 정영호 박물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언제부터인지 약간 기울어져 있던 공중사리탑이 화재로 피해를 입어 보수하던 중 4월 28일 오전 편구형의 탑신 상면에서 직경 23㎝, 깊이 17㎝의 사리공에서 발견됐다"며 "부처님 진신사리는 금, 은, 동제합 속의 갈색 사리호에 쌓여져 있었고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특히 함께 발견된 222㎝ 의 불탑봉안문에서 조성연대와 경위 등을 알 수 있어 사리장엄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 "자장율사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부처님 진신 사리 1과를 갖고 낙산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고 공중사리탑이 조성될 당시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외에는 '사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사리는 부처님 진신 사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이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과 불사리를 공개하고 있다.

해수관음공중사리비명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1683년 홍련암을 보수하면서 공중에서 떨어졌고 9년 후인 1692년 공중사리탑에 보관됐다. 실측결과 부처님 진신사리는 폭 0.8㎝, 높이 0.6㎝ 크기며 유백색으로 광채를 내고 있다.

한편 사리장엄에서 함께 발견된 복장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발견된 금, 은, 동제합을 싼 비단 보자기 8점에는 화문, 봉황, 연화문 등이 수놓아져 있고 형태나 색감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복식 전문가인 박성신 단국대 교수는 "복장 유물 가운데 비단 등 복식물은 분묘 등 출토 유물과 달리 전시대에 걸쳐 색감, 문양 등이 남아있어 복식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며 "특히 당시 봉황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왕실 후원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격자 모양의 짠 금직 유물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형태라 학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중창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며 낙산사 중창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리 장엄대를 설치해 친견법회를 가진후 사리는 다시 탑에 봉안할 예정이며 사리장엄은 후대를 위해 문화재로 잘 보존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낙산사 공중 사리탑은 해수관음상 앞에 있는 관음전 옆의 숲속에 봉안되어 있으며 조선 중기인 1692년(숙종 18년)에 석겸(釋謙) 스님 등이 세웠다고 전한다. 탑이 완성된 이듬해 수춘거사(壽春居士)라는 문사(文士)를 초빙하여 탑비(塔碑)를 적었는데 이 탑비는 현재 홍련암 앞에 있다.

글 · 사진/양양=김두식 기자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 … "둘 아니네"

불자-기독자 교수 공동학술대회 열려
종교 이데올로기 비판적 시각서 조명

붓다와 예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무엇을 남겼나. 불교 · 개신교계 학자들이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부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공동주최로 제1회 불자-기독자 교수 공동학술대회가 5월 19일 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렸다.

'인류의 스승으로서 붓다와 예수'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양대 교단에 속한 학자들이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생과 화해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불자가 본 예수-삶의 자세와 십자가의 의미'와 한신대 김경재 교수의 '기독교에서 본 붓다' 동국대 이만 교수의 '스승으로서 붓다' 감신대 이정배 교수의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붓다-대안적 종교문화를 창출한 인류의 두 스승'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신격화된 부처와 예수가 아닌 불경과 성경 안에 기술된 그들의 가르침과 이 시대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우희종 교수는 논문의 핵심소재를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교적 해석으로 논문발표를 이끌어 갔다.

우 교수는 또 "원죄나 무명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와 결코 둘이 아니기에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관계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고통과 무지를 스스로 철저히 맛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자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예수의 대승적 용기와 믿음은 불교의 그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김경재 교수는 '불교의 유기체적 실재관 비평' '기독교의 선택적 구원론을 보완하는 자비정신' '이원론적 사고관을 극복하는 대승기신론' '여래장 사상과 신학적 인간관' '기독교의 우상타파와 선(禪)' '정혜쌍수와 선교병행' 등의 소주제를 통해 불교의 연기적 사고와 개신교의 보편구원설을 대입시켜 논리를 펼쳤다.

한편 학술적 교류를 통해 양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초에 년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범모)는 5월 2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34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발표회에서는 김은정씨(동국대 박사과정)의 '조선후기 전남지방 상류주택 안채와 사찰 요사의 평면 및 공간 비교 연구' 성신여대 조정육 강사의 '근대 채색화 연구' 등 불교건축과 미술에 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은정씨는 논문을 통해 "요사와 안채의 유상성에는 마루나 대청을 통해 각 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성의 합리성과 수장 공간 확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0>

道의 과학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한 방송사는 선을 주제로 한 시리즈물을 내보내고 있다. 벽안의 청년이 선사들에게서 배우는 맑고도 깊은 가르침, 한국의 산사에서 느끼는 독특한 그윽함 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 청년의 진지한 구도 정신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청년이 '도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스님은 '차라도 한잔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이 차를 마시고 느낄 줄 아는 것 자체가 도라는 것이다. 나라는 본성이 곧 도이지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에 대한 책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에게는 이러한 대답이 놀랄 만한 대답은 아니다. 쉬운 만큼이나 어려운 대답이다. 나라고 인식하는 수많은 오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차 자체의 맛을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말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동양의 전통 때문에, 말을 너무 잊어 먹은 느낌마저 드는 답이다.

논리적으로 道기술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
부처님 가르침 알리는 기술의 빈곤 아쉬워

과학은 논리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체계이므로, 도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마 혀가 잘리거나, 불꽃에 나방이 뛰어드는 격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므로 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자.

도는 어쩌면 플라톤의 이데아와 반대되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플라톤은 변하기 쉬운 속세, 자연의 현상들이 아닌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개념을 이데아라고 설정했다. 서양의 철학자는 이러한 이데아를 찾고 속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를 동양의 성현들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데아란 그저 사람이 만들어 낸 허구이며, 변하기 짝이 없는 것이야 말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생사열반상공화(生死涅槃相共和, 변화하는 나고 죽는 모습이 곧 깨달은 것과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의상대사 법성게 한 구절)'라고 하지 않았던가.

과학자는 변하는 모습으로부터, 원래 존재의 모습을 가늠한다. 분자를 예로 들면, 분자에 에너지를 주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빛을 내보는데, 과학자는 이 빛(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원래의 전자 에너지를 유추한다. 양자역학은 결코 원래 에너지 자체를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저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원래 모습을 그려낼 뿐이다. 그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닐까.

이처럼 그림자를 걷어내면 드러나는 원래의 모습이 이데아라면, 도는 그림자를 걷어낸 양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쳐준다. 자연이야 말로 도의 모습일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이지 인간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의 nature가 자연이 아니다. 죄를 선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죄라는 것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참회라는 천수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의 빈곤은 아쉽기만 하다. 논리를 뛰어넘기 위해 논리를 정연히 세우는 변증법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22-25-0005-381(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198평
- 한옥사칸(옛집 그대로) 건물 3동, 우측동(방1. 창고) 좌측동(방1)
- 가액 : 4천 500만원 (꼭 필요한 사람만 연락 요망)
011-9517-413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서산 서산 IC 5분거리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980평
- 건물 : 대웅전, 명부전, 요사2채
- 가액 : 8억 5천만원
016-342-7777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 건평 : 약20평,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 해발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서울 50분 거리 시내에서 버스 15분거리 자가용으로 10분거리
- 대지: 실평수 200평
- 법당 25평, 요사채38평 법당,집기,일체 양도 청원수 다수
- 가액 : 2억 2천,전세 4천만원
- 절마당까지 주차가능
018-309-1760
031)632-2138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사 찰 안 내

- 종교부지 및 답 : 1026평
- 가액 : 10억 6천만원
- 위치 : 오산 ↔ 안성 국도 (4차선 확장공사중)변 1km 접한 곳으로 오산 I.C 오산시청 10분거리

동탄신도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발전성 최고의 수행 환경을 갖춘 사찰임.
법당, 주방용 집기등 일체 양도함.



010-6809-9294

일 주 문



5차 대중법회 봉행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은 5월 22일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2006학년도 1학기 제5차 대중법회를 봉행했다.



제3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3일 월정사 및 상원사 등지에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탄허 대종사 제23주기 열반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은 5월 21일 대전 자광사 조사전에서 문도스님들과 함께 탄허 대종사 제23주기 열반재를 봉행했다.



'비구니 수행…' 포럼 개최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을 6월 1일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최한다. (02)733-5467



충담 스님 열반 8주기 기념법회

서울 승가사 주지 지성 스님은 5월 30일 오후 1시 감로사에서 충담당 원상 대종사 열반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82-3418



경산대종사 탄신 90주기 추모법회

서울 적조사 주지 자제 스님은 5월 29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학월당 경산 대종사 탄신 9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02)924-5362



'부처님의 수행법' 강의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묵 스님은 6월 12일~7월 10일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해 강의한다. (02)576-1886



'쌀 한톨…' 주제 심포지엄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쌀 한톨에 담긴 생명의 각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02)587-8997



'장충동의 푸른밤' 행사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5월 25일 오후 7시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에서 재가연대 회원모임인 '장충동의 푸른밤' 행사를 연다. (02)2278-3417



불교학연구회 회장 연임

전남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는 5월 13일 서울대 인문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연임됐다.

"군내 신행 여건 개선에 최선"

군불교총신도회 새 회장 김태영 중장



"신심도 부족한 제가 막중한 역할을 맡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군불교총신도회가 활성화되고 부처님의 법력으로 가족과 국가의 안녕은 물론 군 장병들의 원만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5월 14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 회장으로 취임한 김태영 중장(사진)은 "군 신도단체에 걸맞는 신행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장군은 조만간 회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올 한해 활동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설립된 조계종 군종교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군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군 불자들에게도 신행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군은 육사 29기로 101 학군단장, 2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본부장으로 재임중이다.

한편 김 장군은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선철 소장을 군불총 부회장으로, 합참 군수부장 김춘수 준장을 사무부총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두식 기자

청우·정보 스님 교정대상 수상





제24회 교정대상 사회참여부문 자비상 본상에 강릉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사진 왼쪽)이, 특별상에 담양 천불선원장 정보 스님(오른쪽)이 각각 선정됐다.

교정대상은 서울신문사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5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청우 스님은 1986년 3월 강릉교도소 종교위원으로 20년 넘게 불교의 자비정신 실천해왔다. 수용자 정신교육, 불우수용자 자매결연 및 가족돕기, 출소자 취업알선에 헌신해 왔으며, 1997년 6월부터는 등명낙가사에서 형기를 마친 출소자 7명과 함께 생활하며 교화지도를 했다.

정보 스님은 1995년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연말연시에 무의탁 수형자들에게 내복과 떡 등을 지원했다. 1999년 무연고 출소자 7명에게 포장마차를 차려주거나 생계비를 보태줬다. 2000년부터 불교법회·봉축법회 등을 열어 8700명에게 불법을 전해 왔다. 조용수 기자



이충희 감독 동국대 농구부 새 사령탑

이충희(사진) 前 LG세이커스 감독이 최희암 감독에 이어 동국대 농구부 새 감독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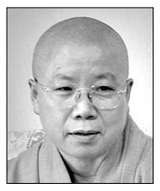
이충희 감독은 "성실한 자세로 팀을 운영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충희 감독은 1976년 인천 송도고 농구부 선수 시절 '동국대학교 총장배 전국고교 농구대회'에 참가해 팀이 우승을 거두고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던 것이 동국대와 첫 인연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탁연 스님 베트남語 '님의 침묵' 출판기념회 참석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사진)은 5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린 <님의 침묵>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이번 <님의 침묵> 출판은 하노이 국립대학 한국어과 레당 환 교수가 조계종의 지원을 받아 번역 출간한 것으로, 불교국가인 베트남과 정서적으로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탁연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스님이며,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다"며 "그동안 대중문화로 시작된 한류의 관심이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불교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탁연 스님은 또 "앞으로 조계종과 베트남간의 문화교류와 종교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원고료 수입으로 남 도우며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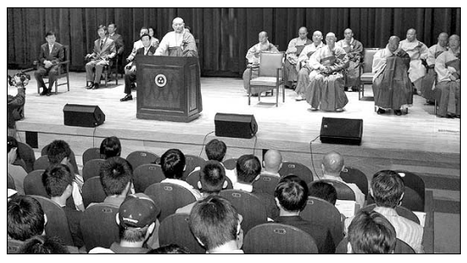
랑승만 불자시인 '생활고' 호소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을 도와온 불자시인 랑승만(74·사진)씨가 극심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 수입이래야 원고료로 받는 30만원 가량이 전부인 랑 시인은 설상가상으로 은행대출로 마련한 빌라 지하 집마저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 강제 압류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1990년과 1996년 두 차례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열었던 작품전이 큰 빚만 남긴 채 끝났기 때문. 그래도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제는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가 됐다.

랑 시인은 "작품전에 전시했던 석주 스님의 휘호 등 40여 점의 좋은 작품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이라도 팔리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32)875-2878 한명우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10주년 기념식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 및 지도자 표창, 청소년 지도사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초(녹색)·중(파랑)·고(보라)등학생과 지도자(갈색)들의 단복 발표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진각복지재단,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5월 15일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장지현)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회정 정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668평으로 건립된 중랑노인요양원(사진)은 일상생활지원, 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옥천경찰서 경승회·사암련 합동 위문



옥천경찰서 경승회(실장 혜철)는 5월 17일 옥천불교사암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옥천경찰서(서장 이호균)를 방문했다. 이 자리는 지난 부처님오신날 행사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경승회는 사암련과 경찰서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봄맞이 나들이'



송산노인복지회관(관장 송호식)은 5월 12일 의정부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여주 신륵사와 이천 도자기 축제장으로 '봄맞이 나들이'를 다녀왔다. 송호식 관장은 "상대적으로 여가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이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천년에 한번든 쌍춘절과 쌍오절에 경신이 들어 초능력과 도통하여 큰부자 도인되는 경신대법회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대운맞이로 조상과 자신의업장을 제도하는 영산법회 봉행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과 생명은 정신세계에 있으며 영과 혼의 비밀법을 5월양력 30일 자시와 5월 31일 단오절 오시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心자와 卍자 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 대 용맹정진 수행법에 입문하시어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법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건강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의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병술년 음 5월 30일과 5월 31일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업장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참회하여 업장소멸 하시고 만사 형통하소서.

특히, 이번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혈압,당뇨,관절,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기공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과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 하소서.

견성도통하는데 가장빠른 비법 혈당법과 예단경만인것이다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당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제도되어 이생애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저세상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예단이란 상대방의 인연을 끊고 신랑집에 와서 정붙이고 살으라는 것이 예단인 것이다.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업장이 소멸되어야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윤달든 병술년 음 5월 5일 경신이 든 근본은? 단오절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타심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도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람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자아도통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병술년 음 5월 초 5일 단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큰도통하소서! (금년 삼재묵는 띠는 인,오,술띠이고 원진상충띠는 잔나비띠, 뱀띠)

● 입제 : 양력 2006년 5월 30일(음, 5월 4일 화)(해시)
● 해제 : 양력 2006년 5월 31일(음, 5월 5일 수)(단오절)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 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총 본산 태일합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불자 세상보기

박 명 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선거 '뒤'를 생각하자

2006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거리마다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넘쳐난다. 이번 지방선거는 1952년 이후 8차 선거이고 동시선거로는 1995년 이후 4차이다. 전국에 걸쳐 386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로 모두 6표를 행사하게 된다.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은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광역의회와 같이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투표하고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에 따라 기초비례대표의원이 배정되고, 지역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당공천제가 실시된다.

지역의 광역의원은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지만 지역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또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유급제가 실시된다. 이 때문인지 고학력 전문가 출신의 출마가 많아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선거판세 또한 이미 알려진 구도가 점점 굳어지는 양상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선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점점 하락하는 양상이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선거 판세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으며 2개 지역에서도 접전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이 고전하는 지역은 호남지역뿐이다. 유권자들은 직급별로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기준으로 일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은 광역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호남 지키기에 급급하며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합중이며 국민중심당은 충청권에 올인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 자체보다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4개월 후 18대 총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도 6개월 후의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부자 몸조심하듯 현재의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그렇지 않다. 내년 대선까지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48%의 의원들이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52%의 의원들은 2007 대선 전 제 3의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통한 정계개편 가능성에 국회의원의 35%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며 뚜렷한 차기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앞으로 전개될 정계개편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호남과 충청지역에 모든 힘을 쏟아 붇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향후 정계개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07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지형 변화의 서막이 될 2006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금어(金魚) 만봉(萬奉) 스님이 입적했다. 세수 96세. 평생을 붓 하나로 붓다의 모음(母音)을 세상에 전하더니, 이제 먼 길을 떠났다. 우리 불모(佛母)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보는 것 같다. 스님은 10대부터 금어 예운 스님의 문하에서 붓을 들었다. 1926년 봉원사로 출가한 이래 금어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길, 그러나 외롭고도 어려운 길이었다.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민주화의 길을 겪으면서 그리고 서구문화 팽창시대를 겪으면서 전통불화를 지킨 그의 일생은 새삼 경이로워 보인다. 아무리 정부에서 스님에게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예능보유자로 지정(1971년)하여 기린다 해도 스님의 빛나는 행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나는 지난해 6월, 인사동 모란갤러리에서 연 스님의 개인전을 관람했다. 그러고 보니 스님의 마지막 개인전 자리였다.

만봉 스님이 남긴 것

95세의 화가답지 않게 전시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저히 95세 현역화가의 작품 발표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상단탱화, 감로탱화, 팔상도, 나한도, 관음보살도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보았다. 전통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도도 사양하지 않았다. 정말 개인전의 제목처럼 '현세에 꽃 피우는 극락'이 따로 없었다. 붓으로 보여준 극락, 스님은 노구를 이끌면서 이를 성취한 것이다.

나는 지난 1980년대에 스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 후 스님의 작품들을 접하면서 우리 전통 불화의 위상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고민을 기억에 담기도 했다. 스님의 마지막 전시장에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은 것 같다. 세태가 어떻든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더불어 법고창신(法古創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금어 만봉 스님은 우리들의 곁을 떠났다. 하나의 전통이 무너진 것이다. 하나의 전환점을 돌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에 어떤 미대생이 만봉 스님의 문하에서 전통 불화를 수학하고 작가로 성장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이제 불화의 전통성 답보와 더불어 우리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 시대의 불화가 풍성하게 열매맺기를 기대해 본다.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 윤범모(미술평론가)

이렇게 들었다 성폭력

"남이 내 어여쁜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항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편불보은경〉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여성 및 장애단체 등에서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5월 18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기숙사 보육교사였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2년 4, 5월 2차례에 걸쳐 근무중인 학교에 다니던 청각언어장애학생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참교육학부모회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등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유아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즈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른바 '법감정'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보다 큰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단발성의 강력한 처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친고죄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절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목포 유달산의 모 사찰 입구에서는 일반인은 화장실을 사용을 금하니 공원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30여 년 전 목포에서 제일 큰 절이었고 큰스님이 계셨던 절이라 어린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녔던 곳이다. 그런 절 입구에 부처님 법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절에서 볼일을 볼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보시를 못할망정, 화장실 조차도 개방 안 한다면 그 절 스님들은 포교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일상이 힘든 일반시민들이 언제든지 대웅전에 들러 예배하고 기도하며 쉬어 갈수 있게 절의 모든 시설을 개방해야한다. 만약 문화재 절도나 이교도들의 방화가 무서워 대낮에도 절을 개방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생구제를 위한 포교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담그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전성일(전남 목포시 죽교동)

대구 실달유치원 자료 찾아요

47년전 대구시 실달유치원의 자료를 구합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 2가 소재의 실달유치원을 기억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관련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7년 전 제7회 졸업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기억과 그때 당시 사진이나 자료를 찾습니다. 사찰에 관한 자료와 유치원에 관한 자료가 급히 필요 합니다. 반드시 사진이나 문서자료가 아니어도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의 구술도 괜찮습니다.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김천시 대휴사 054) 434-4161

다동이(부다피아)

이찬수 교수 해직 선교사학교 잔재

기독교 재단인 강남대가 이 학교의 이찬수 교수를 해직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해직의 사유가 기독교 재단의 교수가 법당에서 절을 했다는 이유라는 말에 더 할말을 잃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종교간의 화해가 중요한 시대적 요구인데도 우리사회 구석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개화기시대 선교사 학교'들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대학의 건학이념이 불교든 기독교든 대학의 강의실에서 특정종교를 전도하거나 포교하지 않는다면 대학교수 개인의 종교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단지 기독교를 가르치던 교수가 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단에서 끌려 내려간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다.

김동석(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 도와주세요

스님 모시고 활동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습사무관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불교와 녹차'라는 주제로 불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신우회 등이 자극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생긴 수습사무관들의 불자회입니다.

그런데 활동 경험이 전무한 저희들은 어떻게 불자회를 끌어가야할 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51기생 불자회에 도움을 주실 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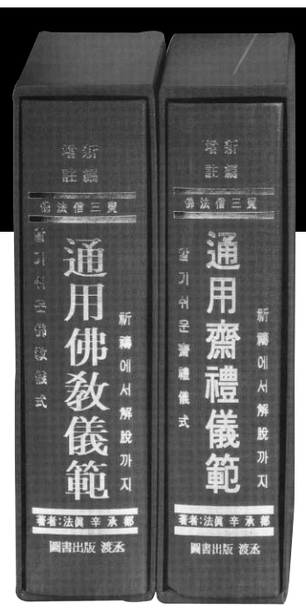
부디 저희의 뜻이 잘 전해져서 불제자들의 모임이 자리를 잡기를 기원합니다. 018-263-4298, bravekorean@naver.com

김건민

'현대' 만평 심 민 섭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제2장	예 경 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 생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제9장	이 운 편	제10장	수 계 편	제11장	고 사 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제2장	장 의 편	제3장	다 비 편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태국 비구니 승단 복원 돕겠다”

‘웨삭데이 국제불교도회의’ 참가한 명성 스님 대표 모임서 한국비구니 알리고 지원 뜻 밝혀


태국에서 열린 웨삭데이 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맨 앞줄 가운데)과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방콕 명상센터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제공=조계종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에 대한 세계 불교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비구니 승단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5월 7~10일 4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웨삭데이(Vesak Day) 국제 불교도 회의’는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런 분위기가 표출된 대회였다.

‘웨삭데이 국제 불교도 회의’는 1999년 유엔이 제정한 ‘부처님오신날’로, 태국은 3년 전부터 세계 최대의 승가대학이자 태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마하출라 롱컨 대학(MCU)’ 주관으로 웨삭데이 국제 불교도 회의를 열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베삭 데이와 함께 태국 국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겹해 열려 어느 해 보다도 풍성했으며, 47개국 4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8일 열린 각국 불교대표들의 주제발표 시간에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국에서도 정식으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명성 스님은 행사 마지막 날인 10일 태국불교 종정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태국 비구니 계단 복원에 한국불교계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명성 스님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 태국 불교계가 비구니계단을 설립할 경우 한국불교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청,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성정 스님(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은 “각 분과토론회에서도 태국에 비구니 승단이 설치돼야 한다거나, 비구와 비구니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비구니 승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았다”며 “전국비구니회의 행사 자체평가에서도 한국 비구니계의 활동이 태국 등 소승불교 국가에서의 비구니 승단 설립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성정 스님은 또 “대회를 주관한 마하출라 롱컨 대학 측에서 한국 비구니스님들을 특별히 초청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비구니 승단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태국불교계 일각에서 비구니 승단 설립과 관련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명성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과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선재 스님, 노래하는 정율 스님 등 한국 비구니스님들은 이번 대회기간 동안 주최 측으로부터 다른 나라 참가자들보다 환대를 받음으로써 한국 비구니계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한국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과 동국대 스님 및 관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행사 셋째날인 9일 각국 불교단 대표만이 참석한 에머랄드 사원 방문 때 비구니로서는 명성 스님이 유일했으며, 숙소 또한 최고급 호텔을 배정받음으로써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한 주최 측의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9일 저녁 명상센터에서 열린 대회 축하공연 행사에서 정율 스님이 음성공양으로 오프닝무대를 장식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가 진행된 명상센터 옆 박물관에 마련된 한국불교 코너에서는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을 시연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를 세계종교의 중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또 행사 3일째인 9일에는 사회 · 교육 · 문화 등 7개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베트남에 한국 사찰 세운다

옥천 대성사, 양국 남녀 만남 · 신앙공간으로


혜철스님이, 베트남 현지에서 짝을 맺은 한국 · 베트남 선남선녀와 함께 기념촬영했다.

우리 농촌 마을을 지나다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내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근래 들어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며, 지난해에만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5800여건이나 된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찰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선남선녀 만남’을 주선해 인기를 끌고 있는 충북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그 주인공이다. 베트남 여성과의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성사는 베트남 현지에 대성사 분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분원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2008년까지 한국전통건축양식의 사찰을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베트남 종교국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의 60%가 불교도지만 한국 사찰은 호치민시에 소재한 관음사 단 한 곳뿐.

혜철 스님은 베트남에 한국 사찰이 건립될 경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신앙공간이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올바른 결혼문화를 만드는데도 일조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대성사는 베트남 여성들이 상담은 물론이고 법회에 참석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3월 사찰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2명의 전담 직원도 채용했다.

혜철 스님은 “베트남을 방문해보니 예절을 중시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결혼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043)732-5560 한명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상좌부 불교국과 비구니

보수 승단서 비구니 교단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남녀평등 세계적 대세 … 희생 최소화방안 찾아야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서도 ‘태국 비구니계단의 복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종단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일단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대승 불교권과 달리 태국 · 미얀마 등의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는 비구니계맥이 끊긴 지 1,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다.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은 천주교의 수녀처럼 ‘출가 수행자와 재가 신자’ 중간에 위치한 애매한 신분이다.

특별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남녀평등’이 당연한 흐름이 될 정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세상의 당연한 흐름’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이들 상좌부 불교 국가 승단의 현실이다.

유대인 출신으로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뒤늦게 비구니가 된 아야 케마(Aya Khema) 스님의 경우에도, 상좌부 불교를 공부하고 전도하는 수행자이지만 대만 비구니계단에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구니 교단이 살아있는 한국이나 대만에 가서 계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외국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출가하여 비구니계를 받고 귀국한 다우 구나사리(Daw Gunasari) 스님이 정부 당국에 구속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태국의 종교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출가를 지원하는 비구는, 누가 되었든 중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하였다. 상좌부 불교계에서는 이른바 “<비구니 팔경계법>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남녀평등’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교는 남녀를 차별하는 종교이다’라든가 심지어 ‘부처님은 남녀 성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물이 끓어 수증기가 팽창하고 있는 밀폐된 그릇에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결국 폭발하고 말듯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고 있는 ‘비구니 계단 복원’의 욕구와 ‘꿈’도 마냥 누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 당시 출가 비구니로서 깨달음을 이루었던 수많은 장로니 스님들처럼 나도 출가하여 진실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발심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깨달음과 열반’을 향한 그 구도열정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과거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스리랑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여성 출가 수행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고 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따를 것이다.

태국이나 미얀마의 보수 승단에서 ‘비구니 교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 자본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지도 모른다. ‘태국 비구니 교단 복원’에 힘을 보태고 있는 우리 비구니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깊이 살피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량을 감안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속사회에서도 이제는 ‘혁명이 아니라 개량’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흐름은 불교계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상좌부 국가의 비구니 교단 복원’을 희망하고 추진 · 지원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점진적 개량의 방법’을 권고한다.

■ 자유기고가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액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파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반화지에 26도 관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된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빌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타림 산중에 계실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외도를막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579호



비번이면 항상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안시장 소방관은 봉사의 실천이 '행복의 보증수표'라고 강조한다.

향기도반의

'사랑의 119 선생님'

안시장 소방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바닷가마을. '119 선생님'이 이집 저 집을 돌며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불편한 것이 없나 살핀다. 구룡포읍 소방파출소 부소장 안시장(55) 소방관은 근무가 없는 날이 더 바쁘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사비를 털어 무의탁노인과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119 선생님'으로 통한다.

봉사 위해 10여종의 자격증 취득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안 소방관이 비번일마다 무의탁노인을 찾아가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비가 새는 지붕 수리며 전기 수리, 보일러 수리 및 설치, 이미용 봉사, 민 형사 사건처리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한다. 게다가 봉사활동을 하기위해 유선 설비, 전자기기, 자동차전기정비, 아로마경락, 스포츠트레이너, 건강관리자격증 등 10여종의 자격증까지 갖췄고, 벌침과 구급교육 등을 수료하기도 했다.

안소방관은 이런 봉사활동으로 최근 코오롱 그룹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 '꽃과 어린왕자'가 수여하는 제6회 우정선행상 대상을 받았고, 2002년에는 MBC가 선정하는 좋은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3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해 구룡포에 부임해 온 안 소방관은 자전거를 타고 구룡포 읍내를 둘러보던 중 산중턱에서 다 스러져가는 흙집을 발견했다. 지붕이 새고 방안에서는 죽순이 자라는 그런 집에서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진 할머니(1915년생)가 아궁이에 군불을 때며 생활하고 있었다.

"아직도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뱃사람이었던 남편이 죽은 후 정부보조금으로 겨우 살고 있었는데, 나도 어린 시절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탁 노인, 노숙자들의 정보를 10년동안 기록해온 안 소방관의 수첩.

무의탁노인들 신상 꼼꼼히 기록

안소방관은 사비를 들여 지붕을 수리하고 보일러도 설치한 후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 땅인 줄 모르고 구입한 땅에 15평 초가집을 짓고 살다가 그대로 쫓겨나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5평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전쟁 통에 불구가 됐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집을 내어주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돈 없던 시절 아버지의 한 맺힌 죽음과 1973년 공군통신하사관 시절 돈이 없어 자살한 사병의 기억을 떠올린 안 소방관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 산중턱에 있어요. 도움을 주려면 발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때론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무의탁 노인의 경우는 당장 진통제나 영양제 같은 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들을 방치한다면 비가 새는 냉방에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며칠 내 목숨을 잃고 말 겁니다."

당장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겠기에 시작한 안소방관의 봉사활동은 여느 봉사자와는 사뭇 다르다. 더욱 절실하고 세심하며 간절함이 녹아 있다. 안소방관의 사람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은 10년 전부터 기록해온 수첩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수첩에는 100여명이 넘는 무의탁노인과 노숙자들의 신상은 물론 내과 신경외과 등 병원출입기록과 처방약에 대한 성분분석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다. 노인들의 항생제 중복 과다복용을 막기 위한 배려다. 또, 글도 법도 모르는 노인들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둔 것이다.

지갑에 탱화 소중히 간직하고 다녀

안소방관은 요즘 매월 20여명의 무의탁노인들을 병원에 데려가 통원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2004년부터는 사재를 털어 집 한 채를 세 얻어 수리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알코올중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준비한 쉼터에는 술을 끊고 33년간 앓아 온 탈장 수술을 준비하며 새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노숙자와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무의탁 노인,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이 안소방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해마다 1천 만 원 정도를 봉사활동비로 사용하는 안소방관에게는 아내 이순자씨와 두 남매가 가장 큰 후원자다. 1986년 3살, 5살 어린자식을 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알코올중독자 가장을 살리기 위해 안소방관이 20여 만 원 박봉에 1만 5천 원짜리 영양제 주사를 맞춰가며 동분서주할 때, 아내 이순자씨는 오징어고기잡이 폐그물을 수선하는 막노동 일에 뛰어들어 번 돈으로 봉사활동을 도왔다. 또 대소변을 받아내는 무의탁노인의 냄새나는 방을 기꺼이 청소했고,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는 무의탁 노인들이 아내 이씨를 더 많이 찾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열심이다. 또,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두 남매도 아버지를 대신해 무의탁 노인들을 병원에 모시고 간다.

안소방관 가족의 불심도 소문이 났다. 안소방관은 부처님 상호가 그려진 작은 탱화를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1년에 두세 차례 지역 신도들과 함께 하는 사찰성지순례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 아내 이순자씨는 매월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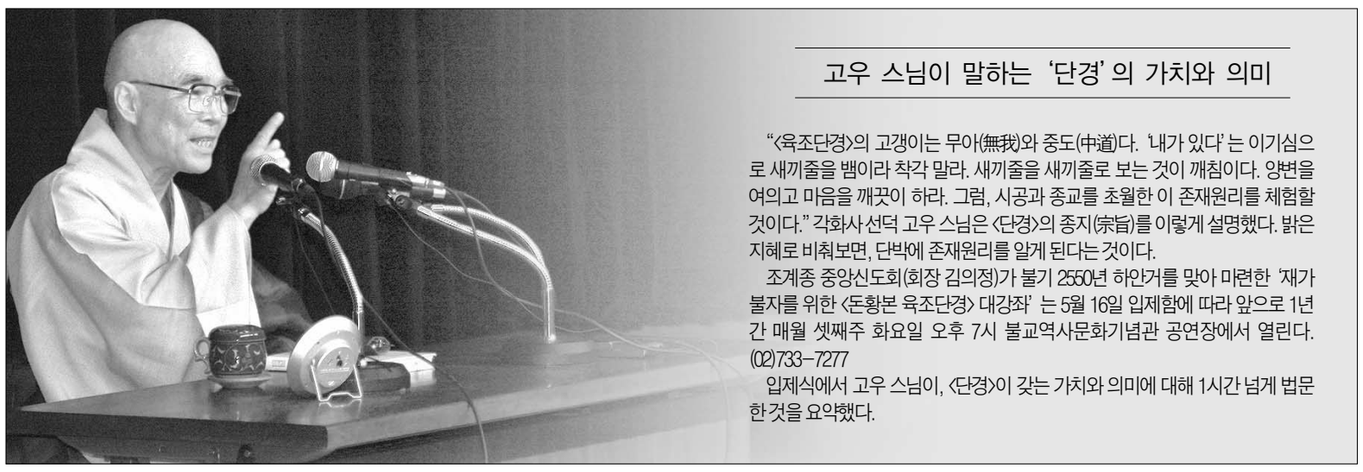
마음 깊은 곳에 따스한 자비심을 간직한 까닭일까? 경찰이나 복지사가 안소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불량배나 노숙자, 심지어 정신분열환자까지도 안소방관 앞에서는 얌전해지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안소방관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을 진정 위하는 이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는지 잘 알기에 순해지는 거죠."

삶의 한 귀퉁이로 내몰린 사람들과 나눈 안소방관의 훈훈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안소방관은 강의에 나서는 일이 잦다. 안소방관의 강의에선 화재 예방법보다는 20여 년간 몸과 마음으로 기록해 온 '사람 사는 이야기'가 더 인기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몸만 가지 말고 마음도 같이 가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부처님과 하느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봉사활동만한 것이 없다고 덧붙이죠. 봉사는 행복의 보증 수표 같은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단돈 1000원이라도 보시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테니까요."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우 스님이 말하는 '단경'의 가치와 의미

"〈육조단경〉의 고갱이는 무아(無我)와 중도(中道)다. '내가 있다'는 이기심으로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 말라.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는 것이 깨침이다. 양변을 여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럼, 시공과 종교를 초월한 이 존재원리를 체험할 것이다."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단경〉의 종지(宗旨)를 이렇게 설명했다. 밝은 지혜로 비춰보면, 단박에 존재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불기 2550년 하안거를 맞아 마련한 '재가불자를 위한 〈돈황본 육조단경〉 대강좌'는 5월 16일 입제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02)733-7277

입제식에서 고우 스님이, 〈단경〉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1시간 넘게 법문한 것을 요약했다.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 깨달음에는 구별이 없다

〈단경〉에 담겨진 내용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육조 스님이 몸으로 체험해 그것을 밝혀놓았다. 그 체험을 담은 〈단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상의 종교,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선적인 처방전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때문에 육조 스님이 발견한 존재원리를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을 체험해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냥 이해하는 것을 정견(正見)이다. 즉 〈단경〉을 통해 깨달음으로 간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견을 갖춰 생활에 1%든 10%든지 적용한다면, 부처님 법대로 안하면 오히려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육조 스님이 발견한 세계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 지구상에 전쟁은 없다.

〈단경〉 공부에는 출 · 재가가 없다. 육조 스님은 형상, 즉 껍데기로 출 · 재가를 나눈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출 · 재가를 나눴다. 〈단경〉의 '서언'에 나오는 '비구, 비구니, 도교를 배우는 사람, 재가자, 유교 선비와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대사에서 법을 청했다'는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중국에는 유교 도교 불교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말 가운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유교인 도교인 비불교인 비신자 재가인도 이 〈단경〉을 듣게 되면, 종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단경〉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이해될 수도, 깨달을 수도 있다는 의미와 사실을 담고 있다.

 # 말하고 듣는 바로 그 존재

여기서 말하는 종지는 무엇이고, 마하반야바라밀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존재원리의 내용이다. 존재원리 내용은 무엇인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그 존재원리다. 그래서 만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이 존재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1400년 전의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존재원리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존재원리는 같다.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존재원리는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든다. 희노애락도 과학도 만든다. 마음이 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존재원리는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역기능이 그냥 없어지고 순기능만이 지속된다.

 # 양변을 여읜 깨끗한 마음

〈단경〉에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하반야바라밀다법을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하반야바라밀다법'과 똑같다. 이기심이 일으키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다.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등 양변을 여읜 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은 무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반야심경〉에서 몸과 정신이 공함을 알면 모든 고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고의 원인은 '내가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새끼와 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뱀으로 봤기에 고행이 시작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끼를 보고 고뇌하다가 밝은 불로 그 새끼를 보면, 정말로 황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새끼를 뱀으로 보는 착각으로 공포심과 증오심이 일어난다. 불을 비춰보니 뱀이 아니라 새끼더라. 이것이 깨침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 전쟁 등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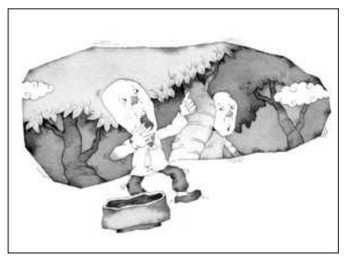
〈63〉 차밭에서

바야흐로 차(茶)의 계절이다. 우리의 햇차는 모두 '우전'을 달고 나온다. '곡우이전'에 잎을 땄다는 말이다. 한 때는 우전 햇차에 집착했던 시절도 있었다. 뒷날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관념적 사치를 부린 거였다. 이제는 생기는대로 먹는다.

'다선일여(茶禪一如)'에서 보듯 차 마시는 것도 수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차 마시는 일이 호사가의 취미생활에 그친다면 차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명필로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게송은 다선일여 경지를 읊은 명구다.

정좌처 다반향초(靜坐處 茶半香初)
묘용시 수류화개(妙用時 水流花開)

앞의 구는 체(體)를 말하고, 뒤의 것은 용(用)의 경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글줄 깨나 읊을줄 알면 다 아는 소리다. 문제는 '다반향초(茶半香初)'다. 흔히 '차를 반쯤 마셨는데(혹 반쯤 남았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석연치가 않아 아무리 듣고 생각해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문제는 '반(半)'과 '초(初)'라는 글자 의미이다. 때마침 도반의 모임에서 이 말이 나와 각자 한 마디씩 돌아가며 의견을 내놓았다.



차밭에서 차 따던 위산 선사와 제자 앙산
'體냐 用이냐' 한바탕 팽팽한 법담

"반일(半日)의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나절이라는 말인데. 차를 마신지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향기가 여전히 처음 마실 때와 같다는 뜻으로…"

귀가 시원해지는 소리가 나온 것이다.

반일(半日)이란 전일(全日)이라는 말이니 결국 '영원'이란 뜻이 된다. 초(初)는 일여(一如) 즉 '한결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뒷날 안목이 더 열릴 때까지 이 견해를 함께 하기로 모두 합의했다. 의미가 제대로 통하는 뜻 번역이 있길래 그대로 옮겨왔다

본래심의 경지(靜坐處)에서 차를 마시는 향기는 언제나 처음본래 그 맛.

본래심의 미묘한 지혜작용(妙用時)은 물 흐르고 꽃피는 시절인연과 함께 하네.

차밭에서도 체와 용의 법문이 오고 가야만 한다. 그래야 차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따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 버린다. 위산선사와 제자 앙산 스님이 차밭에서 나눈 대화에서 스승과 제자간의 애틋함도 함께 묻어난다. 위산이 차를 따다가 앙산을 향해 말했다.

"종일 차를 따도 너의 목소리만 들릴 형체가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본래모습을 보여다오."싸가지 없는 제자는 스승의 말에 냉큼 달려올 일이지 여전히 모습을 숨기고 차나무를 한번 흔들어 보였다. 그만 법담이 되어버렸다. 이에 배알이 틀어진 스승이 법대로 말했다.

"네놈은 용만 얻었지 체는 얻지 못했다."

그러자 제자 앙산은 한 술 더 떴다.

"스승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를 양구(良久)라고 한다.

그러자 간이 배 밖에 나온 제자가 한 마디 거들었다. "스승님은 체(體)만 알았지 용(用)은 얻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체와 용으로 한 펀치씩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차나무는 우리나라처럼 무릎아래에서 따기 좋도록 다듬어진 것이 아니다. 보성차밭을 가보면 차 따는 사람의 허리 위로는 다 보인다. 하지만 중국차밭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을 빌자면 차나무가 밀림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스승은 아침에 헤어진 제자가 그 사이에 보고 싶어졌던 모양이다. 다정(多情)이 병(病)이다. 그런데 이놈이 그런 마음도 모르고 가르쳐준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그것도 분별심에 분별심을 더하여 엉뚱하게 되날린 것이다. 스승의 마지막 한마디는 당연히 몽둥이 찜질이다. "네 이놈에게 30방망이를 때려주리라."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이 난다?

'응무소주이생기심' 어떻게 해석할까
원택 스님, '성철 스님과 〈육조단경〉' 특강

이날 입제식에는 성철 스님의 제자 원택 스님(백련암 주지)이 참석, 덕이본과 돈황본의 번역상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특강을 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강조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예로 들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번역한다는 것. 성철 스님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성철 스님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해야 혜능 스님의 참뜻과 계합된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원택 스님은 "〈단경〉의 핵심은 '그 마음을 낸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난다'라는 것이다. '응무소주'와 '이생기심'으로 두 문장에서 나눠야 해석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다"라며 "'자성을 낸다'고 하면, 그 마음이 객관화되고 자신이 주관화된다. 그 마음은 스스로 저절로 나는 것이지, 내가 있어 마음을 내고 마음을 주관화 · 객관화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내는 마음'과 '낸 마음'이 둘이 된다. '그 마음은 둘이 아니다'는 의미다. 이 구절은 '마땅히 머무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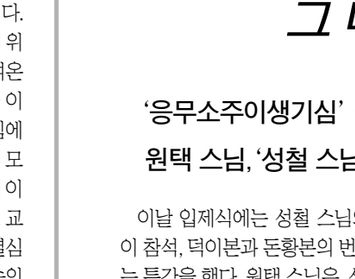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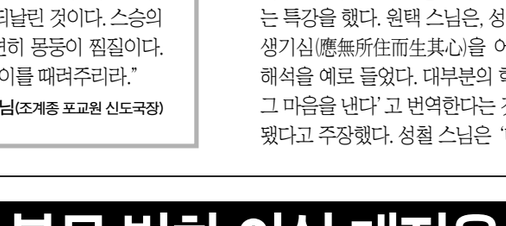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3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6년 6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본문 법화 의식 대전은
(법화 삼부경 위주로 의식을 만듬)
널리 광선 유포 독송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 법화의식 대전을 구입하시는 사부대중 231명에게 27,500,000원으로 상금을 분할해 드림

1등	5백만원	1명
2등	40만원	30명
3등	10만원	50명
4등	5만원	50명
5등	3만원	100명

이상으로 금년 12월경에 231명에게 추천하여 공정하게 상금을 드리오니 많은 동참 바라며 「의식책」을 사시는 분에게 달마. 불.용자 등 50장를 거져 드립니다.

본문법화의식대전

달마. 불. 용자. 모두 가로 38cm × 세로 54 cm
대한불교 대승연화종 총무원
연락처 : 055)772-6662 / H · P 010-8993-1344 ,010-6394-7350
◆입금계좌번호: 농협 801076-51-022066 (예금주 : 대한불교)

제4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기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직 범음 · 범패)
◆ 모집 : 수시모집
◆ 매주강의요일 : 수, 목(오후 4시~6시)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 겸 강주 김도진 화상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산행이란 글자에 점하나만 빼면 신행”

전국불교산악인련, 보성 일림산서 합동산행법회

초록의 산 빛에 철쭉꽃이 춤을 췄다. 산악불심도 보라색 꽃 빛에 넘실댔다. 전남 보성 일림산 해발 667m 정상. 산은 조건 없이 화엄장(華嚴藏) 세계를 내어보였다. 드넓은 남해 바다, 시원한 바람결, 부드러운 능선…. 그대로 산악불심에게 극락세계를 선보였다.

5월 14일, 불자산악인들이 산에 올랐다. 합동산행과 산상(山上)법회를 갖기 위해서 뭉친 것. 일림산 초입은 아침부터 인근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안산 양산 마산 창원 등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양춘동) 산하 9개 지부산악회원 5백여 명으로 북적댔다.

말(言)이 산을 탄다고 해야 할까? 계곡 입구가 사투리의 향연으로 들썩거렸다. 서울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제각기 말투와 억양은 다르지만, 산에 오를 설렘에 불자산악인들의 얘기 보따리가 술술 풀어졌다. 한데 섞인 정겨운 사투리가 웃음꽃으로 피어났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서 500여명 운집

“날씨가 좋죠잉? 어즈까제 비가 왔는디요?”

“비가 왔었는교? 오늘 날씨가 좋은 걸 보니, 부처님 덕분인 것 같네예.”

일림산을 4시간 동안 종주하는 산행은 지부산악회별로 출발했다. 광주불교산악회가 길을 안내하고, 곧장 서울 부산 대구 · 경북산악회가 뒤를 따라갔다. 좁게 열린 산길을 종종 걸음으로 오르는 모습이 마치 안행(雁行)과 비슷했다.

산행! 불자산악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광주불교산악회 정대석(47) 사무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유행가 가사처럼시 ‘산’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신’이 되지라이. 한발 한발 내딛으면서이 산을 오르면, 헐떡거리는 내 숨을 알아차리게 되지라. 그 때이 번뇌망상에 찌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지용. 이거이 머시당가? 바로 불자산악인이 산을 오르는 이유람시롱.”

산행은 신행과 닮았다. 산을 오르는 일은 불자의 길과 같다. 힘겹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로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가 본래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행행본처 지지발처(行行本處 至至發處). ‘가는 데마다 본래 자리, 이르는 데마다 출발지’란 이치를 이날 산행에서 느껴보는 것이다.

“헐떡거리는 내 숨 알아차리게 되지라”

산 중턱에나 올랐을까?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정상이 손에 잡혔다. 하지만 정상은 멀었다. 손에 잡힐 듯 보이는데, 아무리 가도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과 가는 것은 전혀 달랐다. 가까이 보인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산은 그렇게 쉽게 정상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상하지예. 산은 겉으로 순한 양 같지만도 속은 ‘음흉’하지예. 마치 선문답을 하는 선승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능교? 알음알이로 신행한다고 대들었다간 큰 코 다치지예. 산행도 마찬가지라예.”

양산불교산악회 이영희씨(50) 말이 지친 발걸음에 채찍이 됐다. 분심이 솟았다.

파란 하늘 후불탱화 삼아 산상서 법회

그렇게 오른 일림산 정상. 누가 뭐라 할 것이 ‘야호~ 야호~’ 환호성을 질렀다. 산은 정직하게 메아리로 회답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회원들은 산상법회(山上法會)를 봉행했다.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여는 법회. 파란 하늘은 후불탱화가 되고, 넓은 바위는 불단이 돼 줬다. 산악회원들이 봉독하는 <반야심경>은 ‘금강의 메아리’가 돼 온 산을 휘감고 돌아왔다. 법열이 느껴졌다.



전남 보성 일림산 정상에서 산상법회를 마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법우애를 나누고 있다.



보랏빛 철쭉 꽃길로 산악불심이 산을 오르고 있다. 멀리 보이는 남해 바다가 눈에 시원하게 들어온다.

산상법회가 끝나고 회원들은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공양을 하고, 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말 그대로 야단법석인 셈이지요. ‘짧지만 여운이 긴’ 법회, 우리 불자산악인들이 매월 산상에서 법회를 통해 신심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 경북불교산악회 권윤기(44) 회장은 산악회를 이렇게 소개했다. 산을 사랑하다 못해 산에 ‘미쳐버린’ 사람들. 산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전국 곳곳에 ‘붓다의 메아리’를 전하고 있는 신행단체다.

산상법회를 끝내고 불자산악회원들은 발길을 산 밑으로 향했다. 깨달음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산행도 정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내려가는 것. 오름과 내려감을 통해 진정한 산행은 완성된다.

산 정상서 울리는 ‘붓다의 메아리’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양춘동 총재는 “산을 오르 내리는 걸음걸음에서 바로 산악불심의 신행이 시작되고 끝이 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산행과 산상법회는 불자산악인들이 신심을 키우는데 지름길이자 신행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9곳 지부산악회 합동산행법회를 계기로, 올 가을에 특별한 산행을 갖는다. 9개 대전지역 불교산악회와 함께 산에 오르며 전국의 산악불심을 한데 모은다는 것. 이를 통해 그간 영호남 불자산악회의 친목도모는 물론, 충청도, 경기도 등의 불자산악회들과도 화합을 다질 요량이다.

또 최근 창립된 안산불교산악회가 주축이 돼 ‘외국인 이주노동자 초청 합동산행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지역과 인종간 벽을 허물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다.

글 · 사진/전남 보성=김철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4년째 무료투약 봉사활동”

불자약사보리회원 박란희 약사

불교를 믿고 실천한다는 것. 당연했고 자연스러웠다. 일부러 믿는다고 생각한 적 없고,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고 행동으로 옮겼다. 약국 손님들이 까탈부리고 때로는 무례해도, 약을 찾는 손님의 간절한 그 마음만을 보고 헤아렸다.

그래서일까? 서울 서대문구 훈민약국 박란희 약사(48 · 법성도)는 약국 생활 24년에서 불교가 ‘마냥’ 재밌고, ‘그냥’ 좋았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조차도 꼼짝없이 약국을 지켜야했지만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여래 부처님을 닮고자 신행하는 박란희 불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처방전을 들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대충 짐작이 가요. 감히 ‘중생의 아픔을 쓰다듬어주시는 약사여래부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국생활이 지루할 수 있겠어요?”

박 약사의 행동반경은 온전히 약국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불자약사로서 시선은 언제나 밖으로 돌려져 있다. 4년 동안 해온 무료투약 봉사활동이 바로 그것. 불자약사보리회 약사불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서울역과 종묘를 누빈다. 거리에 쏟아진 실직자와 노숙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상담, 건강 체크, 수지침, 문진도 병행한다.

하지만 박 약사에게도 일에서 겪는 갈등은 있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박 약사는 ‘내가 어디가 아프니, 이 약 달라’며 일방적으로 약을 주문하는 손님의 태도에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그래도 내가 약사인데….’ 도저히 용납도 이해도 할 수 없었다.

“그만 두고 싶었지요. 환자의 병세에 맞게 약을 지어주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실망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부처님 말씀이 툭 떠올랐어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이었지요.”

약사로서 가졌던 자만심. 결국 문제는 환자 중심의 약을 짓지 않았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박 약사는 곧장 마음을 고쳐먹었다. 환자 스스로 몸을 아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면서, 높고 크기만 했던 아상을 조금씩 녹여냈다. 13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천수경> 1독, 진언염송 등 30분씩 올리는 약국에서의 아침 예불을 통해서였다.

“불상만 없지 이 약국이 제겐 법당이나 다름없죠. 천수경 한 번 읽고, ‘옴마니반메훔’을 10분간 염송하고…. 또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 수행에서 겪는 경계들도 만나게 되고요.”

약국은 끊임없이 손님들이 들고 나갔다. 수많은 손님들과 박 약사 사이에서 오가는 말과 행동에 거슬림이 없다. 부딪침 없이 물 흐르듯 조제상담이 이어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 약사는 손님이 원하는 마음 그대로를 읽어낸다. 20년 넘게 불자약사로서 그랬던 것처럼, 박 약사의 낯빛은 편안한 마음자리를 내어 보이는 약사보살의 얼굴빛이었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2> 마군의 경계는 실체가 없다

공부를 하다보면 마(魔)가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로 나타나서 방해를 놓기도 하는데, 이것을 마군(魔軍)이나 마구니 경계라고 부른다. '마'는 범어 māra를 소리 그대로 표현한 '마라'를 줄여서 말한 것인데, '생명을 빼앗다' '방해하다'의 뜻이다.

또 '악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빼앗으려고 수행자의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귀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마음공부 하는 데에 있어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경계는 모두 '마'라고 할 수 있다. 이 '마'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내마(內魔)와 바깥 경계에서 오는 장애인 외마(外魔)로 나누기도 한다. 내마는 '사마'(死魔) '음마' '번뇌마'를 말하고 외마는 '천마'를 말한다.

사마는 '죽음'이라는 마구니를 말한다. 땅과 물, 불, 바람이라는 네 가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죽게 된다. 죽게 되면 '수행자의 목숨과도 같은 부처님의 지혜[慧命]'를 닦아갈 수 없으니, 이 '죽음'을 마구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머지 음마, 번뇌마, 천마를 <선가귀감> 20장에서 설명한다.

起心 是天魔 不起心 是陰魔 或起或不起 是煩惱魔 然我正法中 本無如是事

'천마'란 신통이나 좋은 경계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음마'란 마음이 무거워져 가라앉게 되는 나쁜 경계이며, '번뇌마'는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가 번갈아 일어나면서 중생의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바른 법 가운데에는 본디 이런 마음들이 없다.

많은 경이나 논에서 천마와 음마와 번뇌마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 그 뜻을 살펴 정리해 보겠다. 천마는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알면 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협박과 유혹으로 공부를 방해한다. 무서운 용이나 범으로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늦은 밤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또 공양을 후하게 올리는 큰 시주로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수행자를 집적대어 화를 내게 하거나 근심거리를 잔뜩 안겨다 주기도 한다. 전생에 지어놓은 잡스런 복덕으로 삿된 견해를 갖추게 된 천마는 부처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魔, 몸과 알음알이의 마음작용

실체 없어 관하면 경계 사라져

음마는 덧없이 무너질 몸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수행자의 공부를 방해한다. '음(陰)'은 '오음(五陰)'을 줄여 말한 것이고 오음은 '오온(五蘊)'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음마는 '오음마'나 '오온마'라 부를 수도 있다. '오(五)'는 다섯이고 '온(蘊)'은 쌓아놓았다는 뜻이니, '오온'은 다섯 가지 내용물을 모아놓은 무더기이다.

물질을 모아놓은 무더기인 색온(色蘊), 바깥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수온(受蘊), 수온을 마음속에 떠올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을 그려나가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상온(想蘊), 상온(想蘊)을 통하여 어떤 알음알이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행온(行蘊), 행온을 통하여 어떤 알음알이 판단을 내리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식온(識?) 이 다섯 가지 내용물을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은 결국 중생의 몸과 알음알이 마음작용을 말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데 방해되므로 마구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받는 중생의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몸이 있으므로 받게 되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이 있고, 좋아하는데도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의 괴로움이 있으며, 원한과 증오심이 일어나기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만 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의 고통이 있고, 마음대로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구불득고(求不得苦)의 괴로움이 있다.

이런 괴로움이 많아지는 것을 오음성고(五陰盛苦)라 한다. 이 몸과 알음알이 마음작용은 무상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 중생은 있는 것이라고 집착해 오온에 구속되니, 이 오온이 마구니가 되어 온갖 괴로움이 다 여기에 꼬여든다.

번뇌마는 중생들이 갖고 있는 온갖 번뇌를 마구니로 표현한 것이다. 온갖 경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비하고 분별하며 사는 중생들은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여러 경(經)과 논(論)에서 네 가지 마구니 경계를 없애는 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뜻을 간추려 말하겠다.

첫째 모든 법이 불생불멸임을 알면 사마(死魔)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교만한 마음을 없애면 천마가 끼어들 틈이 없다. 셋째 중생의 몸과 마음은 '허깨비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관하면 음마(陰魔)를 없앨 수 있다. 넷째 모든 시비와 분별이 공성(空性)인줄 알면 번뇌마를 없앨 수 있다.

서산 스님은 마구니 경계에 대해서 "모든 경계에 무심한 것이 부처님의 도이고 알음알이로 분별하는 것은 마(魔)의 경계이다. 그러나 마군(魔軍)의 경계는 꿈같은 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수고롭게 더 따지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산통

우리네 일상어로 녹아든 불교용어는 참으로 많습니다.

'다 된 일인데 산통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의도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산통'이란 말을 씁니다. 국어사전에도 '점치는 데 쓰는 산가지를 넣는 통'이라면서 '다 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다' 또는 '다 되어 가는 일이 뒤틀리다'는 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통 깬다'의 본래 의미는 '격렬한 논쟁'을 나타냅니다. 산통은 강원(講院)에서 사용했던 물품으로 산(算)가지를 통(筒)에 넣은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에서 강의할 때와 의견을 피력하는 발의(發議) 순서를 정할 때 이용했던 물건입니다. 대중 가운데 소임자를 뽑고 대중의 의견을 정리할 때도 사용했던 용품이지요. 생과 사를 놓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면, 격렬한 토론에 불이 붙겠지요? 그렇게 되면, 산통을 집어던질만큼 커다란 논쟁이 벌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통 깬다'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제2부 43강 지금까지 <금강경>이 한 이야기

<금강경> 6장에 들어서기까지 그동안 꽤 오래 걷고, 또 해잘이 심했다. 어디쯤 왔고,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동안 살핀 <금강경>을 다시 정리해 본다.

1.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법회가 열리기게 된 경위"

– 붓다는 '위대한 거지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다. 설법의 무대는 여느 날처럼 탁발을 다녀오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일어났다.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붓다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의 정사에, 1,250명의 많은 수행자와 함께 계실 때였다. 밥 때가 되어, 붓다께서는 옷을 걸치고, 발우를 들고,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 집집을 돌며 탁발을 하셨다. 그런 후 거처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옷과 그릇을 거둔 다음, 발을 씻고, 자리를 펴서 앉으셨다.

2. 제2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수보리, 일어나 가르침을 청하다"

–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 설법을 청했다. 그의 질문은 간절하다. "위대한 정신의 영웅이시여,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삶에 진정 필요한 기술(ars vitae, art of living)을 어떻게 습득해야 합니까."

時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請. 當爲汝說.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世尊, 願樂欲聞.

이때 수보리 어른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가사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 공경하면서, 붓다께 사뢰었다.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如來)께서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고, 또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그 마음을 제어해야 하겠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훌륭하다. 네가 말한 대로, 여래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고, 또한 잘 이끌어 주고 계신다. 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를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반드시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제어해야 하느니라." "그리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이것이 대승이 가르친 핵심이다!"

– 붓다의 대답은 차원이 하나 높다. 그는 계율 준수나, 가부좌 등 자세 갖추기, 혹은 심리적 대응치료 등을 말하지 않는다. "보살, 즉 정신의 영웅에게는 자의식이 없다! 그런 사람이 되라. 자신을 넘어서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그러나 유의해라. 남을 위한다는 턱없는 우월과 자만을 갖지 않도록."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붓다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일렀다. "위대한 사람들(보살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킨다. 모든 중생들, 즉 알에서 나는 것, 자궁에서 나는 것, 젖은 곳에서 생긴 것, 변이로 생긴 것, 그리고 신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할 것 없이, 이 모든 생명을 '찌끼 남김 없는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여 구제하겠다고. 그러나 이처럼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해도, 기실은 어느 생명 하나도 구원한 적이 없다. 왜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 '자아'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 있는지 알려면 숲 벗어나야



4.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완전한 행동에는 토대가 없다!"

– 붓다는 이어 말한다. "무엇보다 완전한 행동(般若波羅密)을 배워야 한다. 이기적 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가식 없이 사는 법을. 삼륜청정(三輪淸淨), 너희들은 세상에 공짜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녀라. 보상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너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復次, 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主聲香味觸法布施. 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但應如所敎住.

"또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어느 경우이든 반드시 '토대(住)'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형체에 토대를 두지 않고, 또 소리, 냄새, 맛, 접촉, 관념에도 토대를 두지 않는 보시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처럼 보시해야 하나니,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보살이 자아와 그 투사의 토대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일 수 없이 무한할 것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그럼 동서남북과 그 사이 사방, 그리고 상하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토대 없는 보시로 얻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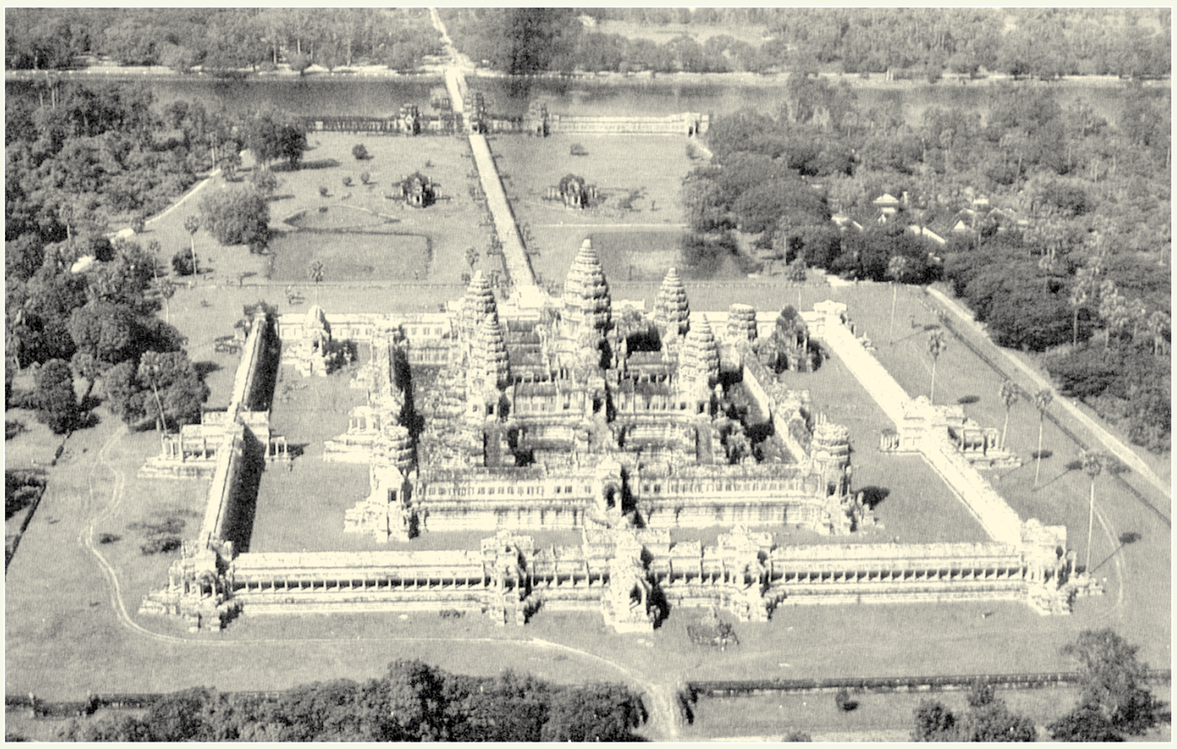
5. 제5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사태(理)를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

– 붓다는 덧붙인다. "무엇보다 환상을 갖지 마라. 자아의 환상은 물론이고, 더욱 붓다와 여래에 대한 환상조차 갖지 마라. 내 분명히 말하노니, '여래는 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네가 기다리는 님은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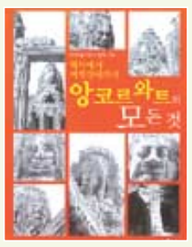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를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깨달음의 증거로) 말씀하신 육신의 표징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렇다!) 무릇 모든 표징은 다 실재하지 않는 환상이니, 만약, 일체의 표징이 순전히 의식이 구성한 이미지일 뿐임을 깨달으면, 그때 여래를 보게 되리라."

6. 이로써 두 번의 설법이 끝났다. 한번은 붓다의 탁발과 식사, 그리고 설거지(1장)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일상을 영원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2-5장).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 번째 부연설법이 이어진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앙코르와트 전경. 왕코르와트 항공사진과 아래 만다라를 비교해 보면 그 구도가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와트의 모든 것
이우상 지음
푸른 역사 | 1만9500원

소설가 이우상씨 앙코르와트 구석구석 누비며 장엄한 역사와 유적 담아내

"왕궁의 중앙에는 황금 탑 바욘이 우뚝 섰고 주변은 12개가 넘는 작은 탑들과 수백 개의 돌로 만든 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두 마리의 황금 사자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황금 다리가 동쪽으로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여덟 개의 황금 부처가 돌로 된 방을 따라 늘어서 있다. 왕궁 위에는 또 다른 황금 탑이 있으며 이 탑들을 보고 외국 상인들이 이르기를 참으로 부유하고 장엄한 앙코르 제국이라고 감탄하였다" –주달관 <진랍풍토기> 중에서

소설가인 이우상(대진대 겸임교수 · 본지 논설위원)씨가 5년전부터 수차례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뒤 역사서와 여행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앙코르 와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앙코르 와트의 모든 것>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기록은 왜 많은 사람들이 '앙코르' '앙코르'를 외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책에는 저자가 앙코르를 여행하며 직접 찍은 유적지의 사진들을 곳곳에 배치하였고, 성학(진선여중 교사) 화백의 그림 16장을 화보 형식으로 맨 앞부분에 꾸며놓았다. 저자의 사진은 유적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와 사진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성학 화백의 그림은 독자들에게 사진과는 또 다른 느낌의 앙코르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보통 역사서와는 다른 좀 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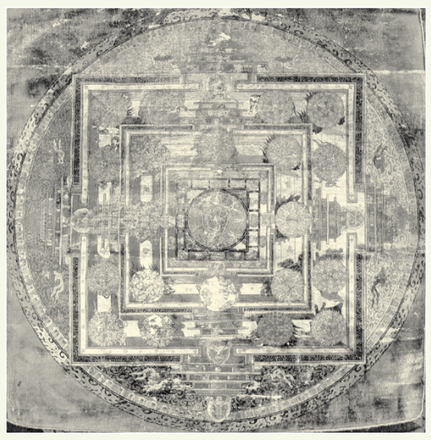
또한 유적지에 관한 정보나 혹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꼭지가 끝나는 부분에 박스로 처리했고, 이것과는 별도로 그 유적지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 어딘지,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따로 표시해놓아 독자들이 역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본문의 오른쪽에는 캄보디아의 역사와 앙코르 왕국의 역사가, 왼쪽에는 앙코르 구석구석을 누빈 저자의 여행담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앙코르의 역사와 앙코르 여행에 대한 지식을 함께 얻을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앙코르 가는 길을 시작으로 앙코르 중심부와 관세음보살의 미소가 보이는 바욘을 순례한다. 또 코끼리 부대 열병식을 볼 수 있는 코끼리 테라스와 영광과 치욕을 한 몸에 안고 앉아 있는 문둥이 왕 테라스, 킬링필드 사원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어 동부 앙코르로 들어가 따 쁘롬에서 벵골 보리수의 반란을 목격하고, 3000 궁녀와 함께 목욕을 한 쓰라 쓰랑, 머리를 칭칭 동여맨 탑을 볼 수 있는 반띠아이 끄데이를 둘러본다.

북부 앙코르에서는 신성한 검을 갖고 있는 쁘리아 칸, 수반 위의 연꽃이 아름다운 니악 뽀안, 게으른 순례자를 위한 사원 따 솜을 거쳐 앙코르 남서부 지역에서 인공 호수와 섬 그리고 그 속의 사원인 서쪽 호수와 서 메본, 소멸 혹은 풍화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프놈 끄롬, 앙코르 제국 그 에너지의 근원이었던 똔레삽 호수까지 방문한다.



룰루오스 지역에서는 고색창연함과 은빛 눈의 고승 그리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롤레이, 북동부 앙코르에서는 천 년 동안 목욕하고 있는 비슈누를 볼수 있는 끄발 스피언, 공룡 발자국이 선명한 프놈 꿀렌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듯 하다.

이밖에도 웬지 허전한 씨엠리업 국제공항, 시아누크 전 국왕과 시하모니 국왕, 캄보디아의 역사, 캄보디아 알기 통계 요약, 앙코르 이해를 위한 용어 모음, 일정별 앙코르 스케줄 짜기등 앙코르 이야기가 담겨있다.

앙코르에 내리쬐는 강한 태양빛과 크메르 루주를 상징하는 붉은빛이 담긴 이 책을 읽고 앙코르에 대해, 오늘날의 캄보디아에 대해 이해하고 그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선조들의 지혜 엿볼 수 있는 우리 전통가옥



이지누의 집 이야기 삼인출판사, 이지누 지음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잠잘 곳이 있어야 한다. 예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3가지의 기초수요 중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으나, 인간의 은신처인 주(住)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녔던 집의 의미와 '사람없는 집'으로 불리우는 현대적 집과의 차이를 저자의 풋풋한 추억들로 맛깔나게 설명하고 있다. 멀게는 단군할아버지부터 가깝게는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집에 대한 모든 생각의 근원은 거주자, 즉 인간에 있었던 반면,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지금의 집은 자본주의의 특성상 잠을 자기위한 공간이 아닌, 경제적 재화 혹은 상품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주거공간을 '인간척도(human scale)'와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점점 인간미는 없어져 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린시절의 집을 되돌아보니 단지 추억이라는 말로 던져두기에는 아쉽다는 저자의 말처럼, 콘크리트 벽돌로 꽉 막힌 집들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반성의 기회를 선사한다. (cohan1979, book.naver.com/bookdb)

가부장 권위가 사라질때 아버지들의 진짜 속마음은?



아버지를 위한 변명 출판사 리더스북, 김병후 지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중에 농경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는 점차 사라져 가고,이른바 핵 가족 화 되어 가는 과정속에 부모의 설 자리가 떠 밀려가는 경향이 짙어 졌다.

그런 현실에 업친데 덥친 격으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는 세대가 되면 건강의 적신호와 함께 직장에서의 명퇴등으로 고난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아버지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심하면 가족들에게까지 이해받지 못하는 보통의 아버지들이 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상담 창구등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좋은 아버지들은 여러모로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중년 아버지들을 위한 힘찬 조언을 곁들인 자기 반성적 성격의 심리치료 상담사례서라고 할수있다.

책속에는 사춘기 자녀들의 이유없는 반항과 끝없는 도전을 수시로 받고 있는 아버지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과 자녀들의 반항에 직면한 아버지들의 태도를 분석 해보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진짜 속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세심하게 캐내어 밝혀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mhy311,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불과 몇 분이나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기분을 돋우거나 자기 자신을 잊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웃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단 일분만이라도 불편함을 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온갖 종류의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반면에 불행을 잊지 못해 이것에 계속 집착한다면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들이 모두 봉쇄되고 만다.

따뜻한 인정미가 그리 많지 않았던 니체조차도 불편함의 원인을 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니체가 말했듯이 "행복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다." 역사를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심란해지기 쉽다. 과거가 현재를 대신하고 미래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결코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 잊는 자는 치료된다. –<철학상담소>355~358쪽에서, 북로드, 루 매리노프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인도성지순례기 잇따라 나와

현장의 목소리로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되새겨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도성지순례기가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세계 5대 문명발상지이며 부처님의 탄생지이고, 활동무대였던 인도. 그런만큼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가보고 싶은 곳일 것이다.

최근 월주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인도성지순례기 상하>, 이상규 변호사가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이학종 법보신문 대표가 <인도에 가면 누구나 붓다가 된다>를 펴냈다.

월주 스님이 펴낸 **<인도성지순례기>**(이화문화출판사, 각권 2만5000원)는 1985년 2월 인도를 순례한 후 2005년 1월 인도의 불교8대 성지와 그 외 불교유적지, 간디선생 기념유적지를 두루 순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부처님의 행적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 책에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성장지 카필라국, 출가수행지 마가다국, 전법지 바라나시,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중심으로 영축산 일대 죽림정사와 온천장 빔비사라왕궁터, 기바의사의 봉사지, 나란다 불교대학과 현장기념관이 소개된다. 이어 제1결집지, 제2결집지, 스라바스티, 기원정사, 앙굴라마라의 집, 수닷다 장자의 집, 비구니 사찰등 유적지, 엘도라, 아잔타, 산치대탑등 20대 성지를 안내한다.

또 간디의 발자취와 인도의 어른 암베드카드, 크리슈나 성지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규 변호사가 쓴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불광출판부, 1만2000원)는 부처님의 초기경전인 아함경을 곁들여 일반여행서와 차별을 두고 있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동산, 왕자로 생활한 카필라성, 출가하여 6년동안 고행한 고행림, 정각을 이룬 보리수까지. 이어 녹야원에서의 초전법륜을 시작으로 45년간 중생교화와 제도에 힘쓴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게 한다.

이밖에도 인도불교의 현황과 아잔타 석굴, 담불좌 석실사원, 보루부드르 사원 등 세계적인 불교유적의 소개도 곁들이고 있다.

이학종 법보신문 대표의 **<인도에 가면 누구나 붓다가 된다>**(오래된 미래, 9800원)도 네팔과 인도의 불교성지를 순례하며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 현재적 의미를 조명한 성지순례기.

이 책에서는 부처님이 한평생 밟아간 실제 여정과 중첩되어 에세이(순례기)와 소설(일대기)의 특성이 교차되면서 펼쳐진다.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교 발생초기의 진정한 역사의 가르침, 부처님의 참모습,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한자용, 민족사)= 백척이나 되는 낭떠러지 끝에서 어떻게 하면 한걸음 한걸음 걸을 수 있을까. 수국사 주지를 지낸 자용 스님이 펴낸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는 백척간두의 허공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걷고 있는 사람들의 불교이야기 70여편을 모은 불교 설화집 성격의 책이다. 이 책에는 불교를 전래한 이차돈의 순교에서부터 80년대 후반 속초시 김혜월심보살의 영험 이야기, 성철 스님과 관련된 일화를 가려 뽑았다. 책의 내용은 불보살의 신비로운 영험으로 재난을 모면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금쪽같은 불교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 **무상속의 영원성**(이정숙, 학수림)= 한국불교여법사단 단장인 이정숙씨가 펴낸 <무상속의 영원성>은 선교를 탐구하고, 법단에서 행한 설법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책은 이정숙 법사가 우리나라 법화사상의 대가인 이법화 스님과 불연을 맺고 가르침에 따라 용맹정진하여 30여 성상을 교화의 일선에서 헌신한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은 '묘법연화세계의 문은 넓다' '묘법연화경 삼계의 근본원리' '묘장엄왕의 가르침' '법화경 불사로 아버지를 천도하다' 등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있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의윤 총재는 "해박하고 주옥같은 내용은 정법포교의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며 교화 현장의 법사와 신행에 정진하는 전국의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 **선종사찰 봉은사지**(사찰문화연구원)=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의 역사와 문화, 인물, 문화재 등을 다룬 책. 일반인들에게 봉은사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사진 자료를 배치하고, 문장도 평이하게 서술했다.

특히 '봉은사를 노래한 옛시편'을 새로 추가해 주변 경치와 사찰의 장엄을 노래한 문인과 시인들의 한시를 소개하고 그에대한 번역과 해석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봉은사를 연구하려는 연구자와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역사 및 문화재 서술에 있어서 다양한 원문자료를 인용했다.

1997년 출판된 <봉은사지>의 개정증보판으로 그동안 변화된 가람의 건물을 수록하고 주요인물편에서는 한글번역사업을 한 석주 스님과 대학생 수도원 활동을 한 광덕 스님을 새롭게 추가했다.

방황하는 10대들아 부처님 지혜 들려줄게

친구, 가족, 음식, 학교등을 대하는 방식과 자신 안의 불성을 일깨워 행복하고 평온해지는 방법까지 10대들의 고민을 조언해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프랜츠 맷캐프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종교학과 교수가 지은 <배낭속의 부처>.

1부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기본적인 가르침을 돌아본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기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10대들에게 있어 삶의 전형적인 장면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불교적 지혜를 적용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마지막 3부는 '불교의 길 가기'이다. 부처님은 삶을 길로 보았다. 그 길을 가는 방법과 기본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배낭속의 부처
프랜츠 맷캐프 지음
솔바람 | 9800원



송광사 강원 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담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스님들 | 법공양 | 9000원

먹물옷에 고무신 신고 장작 패 아궁이에 군불 지피며 경전 공부하랴 예불하랴 울력 하랴 빼곡하게 짜여진 일상. 송광사 강원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지대방 이야기>의 개정판이 나왔다.

<지대방 이야기>는 송광사로 출가한 스님들이 대학처럼 4년제인 강원에서 생활하는 일상이 꾸밈없고 담박하게 담겨진 수필집이다. 절집 마당만 돌다 주볏주볏 들어가지 못했던, 멀찌감치 바라만 봐야했던 스님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님들은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대중 생활에서 맡은 소임을 하며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생활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간다. 그러나 발우를 펴면 공양간이 되고 경상을 들여 놓으면 강의실이 되고 이부자리를 펴면 그대로 잠자는 곳이 되는 대중방에서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 갓 출가한 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담은 날마다 쌓여 가기 마련이다.

또 그만큼 돈독해지는 도반들의 정도 이 책에 흐르는 따뜻함을 더해준다.



불교와 생태학 관계를 밝힌다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 동국대출판부 | 2만5000원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는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이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과 함께 '불교의 생태학적 측면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을 친생태적인 학문의 주요테마로 설정하여 불교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과 실천을 불교의 상생과 화해의 정신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 순환적 과정 속에서 인식하고 생태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내 마음의 죽비소리
이우빈 엮음
경덕 | 9500원

내겐 스승 아닌게 없네

"나에게 스승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대를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목소리입니다. 방편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개어있는 마음이 곧 수행의 방법입니다. 단지 잡념이 찾아드는 순간 지금 하는 일의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인 이우빈씨가 엮은 불교카툰집 <내 마음의 죽비소리>는 생활속에서도 수행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평범한 생활 속의 참선을 몸으로 실천하며 느낀 여러 가지 단상들을 배종훈 씨의 짤막한 만화와 함께 그림에 어울리는 경구를 실어, 보고 읽고 생각하게 해준다.

생활의 모든 대상이 곧 화두이며, 부딪치는 모든 상황들이 또하나의 방편이다.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깨달아 가는 과정이 곧 마음공부라는 것이다.

본지 20면에 '행복동 사람들'을 연재중인 배종훈씨의 그림은 경쾌한 맛과 그윽한 교훈을 함께 던져준다. 간결한 구도와 차분한 색채로 묵직한 가르침을 소화해 내는 배씨의 그림은 이 책의 별미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민족사, 석지현외, 75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티벳사자의 서	정신세계사, 파드마삼바바, 2만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 스님, 4000원
· 화두참선	우리출판사, 이계묵,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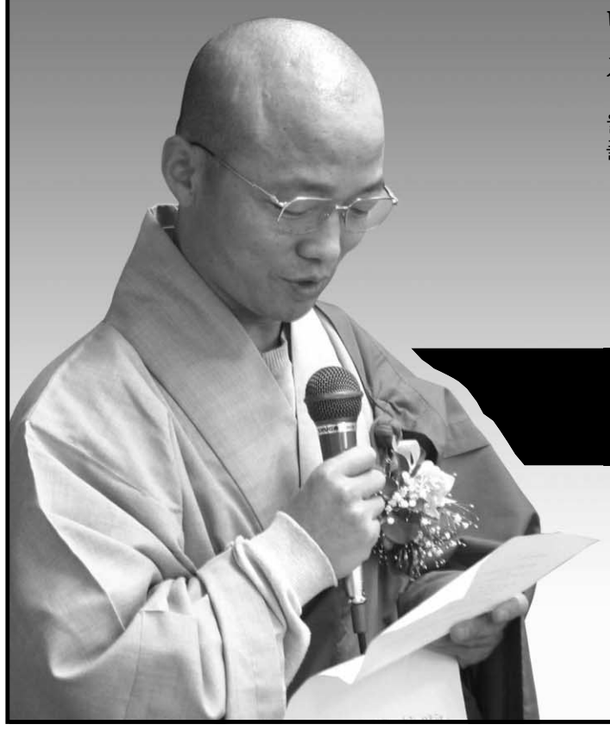
도서주문 (02)2004-8220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쉽고 재미있는 경전공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20분간 ~~
전국 BBS 불교방송 절찬리 방송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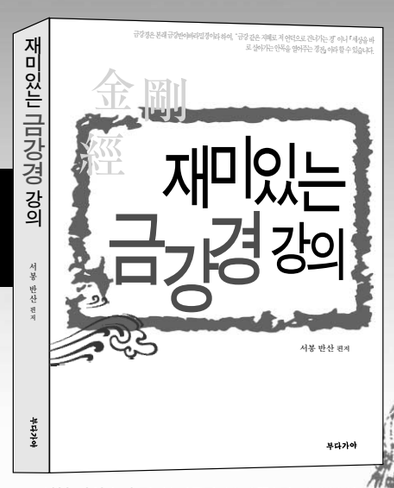
월운스님의 전강傳講을 받아 맑은 혜안을 가지신 반산스님의 말씀으로 어느새 우리들 마음속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릴 것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인연공덕을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재가불자들이 서로 읽으며 공부할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를 펴낸다 하여 한 번 읽어보니 그 내용이 자못 충실합니다. 일반 불자들이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손색이 없음은 물론,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 월운스님 추천사 중에서 -



서봉 반산스님 편저/ 신국판 / 310쪽/ 값 12,000원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렌즈로 본 세상을 말한다



관조 스님 사진展 '깨우침의 빛'

27일 '관람객과의 만남' 양평 와갤러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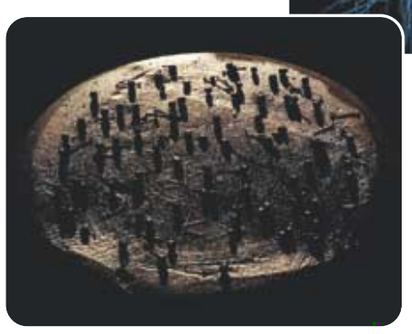


수행자가 본 '깨달음의 찰나'
30년간 작업한 70여점 선봬
"사진 보고 마음 맑아지길…"

양평에 위치한 사진 갤러리 '와'에서 열리고 있는 관조 스님의 사진전에서는 '윤회'와 '무상'을 담은 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승려 사진작가 1세대, 관조(觀照) 스님. 1980년 <승가1>이라는 작품집으로 아름다운 깨달음의 찰나를 담은 단아한 사진을 선보여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생사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리 속에서 그 내면의 풍경을 단아하고 고요하게 렌즈에 담아냈다. 스님의 사진은 국내 최초로 선(禪)수행자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본 명상사진이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란다"는 목적의식을 잊지 않으며 한길로 30년간 정진해 온 관조 스님은 렌즈를 통해 무엇을 보고 말하고 관조(觀照)했을까?

5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양평 사진갤러리 와瓦wa에서 관조 스님을 만나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만남은 관조 스님이 사진으로 보여준 당신의 명상세계로 초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진갤러리 와瓦wa에서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깨우침의 빛' 관조 스님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6월 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스님이 지난 30년간 찍어왔던 명상사진 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사진 가운데 하나인 솔잎과 나뭇잎 사진. 스님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 어느 날 나무 밑 바위에 붙어있는 솔잎과 나뭇잎에서 윤회를 봤다. 왜 윤회일까. 솔잎과 나뭇잎이 싹으로 나왔다가 생을 다해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거름이 될 모습이기에 그것은 바로 생과 사요, 윤회인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치 고요한 산사에 든 것 같은 편안함과 봄날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마련됐다. 소소한 자연에서 나뭇잎 하나, 풀잎 하나,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스님의 생각은 그대로 사진에 담겼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전시회장에 '내 한마디 하고자 하니/ 생각을 끊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잊어라/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았으니/ 봄이 오니 풀이 절로 푸르구나'라는 게송을 내걸어 나름의 관람포인트(?)를 제공한다.

1960년 지호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한 관조 스님은 선방에서 가부좌를 트는 대신, 사진을 수행이자 포교의 방편으로 정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스님의 '사진 수행'은 동료 스님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2년 뒤인 1980년 첫 작품집 <승가1>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스님들의 생활을 렌즈에 담아내던 스님은 세상만물이 모두 부처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자연에 렌즈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스님은 유려하지 않으나 시선과 마음을 잡아끄는 은은한 자연풍광과 함께 속세의 미려함보다는 깨달음의 맑음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부산 범어사에 머물고 있는 관조 스님은 <열반> <자연> <생, 멸, 그리고 윤회> <님의 풍경> <깨우침의 빛> <한줄기 빛> <꽃문> <한국의 꽃살문> 등의 사진집을 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꽃살문>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벽 · 안장헌 · 한석홍씨 등 문화재 전문 사진가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를 펴내기도 했다.

"좋은 사진 한 장은 깨달음의 순간을 잡아채는 것"이라는 관조 스님을 만나러 이번 주말 떠나볼까. (031)771-545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특별한 만남

클래식과 시조창

니르바나 템플스테이 음악회

템플스테이와 클래식 그리고 시조의 만남.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5월 27일 오후 8시 부안 내소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템플스테이-내소사의 봄'을 개최한다.

사찰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 연주와 더불어 국악과 시조 낭송이 이어지는 템플스테이 음악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피아노 5중주 무대는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의 물결'로 시작해 김성태씨의 '대금가락' 임소아씨의 시조창 '염불 도드리' 최여울씨의 25현 가야금 '한오백년' 강형진 단장의 '바람부는 산사' '마하반야바라밀' 등이 연주된다.

이날 공연에는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소속 이인자 서공식 시조시인이 '내소사에 피는 꽃' '소리 없는 말씀' 등의 시조 낭송으로 색다른 세계를 맛볼 수 있다. (02)415-2599

서도소리와 범패

이춘목 선생 · 지수 스님 한 무대

광명시민회관에서 범패와 서도소리가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이춘목 선생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 졸업하는 지수 스님이 함께 '서도소리와 범패의 만남'을 5월 25일 저녁 7시 강릉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지수 스님의 석사 학위 졸업 공연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 평생 서도소리만 해왔던 이춘목 선생이 범패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지수 스님은 천수바라무와 향화게를 전통의식 그대로 재현한다. 징과 북가락으로 반주를 넣는 법고무는 반주 음악의 가락을 바꾼 창작물로 무대에 올린다.

지수 스님은 "범패 소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도소리를 공부했는데 이런 특별한 무대에 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02)2680-2564

강지연 기자



금동삼존불감(국보 제73호).

고르고 고른 최고의 명품

'간송 탄생 백돌 특별대전'

간송미술관 6월 4일까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금동삼존불감(국보 제73호), 혜원 신윤복의 '혜원전신첩(국보 제135호)'등 국보를 한 자리에서 보자.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관장 전영우)이 간송미술관을 세운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1906~62) 선생의 탄신 100돌을 맞아 '간송 탄신 백 주년 기념 특별대전'을 개최한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넘어가는 우리 문화재를 사재를 털어 막았던 간송 전형필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스타 컬렉터로 유명하다.

금동삼존불감 등 100점 엄선

5월 21일~6월 4일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간송미술관의 명품 100선이 전시장을 빛낸다. 100점의 명품들은 국보 12점, 보물 10점 등을 포함해 도자기 그림 글씨 불상 등 각 분야별 최고의 작품들. 간송미술관의 70번째 전시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간송 소장품의 전모를 보여주기 위해 고르고 고른 최고의 소장품만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청자색 바탕에 창공을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이 아름다워 '천학매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青磁象嵌雲鶴文梅甁 · 국보 제68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국보 제72호) 훈민정음 원본(국보 제70호), 단원 김홍도의 '마상청앵(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듣다)', 혜원 신윤복의 풍속도를 모은 '혜원전신첩'(국보 제135호)과 '미인도', 겸재 정선의 '단발령망금강(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다)' 등은 해마다 봄 · 가을에 열리는 정기전 등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었던 명품들이다.

이외에도 청자기린형향로(국보 제65호),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국보 제66호), 청자원형연적(국보 제270호), 청자압형연적(국보 제74호), 청화백자양각진사철채연국초충문병(국보 제294호), 동국정운(국보 제71호) 등이 출품된다. (02)762-0442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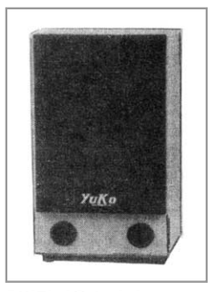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더 웃고 더 즐겁게 살아야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의룡 스님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은 수시로 경전을 읽는다.

새벽 2시.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의룡(義龍) 스님(각황사 조실)의 하루는 시작된다. 깜깜한 밤이지만 서울 불광동 각황사는 환하기만 하다.

"부처님 광명으로 환한 도량이 바로 각황사예요. 그믐에도, 비가 와도 환합니다. 장마가 져도 개울에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요."

터가 좋은 까닭일까. 서울 인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과 깨끗한 산자락을 20여분 걸어 도착한 각황사. 스님은 시원하게 들이키라면서 말간 물을 한 잔 내밀었다. 갈증이 나기도 해서 얼른 마신 물은 차지도 않았고 달콤한 맛이 났다. "각황사 계곡물이 내 건강 비결이여. 물이 좋으니 밥을 지어도 맛있고 차를 달여도 맛있지. 내가 40여년을 한결같이 여기 물을 마셨지만 한번도 탈 난 적이 없어요."

새벽 2시에 시작되는 스님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물었다. "<화엄경> 등 경전을 읽다가, 참선도 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곤하면 잠자고, 심심하면 산한바퀴 돌곤 합니다. 방선이 바로 그거에요."

스님의 건강이 궁금했다. 기자가 허덕이며 올라간 20분 거리 산자락을 스님은 밤에도 손전등 없이 오른다고 했다. 쉬엄쉬엄 경전을 읽는 스님은 시력도 좋아 보였다.

"나이 70이 넘도록 병원 다닐 일도 없고 약 먹을 일도 없으니 얼마나 건강한 것이냐"며 스님은 환하게 웃음 지었다.

건강관리를 묻자 대뜸 직지사에 있을 때 일화를 들려준다. "후원에서 강주스님은 잡숫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들을 했어요. 난 한 가지만 먹어요. 그날 밥상을 보고 김치를 먹어야겠다면 김치로 밥을 먹고, 된장만 먹어야겠다 하면 된장국만 먹습니다."

스님의 소식(小食)은 바로 건강으로 이어졌다. 비결은 다른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늘 웃음 떠나지 않는 '낙행주의자'

"파 마늘 없고 비린 것이 없으면 잘 먹는다"는 스님은 김 두부 된장국을 좋아한다. 스님의 밥상은 소채로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스님을 만난 첫 인상은 천진불 그 자체였다. 스님의 웃는 모습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이상으로 그 모습을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할 정도다. 스님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웃음과 환희의 흔적이다. 주름 하나하나에도 웃음의 자국만이 남아있다.

스님이 자주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낙행(樂行)주의자다. "항상 웃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즐거우니까 웃는 겁니다." 기자와 마주하는 시간 내내 스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스님은 당신의 낙행을 부처님이 견성성불하기 위해 했던 수행법이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고행을 6년 했다는 것은 알아도 낙행 6년 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스님이 말하는 낙행은 바로 부처님이 수행했던 여래선이다. "여래선으로 선정에 드신 부처님은 환희지에서부터 즉 즐거움에서부터 삼매에 빠져들어 성불의 경지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래선 얘기가 나오자 스님의 목소리 톤부터 틀려진다.

괴로우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스님은 그래서 더 웃고 더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님은 몇 년 전 직지사 강원에서 학장을 그만두고 올라왔다. 서른 되던 해에 부처님 광명이 머무는 땅이라는 불광동 지명이 좋아 지었던 사찰 각황사는 책 둘 곳이 마땅찮았다. 그래서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터를 잡아 서재 삼아 미륵당을 꾸몄다.

수 만권에 이르는 스님의 책들은 미륵당에 있다. "미륵당은 편히 쉬는 내 서재에요. '자심난야(慈心蘭若)'라 이름지었죠." 미륵당은 유불선 삼교의 책 수 만권으로 가득 차 있다. 스님은 동양 사상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유교경전들도 다 갖춰놓고 수시로 읽는다.

요즘 스님은 너무 바쁘다. 여기 저기 법문을 청하는 곳이 많아서다. 전국 각지 불러주는 곳에는 모두 발걸음 한다.법문 요청이 많은 주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를 법문하러 다닌다. 전국각지를 다니는 스님의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 사찰은 어딜까.

"욕심만 버리면 다 극락세계"라는 스님의 대답에 갸우뚱했다. 어느 절이든 다 좋다는 스님은 정작 절 구경은 많이 안다니는 편이라고 한다.

단풍이 아름답다는 내장사도 안 가봤고 백양사는 일이 있어서 들리기는 했지만 그나마 밤이어서 풍경을 볼 틈이 없었다고. 경치 좋다는 설악산도 안 가봤다는 스님이다. "앉아서 다 보는데 봉우리가 높고 낮고, 어느 절의 환경이 수행에 적합한지 직접 찾아 다니면서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스님의 결론이다. 가본 절 중에는 의정부 소요산 자재암이 가장 좋았다고 스님은 말한다.

길도 없는 곳에 절 짓고 정진

산책에 나서는 스님은 꼭 불진(佛塵)을 든다. "평소에도 불진을 자주 들고 계시냐"는 질문에 산책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닌다는 답변이 나온다. "사실 이 근처에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불진으로 휘휘 휘두르면서 파리나 쫓지." 천연덕스러운 스님의 말투에 절 마당에 있던 신도들과 웃음꽃이 한바탕 피어오른다.

밤 9시가 되면 의룡 스님의 하루는 끝이 난다. 발뺀으면 꽉 차는 조그마한 방에서 스님은 5시간 남짓 자는 것도 길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가끔 스님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어기는 날이 있다. 고전 프로그램 특히 사극을 좋아하는 스님이 MBC 드라마 '신돈'을 보기 때문이다. 스님은 신돈을 요승이라고만 보지 않는다. 고려말 개혁 의지를 불살랐던 그를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불 꺼진 스님 방을 뒤로 해도 여전히 각황사는 환했다. 예전에는 각황사까지 가는 길이 없었다고 한다. 스님이 절을 지을 때만 해도 계곡을 따라 바위를 밟으며 발이 젖도록 다녀야만 했다. 길도 없이 다니던 곳에 스님은 절을 짓자마자 오솔길을 만들었다.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내리며 다지고 또 다진 길이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솔길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개울로 다니던 것을 이 절을 지은 후 다음 해에 오솔길을 냈어요. 울도 담도 없으니까 전체 계곡이 다 각황사 도량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각황사에 오를 때는 그 길이 스님이 닦은 길이라는 것을 몰라 그저 아름다운 풍광에만 감탄했었다. 사실을 알고 난 후 내려오던 길은, 스님이 40년 전 만들었다는 그 길은 마치 극락세계를 다녀오는 길인 듯 감동스러웠다.

다시 뒤돌아본 길 끝에서 뵌 스님의 모습에서 참수행자의 얼굴을 엿보는 것 같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절로 나는 하루였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은 수시로 절 주변으로 산책을 나간다. 일반인들에게는 산책이지만 스님에게는 산책도 곧 선이다.

한영-명봉 스님 강맥 이어

의룡 스님은 의룡(義龍) 스님은 193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6살에 용꿈을 꾸고 용주사를 찾아가 출가해 14살에 일해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탄허 · 관응 스님에게 교학을 배운 스님은 35세 되던 해에 '한영-명봉 스님'의 강맥을 이어받았다.

일생을 제방 강원의 강사로 살아온 스님은 2002년 직지사 강주를 끝으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30세 되던 해에 창건한 각황사에서 홀로 수행정진 했던 스님은 직지사 강주에서 물러난 후 각황사를 맏상좌에게 넘겨줬다. 2년 전부터 고향인 안성 미륵당에 평소 읽었던 경전과 불서 수 만권을 모아 '자심난야'를 꾸며 머물고 있다.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 화 : 055)356-2040, 011-867-4747

“육바라밀 지키고 있습니까?”

의륭 스님의 가르침

저는 화두선이 아니라 여래선을 합니다. 여래선은 호흡으로 하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선정에 드는 것인데요. 들이쉬고 1부터 6까지 세면 숨이 머리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흡상승(吸上昇)인데요. 들이마셔서 정수리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내쉬는 것도 여섯까지 세면 단전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륜을 굴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정수리 위로 올리고 내쉴 때 단전까지 내려가게 할 때 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따라 다녀야 합니다.

생각이 법륜이 구르는 것을 따라 다니면 아무 잡념이 없어집니다. 무아의 경지에 들게 되면 이 호흡만으로 몸에서 땀이 나게 됩니다. 무아의 경지에 들면 즐거워요. 즐거운 곳에 머물며 좋은 것만 보게 됩니다.

법륜을 돌리는 속도는 몸의 느낌에 따라서 천천히도 하고 빨리도 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물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고 내쉬는 것은 불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륜을 돌리면 단전이 훈훈하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촉촉하게 납니다. 이때 선정에 드는 것이지요. 물기운과 불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밥 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전을 솥으로 봐도 됩니다. 하단전은 불 때는 아궁이로 보고, 중단전은 솥으로, 상단전은 시루로 봐도 됩니다.

물이 적당히 있어서 도수에 맞게 끓을 적에 시루에 있는 떡이고 밥이 익는 거잖아요. 물이 적으면 탈 수도 있고 설익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물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불이 모자라면 풀무질 하듯 호흡을 하고 불이 너무 강하면 불기운을 줄이기 위해 호흡을 해야 하죠. 참선하고 있는 당사자가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복 짓지않고 성불하려는 건 모래로 밥 짓겠다는 것

요즘 우리나라는 온통 화두선만 압니다. 저는 화두선이 나왔기 때문에 도 닦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화두선은 38대 앙산 스님이 제창한 것으로 조사선입니다. 그 전까지 가섭존자 달마대사 육조스님 다 여래선으로 수행하셨어요.

그런데 앙산 스님이 화두선을 제창했죠. ‘이뭣고’ 쉽잖아요. 한 제자가 부처님이 무엇이냐 물으니, 조사가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라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제자는 왜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부터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를 알았다고 해서 도가 통하는 건가요? 이처럼 의심이 해결됐다고 해서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는 숙제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성불이 안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이래 모든 사람은 불성이 있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불한 사람이 없나요? 성불할 수 있는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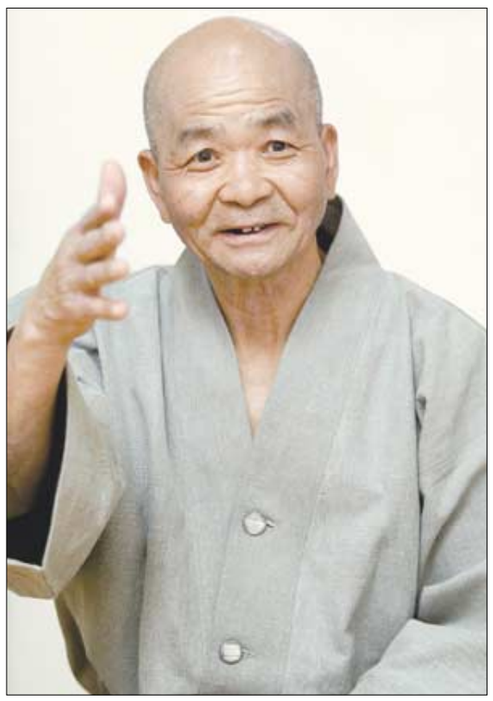
성불할 수 있는 복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원만성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바로 보살행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무수한 보살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다는 말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성취할 때까지 보살행을 닦아야합니다. 그래야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생에서 성불해야겠다 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무량한 세상을 두고 육바라밀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 무량공덕이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쌓여야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 앉아서 참선하면 성불한다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보시 정진 인욕 선정 등 육바라밀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보시예요. 육바라밀의 가장 첫 번째가 보시예요. 지계는 계율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은 악한 행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욕은 괴로움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정진은 게으른 행동을 없애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선정은 산란한 생각을 다스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참선은 망상심을, 혼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리석은 것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없애면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정좌를 하고 여래선법에서의 호흡 흐름을 손으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의룡 스님.

육바라밀을 지키고 실천하면 복을 키우고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 됩니다. 무량한 세상을 두고 그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복이 더 커지고 지혜도 커져서 복과 지혜가 완전히 구족해야 성불할 수 있는 거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을 보면서 정리한 거죠.

저는 법문을 할 때마다 항상 삼업(三業)을 청정히 해야 복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뜻이 청정할 때 복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을 지키는 것이 몸과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물을 건너갈 때는 배를 이용하고 산을 올라가려면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래를 시루에 담고 떡이나 밥을 지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모래를 시루에 담고 불을 때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걸 버려야 해요. 안 될 것을 평생하면 시간과 노력이 손해에요.

무념무상에서 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무심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한 조사들도 있습니다. 무심한 경지는 바로 선정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지 않으면 극락도 부처님 국토도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본래면목(진리)을 볼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도 육바라밀을 닦아 선악이 없는 경지에 올라 공덕을 원만 성취하셔서 성불의 밑거름을 닦으세요.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6>



원숙한 노년, 저돌적인 청년(상)

관리실 앞에 옆집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정정하고 꼿꼿하셔서 80을 넘기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밝은 거리에서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깊이 팬 주름살, 지팡이를 짚은 채 달달 떠는 손,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 내느라 그만 벌겋게 짓물러버린 눈가….

왜 밖에 나와 계시냐고 인사를 드리는 나를 아득하게 바라보다 가까스로 누구인지 기억해 내시더니 “이젠 늙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구먼. 집 열쇠도 잊어버렸고 아이들 휴대폰 번호도 기억이 안 나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내게서 <채근담>을 빌려 가셔서는 “좋은 책 빌려주어 아주 잘 읽었소이다”라며 정중한 인사와 함께 책을 돌려주신 신사분이셨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던 음성도 시간의 길목에서 도둑맞으셨는지 목소리마저 힘이 없어서 떨렸습니다. 그늘에 앉아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날 때 자꾸만 마음 한 켠이 내려앉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아난존자도 늙어버린 부처님의 발을 어루만지다 발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증일아함경), “사람이 늙으면 괴로워지니 머리가 희어지고 이가 빠지며 눈은 흐릿해서 침침해지고 귀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며, 왕성했던 기운은 쇠약해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며 온몸의 마디가 쑤시고 아프며, 앉았다 일어날 때는 힘이 들어 신음하니 근심과 슬픔으로 괴로워한다. 정신이 차츰 쇠약해져 오줌을 싸고도 잊어 버리고 목숨이 다할 날이 차츰 다가오니, 이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불설팔사경)라고 하여 부처님도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로서 ‘늙음’을 말씀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할퀸 노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어제의 그 싱싱한 청춘들이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영원히 청장년일 줄만 아는지 노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리고 노년의 충고를 간단히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고대 로마의 현인인 키케로는 “인생의 주로(走路)는 정해져 있네. 자연의 길은 하나뿐이며, 그 길은 한번만 가게 되어 있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숲, p.44). 그렇게 다양한 성향의 신구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있으니 청년은 노년에게서 원숙함을 빌리고 노년은 청년에게서 저돌적인 기상을 빌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저돌적인 청년과 원숙한 노년은 서로 잘난 체하면서 나이든 이는 제 나이를 믿고서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을 너희는 몰라. 너희가 안다는 것은 마치 저 반딧불이 와도 같다”고 젊은이를 조롱하고, 젊은이는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믿어 “늙고 고집불통인데다 완고하고 정신도 흐릿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저리 나서는가?”(출요경)라며 업신여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원숙한 노년의 지혜와 저돌적인 청년의 기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노약자 우대석에 앉아 있던 한 노인과 청년의 실랑이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통로 출입문을 열고는 닫지 않고 그냥 지나친 청년에게 노인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인마! 문 닫고 가!”

그러자 청년이 홱 돌아서 더 큰 목소리로 “에이, XX! 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치더니 그 노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가 멱살이라도 쥘 기세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젊은이는 분한 기색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몇 번 씩씩거리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예절도 모르는 젊은이를 크게 호통 치며 따끔하게 가르치려던 노인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모멸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노인은 애써 태연한 얼굴로 민망함을 감추며 그가 열어젖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젊은이의 무례한 태도는 백 번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조금만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원숙한 노년의 지혜로 젊은이를 불러 세웠더라면…, ‘야, 인마’라는 말 말고도 젊은이를 부를 호칭은 얼마든지 있었는데…하는 아쉬움은 지하철을 내리고도 오래도록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5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1:00 ~ 15:00

3. 교육기간(6개월)
●원서접수 : 2006년 5월 10일 ~ 5월 27일 ●개강일시 : 2006년 6월 2일 (금요일)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그림 속 차향기 은은하네~



그림 ① '차공양 탱화' 현의 스님作, 대흥사 소장.



그림 ② '존자헌다 탱화' 작자미상, 송광사 소장.

담원 김창배 화백 〈다묵화첩〉 펴내

불화 · 기명절지도 · 산수화에 반영

차 탱화, 사찰의 차문화 잘 보여줘

다동 · 동자승 조선후기부터 등장

차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다서(茶書)'를 읽는다. 하지만 수많은 글자들 보다 때론 한 장의 그림이 더 많은 사실을 전해주기도 한다. 나무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나 차나무를 기르고 차를 만드는 모습을 담은 다화(茶畵)에서 우리는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차 생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차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배 화백은 최근 펴낸 〈다묵화첩(茶墨畵帖)〉(인사동문화)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다화와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차문화가 회화와 함께 공존해 왔음을 화첩을 통해 밝히고 싶었다"는 김 화백은 "당시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차 생활을 그림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차 그림'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김 화백은 우리나라의 차 그림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찰에 전해지는 불화나 나한도 등이다. 선 수행과 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차를 준비하거나 차를 마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전남 송광사에 소장된 16나한도에는 차를 준비하는 동자가 한 모퉁이에 서서 나한에게 차를 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화폭에 여러 명의 나한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나한다연도(羅漢茶宴圖)'라 하다. 현의 스님의 '차 공양 탱화'(그림 ①)나 작자 미상의 '존자헌다 탱화'(그림 ②) 등이 이에 속한다. '차 공양 탱화'는 정확히 그려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현의 스님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차의 성지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이 탱화는 당시 불가에서의 차 생활이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전남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존자헌다 탱화'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존자(尊者)들에게 차를 달여 헌다하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림 ③ '석천물로 차를 달이며' 다산 정약용作.

두 번째 유형은 그림 속에 차를 다루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일명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나 책거리 그림, 또는 부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명절지도란 도자기나 청동기 등의 각종 그릇에 연꽃, 국화 등을 새긴 그림을 말한다. 조선후기의 선비화가 강세황(1713~1791)은 기명절지도의 대가로, 차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장승업도 기명절지도의 일가를 이루며 특색 있는 우리 차 그림의 유형을 형성했다. 작자 미상의 '초당도'는 풀로 엮어 만든 정자에 차를 마시던 용구와 다구들이 놓여 있는 모습만을 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산수화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는 중국처럼 차와 사람을 명확하게 묘사한 작품은 많지 않으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는 풍취와 차와 관련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차를 준비하는 다동(茶童)과 동자승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시대 실학자이자 차를 즐겼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석천물로 차를 달이며'(그림 ③)는 차와 관련된 기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람이 일어나니 차 끓이는 연기는 죽탑(竹榻)에 피어오르고 석천 가을 물로 향기로운 차를 달이다'라는 글을 통해 차 마시는 풍취를 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인사동문화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瑞榮普洱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6. 정보화 사회의 허식 ①

디지털 혁명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지식을 접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의 확산은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순기능과 함께, 난무하는 악식(惡識)과 허식(虛識)이라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보이차에 관한 지식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보이차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정보는 어느 정도 믿을만하며 깊이가 있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을 정보라 믿고 자신의 판단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운남 지역 茶 美洲에 심으면 보이차인가?

동종 차나무라도 위도 따라 성분 달라져

2002년에 제정된 보이차의 정의에 대한 키워드는 산지, 원료, 가공법이다. 산지에 대해 누군가가 "운남 대엽종 종자를 아프리카나 미주에서 재배한다면 그것은 보이차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되묻곤 한다. 이에 대해 필자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 안 된다는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운남 지역은 차나무의 원산지로 지금도 야생 차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다. 이곳은 빙하기 때도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을 정도도 야생식물들이 원시상태로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차나무의 형태는 교목형, 반교목 그리고 관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차나무들을 별개의 종류로 생각하고 있으나 연구에 따르면 교목형이든 관목형이든 차나무의 세포 속에는 모두 30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는 곧 두 가지 형태의 차나무일지라도 하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학문적으로 차나무 형태 중 교목은 원시형, 관목은 진화형, 반교목은 과도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형 차나무들은 모두 교목형에서부터 진화된 차나무라는 것이다.

위도가 낮은 남쪽 열대지방에서는 잎으로 전달된 아미노산 성분이 떫은맛을 내는 폴리페놀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칠맛이 부족하고 떫은맛이 강하다. 이러한 원료로 녹차를 만들 경우 품질이 떨어지기에 발효차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

이와 반대로 온도가 낮은 북쪽 한랭지역의 차나무는 질소화합물의 합성과 축적작용이 유리하기에 아미노산, 카페인등 질소함유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차나무의 뿌리에서 흡수된 아미노산 성분이 줄기를 통해 잎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차의 맛 중 감칠맛이 많아져 녹차를 만드는데 적합하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품종의 차나무일지라도 위도에 따라 화학성분의 함량도 차이가 난다. 운남성 맹해에서 자란 저엽종(儲葉種)을 절강성 항주에 심었더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凍死)했다. 그러나 주위의 사천(四川)지역에서 일정 기간 심어 추위에 대한 내성을 기른 후 다시 항주에 옮겨 심었더니 동사되지는 않았으나 나무와 잎들이 왜소화(矮小化)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뿌리의 차나무에서 자란 찻잎일지라도 맹해와 항주에서 자란 찻잎의 성분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도가 낮은 남쪽 맹해의 찻잎에서는 폴리페놀, 카테킨 등 내용물들이 항주에 비해 월등이 높았고, 이와 반대로 아미노산과 카페인 등 질소화합물들의 함유량은 항주의 찻잎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보이차의 원료로는 맹해의 찻잎이 적합한 반면 항주의 찻잎은 녹차를 만드는데 적합하다는 과학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이 왜 같은 차나무일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자란 찻잎으로는 보이차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 한서대학교



맹해 교목형 차나무.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금호필름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입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어서 건물의 하중에 영향이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판넬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안 가득 훈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 혹한에도 동파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닥만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 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텍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 에너텍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

5,000년을 기다려온 운명학의 제왕
이것이 진짜 육임학(六壬學)이다!!
수입.적중률 1위
運勢 육임운세방 Fortune room
저작권 등록번호 제C - 2006 - 001357호
육임학은 쉽게 배울수 없는 고등학문으로 육임학의 비법을 수록하여 누구나 교육은 필요 없고 육임운세방 CD로 곧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년매출 2조원에 도전하는 육임운세방!
21C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 육임운세방 선택사업
● 육임인터넷 운세방 : 인터넷 유료사이트 프로그램 홈페이지및 상담용CD 2매 (30,000,000원)...무인시스템
● 육임060,070,080 ARS 운세통신 : 통신단말기, 상담용CD 2매공급 (15,000,000원)
● 육임상담원 가입 : 본 홈페이지에 상담원 광고(2년간 계약)및 전문상담용 CD 2매 (10,000,000원)
● 육임학 CD판매 :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전문상담용 CD 2매 (3,500,000원)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및 홍보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육임학 고객센터 1588 - 2675
www.yukimunse.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 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 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맨발로 자연을 느껴보자

맨발걷기 치유효과와 실천법

부처님은 깨달은 후 45년간 맨발로 인도 각지를 돌며 불법을 전파했다. 그러나 시멘트와 아스팔트 도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맨발로 걷기'는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포근한 흙길이나 발바닥을 간질이는 풀 섶을 맨발로 걸어본 사람들은 말한다. "맨발 걷기는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라고. 박동창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맨발 걷기'의 치유효과와 방법을 소개한 <맨발로 걷는 즐거움>(화남)을 펴냈다. 해외 금융사업 CEO 출신의 지은이는 자연건강법인 '맨발 걷기'의 치유효과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소개하며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맨발 걷기를 생활화해보라"고 권한다.

▷ 왜 맨발 걷기인가?

틱낫한 스님이 이끄는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는 걷기명상을 주요한 수행법 중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다. 마음을 발끝에 모으고 한걸음 한걸음 걸으며 '깨어 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 외에도 걷는 행위는 산소 섭취량 증대, 심장기능 강화, 신진대사 촉진 등 육체적인 건강 효과도 동반한다. 이에 더해 박동창 연구위원은 "맨발 걷기는 자연이 선사하는 '리플렉솔로지(Reflexology)'"라 정의한다.

리플렉솔로지란 발과 손, 귀 등에 분포한 반사부위를 손가락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법을 말한다. 맨발로 걷다보면 흙이나 돌멩이의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마사지 효과로 이어져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맨발 걷기는 배변활동을 촉진시키고 감기와 위장장애, 무좀 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 어떻게 걸을까?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 걸음은 발바닥의 모든 부위가 일시에 대지와 닿도록 힘을 빼고 천천히 걷는다. 마치 몸이 무거운 두꺼비가 땅에 밀착해 느릿느릿 움직이듯 걷는 것이다.(사진 ①) 두 번째 걸음은 발바닥을 활처럼 둥글게 휘어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순차적으로 땅바닥에 닿도록 걷는다. 이때 팔은 휘젓고 발걸음을 황새와 같이 날렵하게 움직인다(사진 ②). 세 번째 걸음은 발가락을 모두 위로 뻗어 올리고 발바닥만으로, 네 번째 걸음은 발뒤꿈치를 들고 발부리와 발가락 부위로만 걷는다(사진 ③ ④).

다섯 번째 걸음은 발가락 전체를 오므리고 발뒤꿈치와 오므려 붙인 다섯 발가락이 동시에 땅에 닿도록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걸음은 뒤로 걷는다(사진 ⑤ ⑥).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에 비해 운동량이 많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므로 근육 발달을 불균형을 막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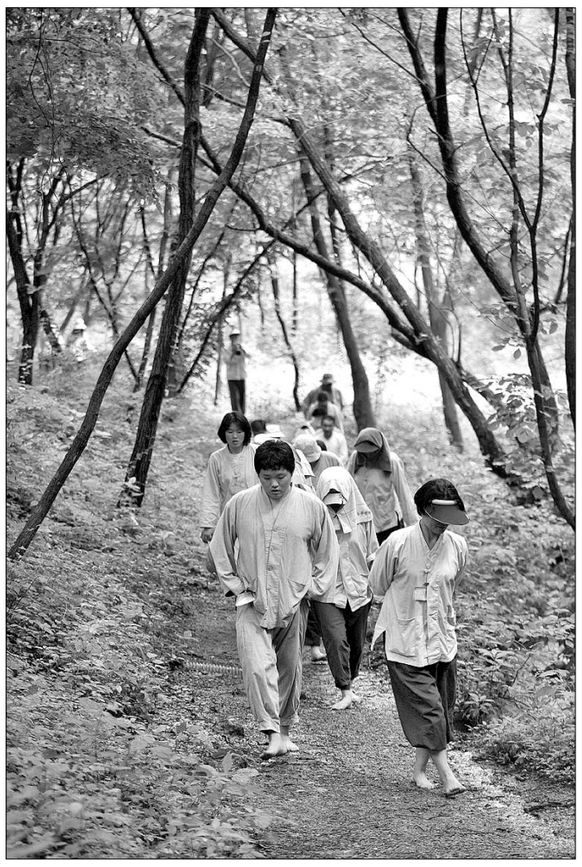
걷기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험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0분 이상이 적당하다. 걷기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발 크림이나 오일 등을 발라 수분이 유지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발의 각질을 제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 어디서 걸을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걸을 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학교 운동장이나 집 근처 숲길을 찾아보자. 최근에는 도심 근린공원에도 '맨발 지압보도'가 마련된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에는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주요 공원을 비롯해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강북구 솔밭근린공원 등 158곳의 '맨발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면 도토리나 개암나무 열매, 자갈 등을 주워 나무 상자 안에 넣고 맨발로 밟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자료제공=도서출판 화남



시멘트와 아스팔트 도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맨발로 걷기'는 낯선 일이다. 사진은 마곡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맨발로 산을 오르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반사부위 지압, 혈액순환 촉진

감기 · 위장장애 · 무좀 등에 효과

걷고 난 후 크림 · 오일 발라줘야

•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 •

1.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2. 일회용 밴드 등의 구급약품을 준비한다.
3.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봉투를 준비한다.
4. 준비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5.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딛도록 한다.
6. 걸을 때는 항상 눈 앞의 지면을 응시해야 한다.
7. 발뒤꿈치가 아닌 발바닥의 허리 부분에 몸의 무게를 싣도록 노력한다.
8. 맨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시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9. 풀이나 나뭇잎, 눈 때문에 땅 표면을 정확히 볼 수 없는 때는 특히 주의한다.
10. 눈 위에서의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쓴다.

맨발걷기 6가지 형태



① 두꺼비처럼 천천히 걷기



② 황새 같이 날렵하게 걷기



③ 잇몸을 우물거리듯 걷기



④ 까치발로 걷기



⑤ 주걱을 엎어 놓은 듯 걷기



⑥ 가재처럼 뒤로 걷기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8>

가지 콤보트와 가지나물

이번 주에도 올해 부처님 오신날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전 올해만큼 행복한 부처님오신날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마당 행사에서도 사찰음식 부스를 마련해 전시했고, 금화사 은평법당에서도 전시회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처음 전시를 하는 것이라 무척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는데, 우리 신도님들의 뜨거운 마음에 그저 행복하고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게다가 은평법당에서는 사찰음식 시식회까지 겸했는데, 이날의 경험으로 전 사찰음식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가지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림하고 냉국 만들어 먹는 야채에 불과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지가 내 입맛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지 요리를 개발하기도 하고, 여름철 절에서 먹어본 가지나물의 맛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재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절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스님들이 많은데, 가지는 한 뿌리만 심어도 주렁주렁 열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에 가면 가지를 몇 개씩 얻어오곤 했습니다. 얻어온 가지를 가지고 조림이나 나물이 아닌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 볼 궁리를 하던 중, 아침 식사 대신 건강빵을 즐겨 먹는 신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지 콤보트(조림)는 그렇게 해서 개발한 음식입니다. '콤보트'라고 하면 사찰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사찰음식이 해외에도 진출하려면 서양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붙여본 이름입니다.

은평법당에서 열린 시식회에서 가지 콤보트를 맛본 분들은 이게 무슨 열매인지, 무슨 과일인지 무척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맛을 보여드리고자 오늘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여름에 많이 나는 가지는 노화예방에도 좋고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만드는 방법

<가지 콤보트> 재료: 가지 4개, 포도주스(가지 분량만큼), 설탕 2큰술, 꿀 1큰술 , 백년초 엑기스 1작은술, 생강즙 약간

① 가지는 반으로 잘라 어슷하게 자른다. ② 냄비에 가지를 담고 포도주스를 가지가 잠길 때 까지 부어준다.③ 가지가 끓으면 거품을 제거한다. 이때 가지를 자주 뒤집으면 안 된다. ④ 포도주스가 반 정도 줄어들면 백년초 엑기스와 설탕을 넣어 국물이 자박자박할 때 까지 졸인다. 자주 뒤집지는 말고 거품만 제거한다. ⑤ 꿀과 생강즙을 넣어 국물이 없어질 때 까지 졸인다.

<가지 나물> 재료: 가지 2개, 대파 흰 부분 약간, 다진 청고추 약간, 양념장(들깨, 들기름, 죽염, 간장, 고춧가루, 감식초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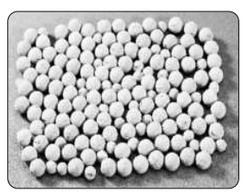
① 가지를 반으로 잘라 찜솥에 살짝 찐다. ② 가지가 식으면 손으로 길게 찢어준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어 가지를 버무린다.

▶다음 주에는 우무 콩 냉국과 우무 샐러드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나의 病은 내가 고친다

언제까지나 약을 의지하고 병원만 다니시렵니까?

만가지 질병이라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병이라도 원인과 치료방법만 알면 돈 없이도 내 힘으로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이용법, 자연 치료법, 요가운동 치료법, 프라나 치료법 등 여러가지 치료법을 무료로, 자세히, 정성껏 알려 드립니다.

위장병같이 오장육부에서 생긴병, 고혈압, 당뇨, 아토성, 각종 암병도 치료 가능합니다.

병이란 나의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료 상담 031)769-7842 010-3336-3745

부처님가피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 지는 감사 공경의 오체투지!!!

59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5월 27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5월 28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결레, 면티 2매, 물병,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동씨 기혈침, 사암침 강좌 안내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지도해 드리며, 사암침술과 동시 기혈침술을 3개월 과정으로 교육합니다.

강좌내용

▶14경락의 체계적인 습득과 상용혈의 정확한 취혈법.
▶오수혈의 원격 자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암 침술법.
▶침 5개 이내로 질병을 치료하는 동씨 기혈 침술법.
▶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내 몸의 병을 스스로 고치는 침술 자가 치료법.
▶황제내경의 맥진법과 장부 허실증 판단법.

※ 개인교습 형식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3개월 후면 어떤 분이라도 침술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 개강 : 2006년 6월 5일
(월 · 화반, 수 · 목반, 야간반)
■ 위치 :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3번 출구
■ 문의 : 02)2235-0053, 018-312-7110

동 씨 사 암 침 학 회
침 술 자 가 치 료 요 법 학 회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 2004-8207, 8210 / 팩스 02)737-0697 휴대폰 010-6238-5923 / 011-9872-3163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sujung@buddhapia.com



대행스님

모두가 내게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생명들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까지는 나를 발견하는 데 대해 얘기한 거고요. 아까 읽어 내려오던 그 대목 중에서 또 한 마디 한다면, 그 암 덩어리라든가 또는 탑지기라든가, 또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허허허…, 그런 것이 왜 멈추어지느냐. 내가 탑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입니다. 그 탑지기에 서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누명을 쓰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랬다면, 아니, 판(版)에 박혀 있습니까? 그럭했다면 그거는 이 공부하는 데에서 볼 때 들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체들이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 집합소입니다. 한 덩어리가 굴러가다가 일을 저질렀다면 혼자 한 게 아니죠. 거기 생명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분담해서 담당해야죠, 몽땅. 그러니까 그 몽땅 분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게, 나 혼자만이 잘못했다는 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탑지기에 서면 '아이, 그것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한다면 '네가 저지른 거니까….' 아, 자기 혼자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켜서, 즉 말하자면 움죽거리게 해 가지고 저질러진 거지 몸뚱이가 저지른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자기 몸뚱이가 저지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들이, 의식들이 전부 한데 합쳐서 그렇게 저지른 거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했을 때에 작동이 안 되든지 되든지,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될 땐 아주 뭐 기탄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요량에 달려 있죠. 그 지혜로운 요량은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걸 요량대로 지혜롭게 한다면 아주 대범하게 크게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또 병 같은 것도 부처님께서는 이 자생중생들이, 천백억화신이 응신으로 화해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먼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 내 자생중생들을 제도함으로써 내가 제도가 되고, 내가 제도가 됨으로써 내가 견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자생중생들이 나요 내가 자생중생이니까, 모두가.

그러면 마음을 내기 이전의 선장은, 마음의 선장은 나쁘고 좋은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해도 좋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라고 하죠. 그래, 선장이 돼 가지고 그 모든 의식들을 한데 합쳐서, 항상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로 굴린다면, 주인공으로 하나로 굴린다면 그 자생중생들이 전부 보살로서 화하고, 법신으로 화하고, 지장으로 화하고, 약사로 화하고, 지신으로 화하고, 용신으로 화하고, 질성으로 화하고 모두, 아주 일체 아니 되는 것 없이 화합니다. 화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속에 들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모습으로 화한다는 거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되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나 아님이 없다. '어떤 것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로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시체(時體)로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병자 속에 들어가서 병자와 하나가 되니까 (양 손을 서로 부딪쳐 보이시고) 그것이 정말 저분 말마따나 그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진 그 능력이, 즉 말하자면 불입니다. 불과 같기 때문에 그 병을 태워서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로 배출시켜서 없애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인체에 해롭지만 않다면, 이익하기만 하다면 어떤 걸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돼 있습니다.

전부 따지고 본다면 이 지수화풍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겁니다. 지, 수, 풍,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비벼대니까, 한데 합쳐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온기가 생기고 뜨거운 불이 생기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런데 불이 없으니까 검죠? 검은 지평선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이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스스로, 과학자들은 폭발이 됐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폭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폭발되는 거 봤습니까? 우연히 과학자가 되는 것 봤습니까? 우연히 연구하는 것 봤습니까? 우연히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형성하고, 별성을 형성시키고, 그 별이 형성됨으로써 지금 불덩어리도 크게 이루는 별도 되고 또, 별성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게 하려니까 태양계도 생겨야 하고 행성도 있어야 하고, 이 모두가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결이 됐다는 그 이유는 뭔가?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그냥 직결이 됩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벌써 한 계단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쓰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계발시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거기서 받아서 그렇게 또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못 쓴 마음이 올라가서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참…, 이건 이름을 지어서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모두가.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꿈을 꾸더라도 한생각 잘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그냥 중생이어서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주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고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는 자원이 나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끌어 쓸 수가 있는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고, 지수화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다 통신이 돼서 만물이 전부, 개개인이 짹짹짹짹만 해도 요건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만, 말을 하는 사람의 차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그 넓게 쓰는 마음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돼서 들어오는 건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즉 화합을 해서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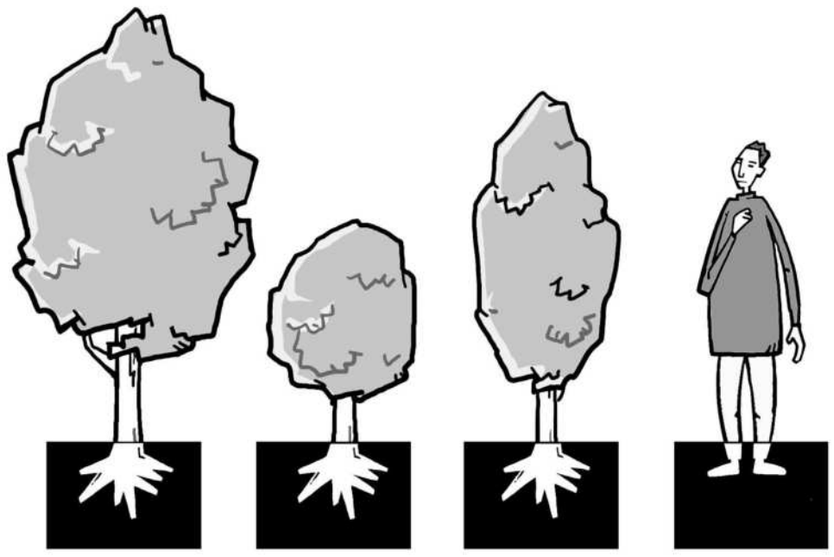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라는 광대하고 묘한 법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아주 절대로 있는 것이니 그대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몸뚱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허허허…. 침착하게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손과 빈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할 텐데, 이거는 뭐 큰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구, 이거 어떡하나?'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허, 이러다 보니까 그냥…. 즉 말하자면,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로 놓아 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허허허…. 그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것과 같아요.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첫째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는 게 참 여러분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셋째 일요일 날도 그저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해서…, 여러분한테 말도 많이 했으면서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이 없이 질문하고, 또 함이 없이 대답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내가 썼든 누가 썼든 길잡이일 뿐이지, 깨닫는 것은 책이 아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틀어넣으면서, 입력을 시키면서, 모든 것은 거기를 전제로 해서 부지런히 뛴다면…, 뛰는 자체도 바로 거기니까, 뛰게 하는 것도 그놈이니까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는 걸 보면 '아이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필이면 이런 걸 보고 살게끔 했나.'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야, 이왕이면 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는 거라 그렇게 순간순간 촬나촬나 바뀌도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몽땅 다 가르쳐 놓는다면 오히려 안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자에 살던 나를 발견해 내지 못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있어야만 심성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과학을 진짜 발전시키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네가 아니라 전자에 살던 너부터 발견해라. 그러면 모두 촬나촬나 들고 나는 거를 알 수 있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든지 생명이 있는 거든지, 보이는 거든지 안 보이는 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다. 둘 아니게 볼 수 있고, 둘 아니게 작용할 수 있다.' 이래야 우주하고도 직결이 된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그렇게 위대하게 띄워 보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어느 부분이든 하나만 딱 잘못해 놓으면 그냥 그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수명이 그렇게 단축되는 겁니다.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의 마음만 하나 어떻게 해 놓으면 그 비행기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도리이면서도 자비한 도리이고, 자비하면서도 무궁무진한 도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혜성이 우리 지구에 부딪쳐서 지구가 아주 망가지고 인명이 많이 상하게 생겼다, 지구가 그냥 파워를 일으켜서 모두 부서져 버린다든가 타 버린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내가 그 혜성이 된다면 내가 나를 지구로 알고 있는데 부딪치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혜성이 돼 가지고 그 혜성을 저 먼 데로 끌어다 놓고 옵니다. 허허허….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광대한 법이며, 정말 부처님 법이라기보다도,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 법이고, 우리들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이 광대한 법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세세생생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유인이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평등공법(平等空法)을 행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날더러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용어를 달리 한다고 해서 아주 부처님 법하고는 다른 세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지금도 달구지라고 해

☞30면으로 계속

배우는 사람은 일체를 스승으로 알아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신 게 있었을 겁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을 바꿔라, 방편도 바꾸고, 난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돌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이 천체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들 법 따로 있고, 시쳇법 따로 있고 과거 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찻잔을 가리키시며)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전에는 뚝배기같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좋게 꽃처럼 만들어서, 찻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죠. 그런데 찻잔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이름이 지금 현실에 필요한 거지, 전자에 뚝배기라고 했다고 해서 찻잔을 뚝배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똑같아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오늘, 오는 오늘이나 똑같은데 발전하는 대로 용도와 그 방편이 변하죠, 자꾸자꾸.

그래서 어린애를 갓 낳아 놓으면 애기라 그러고, 조금 자라면 학생이라 그러고, 조금 더 자라면 청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이라고 하고, 더 자라면 늙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물질이 생긴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갓 낳은 애기를 어떻게 늙었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며 발전이며, 우리가 물질과학보다도 심성과학으로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공부입니다.

내가 이랬죠. 이 전력이 (전등을 가리키시며) 들어오는 것을,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는 못 보죠? 보지도 못하고 쥘 수도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죠? 그러나 그 태양열을 받을 장비만 해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태양열이 들어와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광대한, 그 묘한 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이겁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습니다. 절대죠, 아주. 절대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맡겨라 이거죠, 절대 있는 거니까. 살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절대 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부처는, 내가 법당에 들어가야 부처가 있는 거고, 변소간에도 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평등하게 생각하면 부처요 생각을 한생각 냈다면 법신이요, 또는 한생각 내서 움죽거리겠다 하면 움죽거리는 것이 화신이니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다?

그러니 내가…, 그 책을 보든지 안 보든지 틀림없이 그 내용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뒷면에 약간의 좀 허술한 데가 있지만 그대로 아주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긋나질 않게 한다면, 진짜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그 사방이 툭 터진 공부는 오히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걸리는 게 없지만 벌써 책을 써 놓으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자유스럽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도반들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진짜로 들어가서 진짜 함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사실은 함이 없이 그대로, 내가 목마르면 (컵을 들어 보이시며) 물마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컵이 저기 있는데 컵은 어떻게 생겼고 물은 얼마나 담기고 뭘로 만들어졌고 뭘로 했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마실 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에 올 1년만이라도 더 진지하게 들어가서 보충해서 내놓으시도록 하세요. 앞뒷면에 더 좀 보충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한마음 식구고 하나로 돌아가는데 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에서 한마음 아무개님이 바로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의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면 알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 나오니까요.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질문자2: 금왕에서 머물면서 한 10개월 공부했는데 다른 데 선방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아는 것도 자꾸 물으라 하셨는데 90% 알고 10% 몰라도 저는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꾸중도 좋고요. 가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이것 봐. 채찍은 돌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생물에서도 나오고, 동물에서도 나오고, 사람에게도 나오고, 하치못한 애한테서도 나와, 채찍이라는 건. 그런데 왜 속아? 참내! 아니, 누가 이런다고 속고 저런다고 속고, 갈대와 같아서야 이놈의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죽으러 관 속에 들어간다는데 관 속에 들어갈 사이가 어딨어? 죽어야 관 속에 들어가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관 속에 들어가나?

허! 마음은 선 것도 아니고 안 선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스러운 것이야, 마음이. 그런 건데 몸을 쭈그러트려서 그냥 매어 놓는다고 해서 그놈의 마음이 통쾌하게 나올까? 그리고 이런 게 있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적거리게 되는 거를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이 공부는 못해. 오산이야!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쪽 마음도 또 하나가 되거든.

그리고 아까도 남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지. 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이쪽 물에 가서 놀려면 이쪽 물에 순응해야 하고, 저쪽 물에 가서 놀려면 저쪽 물에 순응해야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되 진리에 순응해라. 엊그저께도 얘기했죠? 부처님의 뜻을 따르되 진리에 순응하고 살아라.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의 가풍(家風)대로 이 말 저 말 없이 그냥 같이 잘 따라준다면 아무 이유가 붙질 않아. 응? 알겠나? 내가 살았다고 전자에 배워 오던 그 습이 어딘가가 모르게 툭툭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거야.

▲질문자2: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스님: 아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서 몸을 매어서 앉혀 놓겠다는 거지, 네 몸을 네가 자유스럽게 하려면 하고 그러지 네 몸을 네가 왜 동겨 매 놓느냐 이거야. 이 세상 법이 그러한 것만은 아니야.

▲질문자2: 그것도 제가 필요해서 간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못할 것도 없지.' 하고 어차피 한 번 정도는 그것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큰스님: 허허, 이거 봐. 스승의 말에 따라서 응하는 것도 좋지, 하기야. 그러나 마음이 확고하게 완결되지 않아 가지고는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 그러니 참, 나는 그래도 어디에 앉아도 토굴이요 어디에서도 토굴이요. 아, 이것이 지금 토굴이지 뭐야. 이 몸뚱이가 그냥 토굴이야. 몸뚱이가 토굴인데 어디 토굴로 또 가? 하, 지금 토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토굴을 내가 끼고 다니면서 어째 토굴을 또 찾느냐 이 소리지. 그 토굴을 갖다가 토굴에다 또 넣으니, 이건 정말 이치에도 닿지 않건만 지금 세상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피아노를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앉는 자세와 손 놀리는 거를 요렇게 잘 잡아서 가르쳐야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삐뚤게 앉았든 말았든, 손놀림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워 가지고 나중에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고쳐져, 습이 돼서. 절대야, 그건. 이 공부하는 데는 권속도 없고…, 허허허…. 네 스승 내 스승도 없어. 내가 말하는 거를 좀더 저 언덕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자2: 잘 알아들었습니다.

▲큰스님: 귀신하고 친구가 되려면 귀신이 돼야 귀신하고 친구가 되잖아? 이런 제길! (대중 웃음) 아, 정말입니다! 귀신하고 친구가 되려면 귀신이 돼야 귀신하고 친구가 되고, 개구리하고 친구가 되려면 개구리가 돼야 개구리 친구가 되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력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변해서 나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저승 이승 왕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승 이승 왕래하는 자는 애당초에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갈 것도 없다 이럽니다. 사실이니까. 그럼 그만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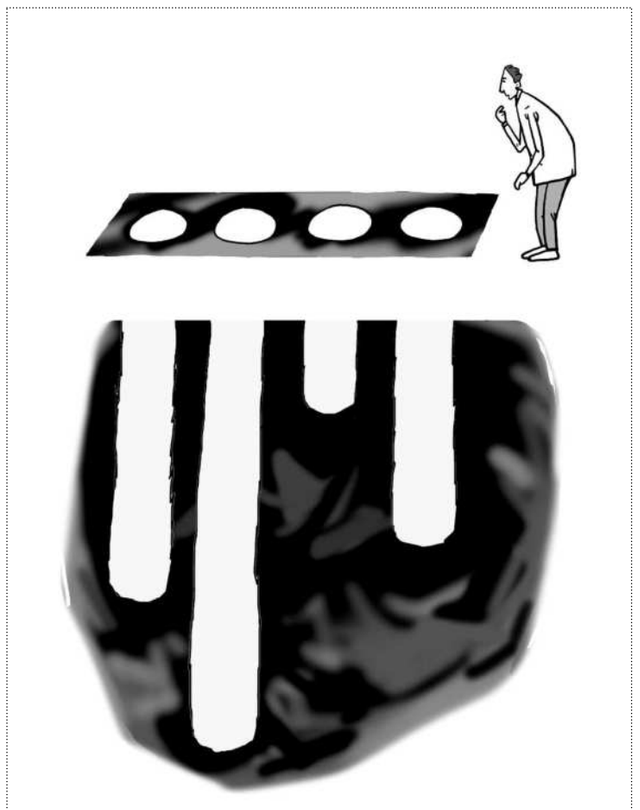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자(예비스님)
모 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011-9852-0075 (총무스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탈종공고
● 사찰명 : 무금사
● 주 지 : 보덕(박후남)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2리 68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 5. 23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금선사
● 주 지 : 도일(배재학)
● 주 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3리 606
위 사찰(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 5월 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법하

성 내지 않겠습니다 (중)

박현이 (대전시 대덕구 법1동)

둘이서 한적하게 집 뒷산에라도 산책할까 싶어 제안을 하면 "너랑 둘이 무슨 재미로? 싫어"하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고, 그럴 때면 마음에 알 수 없는 찬바람이 가득 차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부부사이의 다정한 대화나 공동 활동이라고는 없이, 그저 남편의 '하숙집' 같았습니다.

나 역시 '그래, 절 생활도 해 보았는데 뭐 어떠랴, 머리 기르고 속복 입고 산다 뿐이지, 그냥 출가했다는 생각으로 지내자' 며 애써 기대감을 억눌러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나 협조가 되지 않으니, 부부가 상의해서 할 여러 일에 점점 양쪽 어른들의 손길이 미쳤고, 남편은 오히려 그 면을 편해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점점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이 곤두섰고, 어른이 일일이 뒷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아이 같은 남편에게 깊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했지 도무지 생활 속에서 행이 따르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지적을 해대며 불평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남편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서 '문제점' 만 지적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싫다며 노골적으로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점점 컴퓨터 게임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나는 저녁 퇴근 무렵이 되면 우울함이 밀려오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집에 가 봐야 건너 방에서 밤새워 컴퓨터 게임을 하는 남편과 있으면 설움이 복받쳐 울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화목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다툼이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대가족 안에서 막내로 사랑받으며 자란 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이라면, 부부라면,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불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들이대며 남편이 변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기준이 다르다, 왜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느냐"며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학생시절에 그토록 힘들어하면서 사회를 은통 '문제투성이' 로 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고민하던 나는 이제 남편에게 그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나의 사량 분별로는 남편과 맞추고 살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의 한 절에서 수행에 도움이 될 지침의 말씀과 기도문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 여러 도반들과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선지식이 하라는 대로 하리라, 그것이 지금의 내 괴로움을 뛰어넘는 길이리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대화 · 협조 없는 하숙집 같은 부부생활
변화된 삶 기대하며 3년 기도 시작
아이 낳은 후에도 다툼 갈등은 여전

그때 들은 첫 마디가 "이혼하지 마세요, 요새 사람들 이혼 잘 하데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알아챈 첫 말씀을 듣고부터 터진 눈물은 얘기를 듣는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뭔지는 몰랐지만, 그저 이렇게 살아온 '나' 라는 모양과 '나' 라고 믿는 그 속에서 내는 생각으로는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또 '나' 를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남편에게 성질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남편 한 분 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깊이 참회합니다."

그때 받았던 이 기도문을 지금까지 거의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놓치면 죽는다' 하는 심정이 들 때도 많지만, '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남편에게 성질내지 않는 수준인걸까' 마음이 답답하고 조바심도 났죠.

막연히 3년 기도를 하고 나면 나도 남편도 변해 있을 것이라는 더 큰 기대를 한 채 생활은 이어져 갔지요. 그러나 수행의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들은 것도 아는 것도 많은데, 남편과 부딪힐 때 '내가 또 옳다는 고집을 내 세우고 있구나. 잠시 또 정신이 헷갈려서 정말 내 생각이 맞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구나' 하고 한 생각 돌이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1년여쯤 살아보니, '우리 두 부부사이에는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게 낫겠구나, 그냥 공적인 활동에서 보람과 가치를 삼아 살아야지, 사생활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 갈등이 있겠다' 싶어 거의 그렇게 맘이 기울었을 즈음, 아이가 생기게 됐죠. 계획에 없던 일이긴 했지만, 출산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최우선에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후, 불교대학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태교법문이나 금강경 테이프를 들으며 절대 남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여자가 남편을 미워하면 나중에 아이와 아빠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말이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업식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의 씨앗을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리라' 굳은 마음을 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각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대고 미워하지 않으려 마음 다스리려 애써봐야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태중 아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기도를 입제한 도반들과 스님의 상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새벽녘 꿈이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한 날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었더니, 스님께서 아주 매서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예, 5개월이요."

"그럼, 지워 버리세요! 그런 생각 할 거면 뭣 하러 낳아요. 내가 화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 뱃속의 아기는 갈 데가 없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뱃속 열 달이, 나서 10년보다 더 중요한 때라는데, 나 하나 어리석어 헤매고 방황하는 건 내 몫이라지만, 못난 어미 만나 그 좁은 뱃속에서 아기는 대체 무슨 고생인가 싶어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수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였지만,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밖으로만 돌고, 일주일에 4~5일은 술에 취해 한 달에 서너 번도 넘게 외박을 하는 남편에게 "아이의 아빠"라는 자격을 박탈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집안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 즈음부터 3개월 여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나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끝날 무렵, 기도문을 떠 올리며 다시 마음을 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 남편 한 분 뿐입니다"라는.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우리 생활에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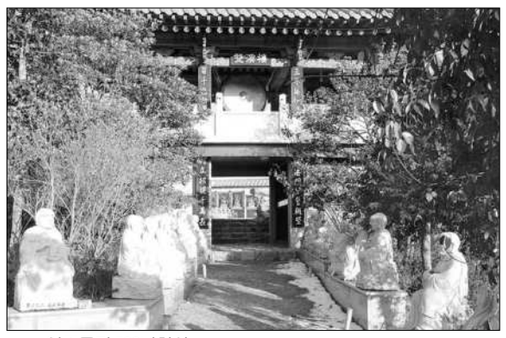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기획PR

"그곳에 가면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전남 강진 남미륵사, 1만평 대지 가득한 불 · 보살님과 탑
100만 포기 철쭉도 장관… 불자들 기도 소리 그치지 않아

"서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일주문과 500나한상.

소망의 뿌리가 깊으면 성취도 크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많이 이루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이뤄지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차이가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품고 있으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소망은 마음에 품기만 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에 위치한 남미륵사에 가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전국 사찰을 떠돌며 기도를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법흥 스님이 23세의 나이에 품은 소망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여기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을 조성해 모시고 인연 잇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해 성불의 인연을 밝혔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매진했다. 물만 먹으며 하루 20시간 이상을 기도에 몰입하기도 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여 그들의 병이 낫기도 했다.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찾아와 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인연이 무르익어 가면서 스님의 기도는 스스로 세운 서원을 이루는 힘으로 나타났다.

법당이 세워지고 부처님이 모셔지기 시작하면서 남미륵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궈가기 시작했다. 1만여 평의 대지에 대웅전 망경루 산신각 등 20여 건축물이 들어서고 해수관음, 미륵대불,

" 남미륵사"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절입니다

석가모니불입상 등 여러 불보살상이 조성되어 점안을 했으며 석조5백 나한도 도량에 가득 모셔졌다. 3층석탑과 13층 석탑 등 다양한 탑도 도량 여기저기에 솟아 있다. 100만 포기의 철쭉을 심어 봄이면 은통 꽃궁전을 이루어 극락세계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남미륵사의 장관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목탁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전각과 탑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의 조화다. <아미타경> 등에 묘사된 극락세계의 오묘한 소리인 듯한 묘음이 항상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남미륵사의 25년 불사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지극한 서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륵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과 서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도 두텁다.

국내 최대 청동 석가모니좌불
6월 20일에 조성완료 예정

남미륵사는 이제 도량 가꾸기 불사의 정점에 서 있다.

높이 37미터의 청동좌불(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불상은 국내최대 좌불로서 보는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지역민들과 불자들은 주지 법흥 스님의 원력과 서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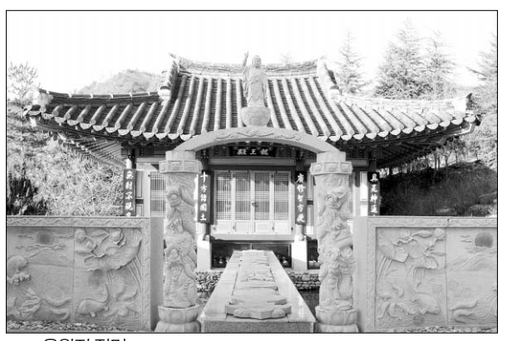
- 주 소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80번지 세계불교미륵대종 남미륵사 주지 법흥 ☎ 061)433-6460
- 가는길 :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 강진 터미널 → 군동면 풍동마을 시내버스 이용. 장흥-해남간 18번 지방도로 이용 풍동마을 진입



▲석굴법당.



▲반야심경이 새겨진 석교.



▲용왕전 정면.



▲해수관음상.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9) 영주 봉황산 부석사

山의 바다 그 무량한 화엄법계


부석사 안양루에 오르면 백두대간 태백의 자경(紫景)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돌배나무꽃


붉은머리오목눈이


천년고찰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경 연못.


석단

진입로 과수원 절골 분위기 해친 불청객
막돌로 쌓은 석단은 자연스런 멋 일품
유구한 역사에 비해 경내에 노거수 없어
입구 인공 구조물에 천년고찰 '무색'

봉황산(鳳凰山) 부석사(浮石寺)가 자리한 양백지간은 장수왕 이후 한참동안이나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땅이다. 순흥의 미아령 너머 영춘 땅에는 고구려 온달장군이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쌓은 온달성이 있다. 이렇듯 신라 통일 직후까지도 양백지간의 정치적 성향은 반신라적이었다. 따라서 의상대사의 부석사 창건은 다분히 정치적 포석이었다.

부석사는 창건의 러브 스토리가 아름답고, 주위의 풍광이 아름답고, 가람의 모양새가 아름답다.

매표소를 지나면 은행나무 너머로 과수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봄날의 연분홍 사과꽃과 가을날의 빨간 사과 향기를 예찬하지만, 냉철히 들여다보면 이 과수원은 절골 숲을 망가뜨리고 들어선 불청객 같은 존재이다. 이 과수원 때문에 고즈넉하고 그윽해야할 절골 분위기는 멋없이 허벌어져 버렸다.

조선 헌종 때 나온 <순흥읍지>에 부석사 영지(影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주문 아래쪽에 영지가 있어서 절의 누각 그림자가 거꾸로 비친다는 내용이다. 영지라면 분명 봉황산의 개울물을 담았을 터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흔적을 찾을 길 없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는 동안 제비꽃과 개별꽃 종류를 비롯하여 몇 종류 들꽃들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흩어져 피고 진다. 이 들꽃의 대부분은 심산유곡이 아닌 인간의 간섭과 왕래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 풀밭에서 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부석사 석단들은 크고 작은 막돌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눌려있거나 삐져나온 느낌을 주지 않는다. 경사면을 깎지 않고 북돋워서 쌓은 석단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선조들의 친환경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안양루에 오르면 백두대간 태백의 자경(紫景)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가히 산의 바다라 할 만하다. 눈에 보이는 저 산들이 모두 부석사 경내라는 착각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 한없이 광활하면서도 장쾌한 태백의 스카이라인! 비로소 막힘없고 걸림없는 극락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발밑의 부석사 형국을 보면 안타깝다. 풍수하는 사람들은 부석사가 앉은 형국을 서봉포란형(瑞鳳抱卵形)이라고 한다. 그런데, 봉황의 양쪽 날개인 좌우의 청룡백호가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숲이 망가진 청룡과 백호는 털 뽑힌 봉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석사의 가람배치는 '화(華)' 자 모양을 많이 닮아 있다. 천왕문에서 무량수전을 잇는 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좌우 공간에 석탑과 전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부석사의 유구한 역사와는 달리 경내에 이렇다 할 노거수가 없다는 점이다. 나무들이 아름다운 전각들을 가리기 때문에 일부러 없애버렸는지, 기껏해야 무량수전 마당 한 켠의 돌배나무, 첫 석단 앞의 찰피나무(보리수)와 벽오동, 쌍탑 옆의 산수유, 선묘각 앞의 밤나무, 조사당 앞 선비화 등이 고작이다. 선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50년생 안팎의 중년 나무들이다.

얼마 전까지 뜬바위(浮石) 옆에 산벚나무가 있어서 봄철이면 꽃을 피워 탐방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언젠가 베어져 보이지 않는다.

삼층석탑을 지나 조사당과 자인당으로 오르는 숲 바닥에는 조릿대가 넓게 자리하고 있다. 텃새인 붉은머리오목눈이들이 여기저기서 푸드덕 날아다닌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온몸이 황갈색에 가까운 붉은색이며, 두 눈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조사당 처마 밑에 전설의 선비화(仙扉花)가 자라고 있다. 학명으로 골담초라고 한다. 골담초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목본으로, 반음지에서도 잘 견디고, 토양에 대한 적응성도 높다. 물도 없고 햇볕도 들지 않는 조사당 처마 밑에서 수백년을 연명해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조사당 옆 작은 화단에 꽃들이 만발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가 외래원예종 꽃들이다. 전통사찰 가운데 잎이 가장 작고, 잎 가장자리에 갈고리 모양의 톱니가 나 있다.

건축에 쓰이는 '못' 하면 쇠로 만든 못을 쉽게 떠올리지만, 원래 못의 원조는 나무못이었다. 일교차가 심한 산중의 사찰건축에 졸참나무못을 많이 썼고, 바닷물과 풍랑을 견뎌야 하는 군선(軍船)에서는 박달나무못을 썼다고 한다.

지장전 뒤에 샘이 하나 있다. 물 속에 도롱뇽과 개구리가 알을 낳아놓았다. 일부는 새끼들이 부화해 고물거리고 있다. 주위의 다른 물길과 연결되지 않은 샘이라 그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좁고 협소한 환경이다. 특히 도롱뇽은 환경오염과 변화에 대한 내성이 약해서 이곳에서 언제까지 연명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장전 옆으로 호젓한 산길이 원융국사비와 부도전과 승방까지 이어져 있다. 산길 아래로는 사하촌의 드넓은 과수원이 펼쳐져 있다. 부석사 주변의 곤충상이 다른 절에 비해 빈약한 것도 과수원이 주는 반생태적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석사는 아름다운 절이지만, 반면에 눈에 밟히는 것도 많다. 몇 해 전에 들어선 절 입구의 연못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각종 분수와 휘황찬란한 조명과 갖가지 인공구조물은 1천 5백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공원이나 아파트촌에나 있을 법한 연못이다. 공무원들의 발상이라지만 '연못을 조성하기 전에 부석사에서 강력한 의사표시만 있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반환경적인 폭포와 연못을 만드느니 차라리 돈으로 옛 영지를 찾아서 복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참으로 답답한 처사들이다.

부드럽고 탄력적인 곡선미를 보여주는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들은 느티나무와 소나무로 세운 것이다. 조선 초기만 하여도 소나무보다 느티나무나 참나무 같은 활엽수종이 대부분의 건축물에 쓰였다.

소나무가 건축물에 주재료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이다. 그 무렵부터 소나무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수종이 차츰 번창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의 기후가 지금보다 더욱 다습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여시아문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간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